

국립국어원 2012-01-5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34-01

##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홍종선

2013년 1월 3일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3년 1월 3일

연구 책임자: 홍종선(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홍종선

공동 연구원    최석재

보조 연구원    조민하, 최정은

보조원        김건영



[국문 초록]

##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이 용역 사업은 2012년 텔레비전 방송 중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언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이며, 예산은 35,736,360원이다. 연구진은 책임 연구원 1인, 공동 연구원 1인, 연구 보조원 2인, 보조원 1인의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언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상파 3사(KBS, SBS, MBC)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MBN, JTBC, TV조선, 채널A)에서 방영되었던 주말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여 월화 드라마와 수목 드라마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드라마의 방영 횟수는 총 240회, 방영 시간은 15001분(250시간 1분)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비규범 표현(비표준어, 비문법)’과 ‘저속한 표현(인격 모독 표현,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은어 및 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 기타의 10개 항목에서 총 4064번의 저품격 표현을 발견하였다. 드라마 1편당 16.93회, 10분당 2.71회의 저품격 언어가 사용된 것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항목은 비속어로 총 1331회, 10분당 16.33회 출현하였고, 가장 적은 빈도를 차지한 항목은 선정적 표현으로 총 13회, 10분당 0.12회 출현하였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방송사별로 구별하여 보면 지상파에서는 총 2514회, 10분당 24.16회 나타났고, 종편에서는 총 1550회, 10분당 23.80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방송사별로 KBS는 총 646회, 10분당 5.66회, SBS는 총 898회, 10분당 8.55회, MBC는 총 970회, 10분당 9.95회로 나타났으며, MBN에서는 총 540회, 10분당 10.46회, JTBC는 총 324회, 10분당 5.17회, TV조선은 총 341회, 10분당 3.64회, 채널A는 총 345회, 10분당 4.53회로 나타났다.

비표준어	비문법	인격 모독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은어·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	기타	합계
909	73	412	71	91	1014	119	1331	13	31	4064

[표 1] 항목별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회)

[주요어] 텔레비전, 방송, 드라마, 저품격 언어, 비규범 표현, 저속한 표현, 비표준어, 비문법, 인격 모독 표현,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은어 및 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 실태 조사

<Abstract>

## A Study on the Actual Use of Low-Dignity Words in Broadcasting

This study is for researching the actual use of low-dignity words in television dramas broadcasted in 2012. The specific period of monitoring them for this research is five months in total, from May to September in 2012, and the total amount of the research expense is ₩35,736,360. The numbers of research members for this project are five in total: one senior researcher, one co-researcher, two research assistants, and one assistant.

Focusing mainly on weekend dramas, Monday & Tuesday dramas and Wednesday & Thursday dramas of thre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KBS, SBS, MBC) and four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MBN, JTBC, TV Chosun, Channel A) were monitored to find the actual uses of low-dignity words in television dramas of 2012. The numbers of the broadcasted episodes which are monitored by this research project are 240 in total and their running time is 15,001 minutes which are equivalent to 250 hours 1 minute.

In the study of actual uses of low-dignity words in television drama, 4064 low-dignity expressions were discovered in 10 categories, such as 'non-standard expressions (non-standard language, non-standard grammar)', 'vulgar expressions (expressions insulting personality, discriminative expressions, violent expressions, unnecessary foreign words & loanwords, argot & chatting language, coarse expressions, lewd expressions)', etc. Low-dignity words were used 16.93 times per one episode and 2.71 times per 10 minutes. Coarse expressions were used most frequently by 1331 times in total and 16.33 times per 10 minutes. Lewd expressions were used most less frequently by 13 times in total and 0.12 time per 10 minutes. This shows that there are serious problems with expressions used in television dramas.

When assorting the language misuses by broadcasting companies, we can find that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used low-dignity words 2514 times in total and 24.16 times per 10 minutes, while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used them 1550 times in total and 23.80 times per 10 minutes. When they were divided to broadcasting companies, KBS was 646 times in total, 5.66 times per 10 minutes; SBS was 898 times in total, 8.55 times per 10 minutes; MBC was 970 times in total, 9.95 times per 10 minutes;

MBN was 540 times in total, 10.46 times per 10 minutes; JTBC was 324 times in total 5.17 times per 10 minutes; TV Chosun was 341 times in total, 3.64 times per 10 minutes, and Channel A was 345 times in total, 4.53 times per 10 minutes.

Non-standard language	909
Non-standard grammar	73
Expression insulting personality	412
Discriminative expression	71
Violent expression	91
Unnecessary foreign word & loanword	1014
Argot & chatting language	119
Coarse expression	1331
Lewd expression	13
Etc.	31
<b>Total</b>	<b>4064</b>

[Table 1] Usage frequency of low-dignity words by categories

<Keywords> television, broadcasting, drama, low-dignity word, non-standard expression, vulgar expression, non-standard language, non-standard grammar, expression insulting personality, discriminative expression, violent expression, unnecessary foreign word & loanword, argot & chatting language, coarse expression, lewd expression, monitoring

## <차례>

1. 서론 .....	1
1.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1
1.2. 선행 연구 .....	2
1.3. 방송 언어 분석의 항목 설정 .....	4
2. 방송 언어의 현실: 주말 드라마를 중심으로 .....	7
2.1. 분석 방법 .....	7
2.2. 조사 항목 .....	9
3. 저품격 언어 조사 결과 및 분석 .....	19
3.1. 조사 항목별 빈도 .....	19
3.2. 월별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 추이 .....	20
3.3.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와 드라마의 상관관계 .....	23
3.4.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와 방송사의 상관관계 .....	30
4. 방송 언어의 지향점 .....	35
5. 결론 .....	41
참고 문헌 .....	43
부록 1: 방송 언어 관련 법률 및 규정 .....	45
부록 2: 조사 대상 드라마별 줄거리 및 주요 등장인물 .....	47
부록 3: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월간 보고서 및 국립국어원 보도자료(5월~9월) .....	82
부록 4: 저품격 언어 출현 사례(전체) .....	271

## <표 차례>

[표 1] 방송 언어의 요건 .....	5
[표 2] 방송 언어 분석 항목 .....	6
[표 3] 조사 대상 드라마 정보 .....	7
[표 4] 저품격 언어 분석 항목 .....	8
[표 5] 월별 드라마 방영 횟수 .....	20
[표 6]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 .....	24
[표 7] 회당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 .....	25
[표 8] 10분당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 .....	26
[표 9] 분석 항목에 따른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실제 출현 횟수) .....	27
[표 10] 분석 항목에 따른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10분당) .....	28
[표 11] 주로 비표준 어형으로 사용되는 단어 .....	36

## <그림 차례>

[그림 1] 전체 드라마에서의 저품격 언어 출현 횟수 .....	19
[그림 2] 저품격 언어 중 고빈도 항목의 월별 추이 .....	21
[그림 3] 저품격 언어 중 저빈도 항목의 월별 추이 .....	22
[그림 4] 저품격 언어 중 고빈도 항목의 10분당 출현 빈도 월별 추이 .....	22
[그림 5] 저품격 언어 중 저빈도 항목의 10분당 출현 빈도 월별 추이 .....	23
[그림 6] 지상파와 종편의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10분당) .....	31
[그림 7] 방송사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비교 .....	31
[그림 8] 지상파와 종편의 항목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 .....	32
[그림 9] 지상파의 항목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 .....	33
[그림 10] 종편의 항목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 .....	33





# 1. 서론

## 1.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조사는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한 방송 언어 사용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 언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언어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국어 교육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방법론이 방송 언어에 활용되기도 하면서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방송 언어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른 방송 언어 사용을 위한 개선안 마련은 매우 시급한 형편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드라마는 광범위한 시청자 층을 포괄한다. 특히 주말 드라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말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본 과업의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방송 언어 중의 하나이다.

본 과업에서는 주말 드라마의 저품격 언어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본질적 목표와 실행적 목표로 나누어 과업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질적 목표는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한 방송 언어 사용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주말 드라마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이후 주말 드라마에서 방송된 언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방송 언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간의 방송 언어의 저품격과 관련한 연구는 비속어, 인격 비하의 표현, 폭력적 표현 등 표현 부분 등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품격 있는 방송 언어의 범위를 한정된 면이 있다. 본 과업에서는 표현 영역에서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옳지 못한 언어를 ‘부적격 표현’으로 분류하고 형태와 문장 영역에서 방송 언어의 품격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방송 언어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주력한다.

둘째, 국민들의 언어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언어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올바른 언어 표현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교육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비록 다른 대중 매체들에서 여전히 저품격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파급력이 강한 텔레비전 드라마 프로그램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언어생활 수준이 후퇴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방송사의 현실적인 교육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과정에 본

과업 제안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방송인들에게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교육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중 매체 언어를 통한 국어 교육 및 국내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언어의 정확한 사용과 표현적 특징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표준 언어’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텔레비전 방송이 시청각 교재로서 채택되고 있다. 엄격한 고급 표현을 구사하는 프로그램은 규범적 언어를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둔 초급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표현을 구사하는 프로그램은 상황적 특성에 따른 언어 사용을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둔 중·고급 국어 교육에 각각 적합하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외국인들에게도 올바른 자료를 흥미 있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선행 연구

방송 언어의 바람직한 전형을 제시하고 저품격 언어의 사용을 경계하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방송 프로그램들은 정기적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바꾸어 매일 송출되고 있으므로, 저품격 언어의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저품격 언어의 사례를 수집하여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는 이주행(1997), 김영용(1999), 임태섭(1999), 장소원(2000), 허춘(2000), 허춘(2001), 김수현(2005), 오미영(2005), 윤재홍(2005), 편석환(2005) 김현주(2006), 오미영(2006), 이동석(2006a), 이동석(2006b), 오미영(2007), 정수희(2007), 손범규(2010), 심미선·박은희·김경희(2011) 등이 있다. 이들 연구를 프로그램 특성별로 분류한다면 임태섭(1999), 장소원(2000), 윤재홍(2005), 이동석(2006a), 이동석(2006b)는 보도 프로그램의 언어 문제를 다룬 연구로, 김영용(1999), 오미영(2005), 오미영(2006), 오미영(2007), 손범규(2010)은 오락 프로그램의 저품격 표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이주행(1997), 편석환(2005)는 광고 언어를 다룬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허춘(2000), 허춘(2001), 김수현(2005), 정수희(2007)은 방송 언어의 주된 역할이 규범적 언어임을 중시한 연구로서 규범에서 어긋난 발음 및 외국어·외래어의 사용에 주목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방송 언어의 사용 실태를 전 방위적으로 보여 준다.

저품격 방송 언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는 손범규(2010), 김현주(2006) 등이 있다. 저품격 언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방송 언어로는 단순히 규범에 어긋나는 발음 및 표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시청자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어 표현이 포함된다. 손범규(2010)은 방송 언어의 저품격 표현으로 차별적 표현(성별, 연령, 지역, 인종, 민족, 장애인 등), 인격 모독 표현(외모, 성격, 학력, 재력 등), 폭력적 표현, 비속어, 욕설

등을 설정하고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품격 표현이 사용되는 사례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저품격 표현의 기준을 보았을 때 어문 규정과 동일하지 않으며 정서적 측면이 상당 부분 고려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현주(2006)에서는 임태섭(1999)에서 제시한 방송 언어의 기준을 받아들여 방송에서는 바르고, 공식적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모범적이고, 전달과 이해가 용이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를 '저품격 언어'로 규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 언어 정책은 언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규범 중심에서 탈피하고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방송 언어의 어휘·문법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 또한 상당하다. 특히 방송 언어의 파급력을 생각해 볼 때 방송에서는 정확한 어휘·문법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방송 언어상의 어휘·문법 중 규범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이나 또는 순화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임태섭(1999)는 보도·교양 언어의 문제점으로 외래어·외국어 남용, 일어·영어식 표현, 일본식 한자, 극단적 표현·지나친 과장(이상 어휘·표현적 측면), 일어·영어식 수동태, 일어식 복합조사, 외국어 문법에 동화하는 품사 전이, 어색한 명사화·복잡한 명사구(이상 문법적 측면) 등을 든 바 있다. 임태섭(1999)에서는 규범에 어긋났다기보다는 한국어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기 어려운 표현들을 문제시함으로써 방송 언어의 외연은 규범이 인정하는 폭보다 더 좁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장소원(2000)에서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을 음운·어휘·문장 구성·자막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문장 구성에 관하여서는 문장 성분의 호응, 어미와 조사의 사용, 중의성을 야기하는 문장 구조, 동일한 표현의 중복, 불필요한 피동 표현, 대등하지 않은 구문의 접속, 남용되는 표현 등을 거론하면서 통사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한국어가 방송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수현(2007)에서는 외래어가 현재 방송 언어에 깊이 침투한 수준을 심각한 것으로 보고 공중과 3사의 시사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을 각 1개씩 선정하여 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외래어가 사용된다는 점, 새로운 개념에 대한 표현으로 외래어가 도입된다는 점, 외래어가 고유어를 대체한다는 점 등을 밝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순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방송 관계자들이 의식적으로 상황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수현(2007)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래어를 순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외래어의 남용 기준을 수치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방송 언어의 평가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에는 이주행(2005)가 있다. 이는 방송 언어의 품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는 방안을 고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송 언어의 평가 기준으로는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 용이성이 있는데, 이는 임태섭(1999)에서 사용

하고 있는 용어와 같으나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sup>1)</sup> 그 정도의 측정을 위해 방송위원회 및 공영방송 3사의 언어 평가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방송 언어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보도와 시사 장르, 교양 장르, 오락 장르, 스포츠 장르 등 장르적 특성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이주행(2005)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대단히 세밀하며 방송 언어의 품격을 계량화하여 증명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방송 언어가 지닌 공공성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한샘(2011)과 서은아(2011)이 있다. 김한샘(2011)은 방송 언어가 언어생활의 본보기로서 공공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세운 논의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송 언어가 갖출 요건으로, 내용 및 표현의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을 들었다. 서은아(2011)은 규범성, 적절성, 용이성을 방송 언어의 공공성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김한샘(2011)에서 중요시하였던 방송 언어의 ‘내용’을 배제하고 언어 표현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오새내(2011)은 방송 언어를 사회언어학적 맥락에서 관찰한 연구로서,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방송 언어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출연자들의 관계, 프로그램의 장르, 방송 환경의 변화 등이 언어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방송 언어를 일방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1.3. 방송 언어 분석의 항목 설정

방송 언어를 조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조사 항목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방송 언어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방송 언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 언어 분석 항목을 제시하였던 선행 연구들과 방송 언어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참조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조사 항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방송 언어의 공공성 진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던 김한샘(2011)과 서은아(2011)에서는 방송 언어의 공공성 기준으로서 ‘용이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김한샘(2011)에서는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을, 서은아(2011)에서는 ‘규범성, 적절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김한샘(2011)의 ‘정확성’과 ‘품격성, 공정성’은 서은아(2011)의 ‘규범성’과 ‘적절성’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므로 두 연구는 방송 언어의 공공성 기준을 설정하는 데서 어느 정도 일치점을 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1) 임태섭(1995; 1999)의 ‘순정성’은 ‘말이 얼마나 바르고 고운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주행(1995; 2005)의 ‘순정성’은 ‘상스럽지 않고 잡되지 않으며 바른 성질’을 뜻한다. 또한 임태섭(1995; 1999)의 ‘세련성’은 ‘어려운 말이나 고급 언어로 치장된 것이 아니라 단어나 표현의 선택이 적절하고 문법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함’을 뜻하고, 이주행(1995; 2005)의 ‘세련성’은 ‘세련미를 보이는 언어’이다(이주행, 2005:208).

또한 방송 언어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방송 언어의 요건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sup>2)</sup>

[표 1] 방송 언어의 요건

주체	방송 언어의 요건
법률·방심위·방송사	① 표준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방심위·방송사	②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선정적·성차별적 표현을 지양하여야 한다. ④ 인격 모독적 표현을 지양하여야 한다. ⑤ 폭력적인 표현을 지양하여야 한다. ⑥ 막말, 비속어, 은어, 인터넷 조어, 혐오어 등 저품격 표현의 발화 및 자막 처리를 지양하여야 한다. ⑦ 외국어는 선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⑧ 사투리는 가급적 배제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시에는 사투리 화자들에게 고정된 이미지를 심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표 1]의 항목들을 김한샘(2011)의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에 각각 대응해 볼 수 있다. ①·⑧은 ‘정확성’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③·④는 ‘공정성’에, ⑤·⑥은 ‘품격성’에, ⑦은 ‘용이성’에 대체로 해당한다. ②는 방송에서 저품격 언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때 모든 항목에 두루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 언어의 분석 항목이 되는 방송 언어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표 1]의 요건들을 다소 수정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9개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의 ①·⑧은 방송 언어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표준어’란 어휘에 한정되므로 통사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틀린 말 전체를 포괄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휘적 범주는 ‘비표준’ 항목으로, 통사적 범주는 ‘비문법’ 항목으로 구분한다. ③에서는 ‘선정적 표현’과 ‘차별적 표현’이라는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때의 ‘차별적 표현’은 기존의 성차별적 표현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즉, 성별, 인종, 나이, 외모 등 사회관계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폄하하는 표현을 뜻한다. ④와 ⑤에서 ‘인격 모독 표현’과 ‘폭력적인 표현’을 도출할 수 있으며, ⑥에서는 ‘은어’와 ‘비속어’의 기준을 구분한다. 은어는 소속감의 표현을 위하여 사용하지만 비속어는 청자에게 정

2) [표 1]의 바탕이 되는 방송 언어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방송법」 제6조 제8항, 「국어기본법」 제1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 제35조 제3항의 4, 제51조, 제52조, SBS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KBS의 <방송 강령>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2] 방송 언어 분석 항목

비표준 비문법	① 표준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⑧ 사투리는 가급적 배제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시에는 사투리 화자들에게 고정된 이미지를 심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선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③ 선정적·성차별적 표현을 지양하여야 한다.
인격 모독 표현	④ 인격 모독적 표현을 지양하여야 한다.
폭력적인 표현	⑤ 폭력적인 표현을 지양하여야 한다.
은어 및 통신어 비속어	⑥ 막말, 비속어, 은어, 인터넷 조어, 혐오어 등 저품격 표현의 발화 및 자막 처리를 지양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⑦ 외국어는 선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서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⑦에서는 외국어 표현뿐 아니라 고유어로 대체 가능한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도 지양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

## 2. 방송 언어의 현실: 주말 드라마를 중심으로

주말 드라마를 분석하는 것은 모든 연령대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의 프로그램이므로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합리적인 방송 언어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1.3에서 제시한 방송 언어의 분석 기준에 따라 주말 드라마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 2.1. 분석 방법

조사 대상이 된 자료는 지상파 3사(KBS, SBS, MBC)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MBN, JTBC, TV조선, 채널A)에서 방영되었던 주말 드라마이다. 주말 드라마가 방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화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 등으로 대체하여 조사하였다. 총 20편의 드라마 240회분이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드라마 회당 방영 시간은 1시간(±10분)이었다.<sup>3)</sup> 따라서 최대 20분의 방영 시간의 차이가 있어 공평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10분당 저품격 언어의 출현 횟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드라마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3] 조사 대상 드라마 정보

방송사	제목	분류	조사 기간 및 횟수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주말	2012.05.05.~09.09.(38회)
	내 딸 서영이	주말	2012.09.15.~09.30.(6회)
SBS	바보 엄마	주말	2012.05.05.~05.20.(6회)
	신사의 품격	주말	2012.05.26.~08.12.(20회)
	다섯 손가락	주말	2012.08.18.~09.30.(14회)
MBC	신들의 만찬	주말	2012.05.05.~05.20.(6회)
	닥터 진	주말	2012.05.26.~08.12.(22회)
	메이퀸	주말	2012.08.18.~09.30.(14회)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주말	2012.05.05.~05.06.(2회)
	수상한 가족	수목	2012.05.09.~06.28.(16회)
	갈수록 기세등등(재방)	수목	2012.07.02.(2회)
	노크	단편	2012.08.10.(1회)

3) 예외적으로 MBN의 <갈수록 기세등등>는 매화 25분, <노크>는 89분간 방영되었다.



JTBC	해피엔딩(재방)	월화	2012.05.01.~07.16.(21회)
	친애하는 당신에게	수목	2012.07.18.~07.26.(4회)
	아내의 자격(재방)	수목	2012.08.04.~08.19.(6회)
	인수대비(재방)	월화	2012.08.20.~09.25.(12회)
TV조선	지운수대통	주말	2012.05.05.~06.24.(16회)
채널A	불후의 명작	주말	2012.05.05.~05.20.(6회)
	굿바이 마늘	월화	2012.05.28.~07.10.(14회)
	판다양과 고슴도치	주말	2012.08.18.~09.30.(14회)

1.3에서 제시한 저품격 언어의 조사 항목은 본고의 기준에 따라 크게 두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규범 표현과 저속한 표현이 그것인데, 이는 규범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비규범 표현은 한국어의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를 말하며, 단어 차원에서의 비표준어의 사용과 통사 차원에서의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대상이 된다. 저속한 표현은 한국어의 규범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표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품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인격 모독 표현과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은어 및 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의 7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는 규범적인 오류와 부적합한 표현을 모두 저품격 언어로 보고자 하는 입장에 근거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저품격 언어 분석 항목

비규범 표현	비표준어
	비문법
저속한 표현	인격 모독 표현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은어 및 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

이들 조사 항목과 함께 본고의 내용의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이외의 항목으로 기타의 부분도 간략히 언급한다. 기타에서는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를 다룬다.

## 2.2. 조사 항목

위에서 제시한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저품격 언어의 사용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 조사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 1) 비규범 표현

#### (가) 비표준어

여기서 말하는 ‘비표준어’란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인식되는 말들을 가리킨다. 단어의 오용, 외국어·외래어의 잘못된 표현, 서울 출신 화자의 표준어가 아닌 방언 사용, 과도한 축약어 사용 등을 포함한다. 이 유형의 오류는 방송에서 되도록 피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표준어가 매월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 (ㄱ) <표준국어대사전>상의 비표준어 사용

사전에서 비표준어로 등재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 그 기집애가 나 무시했단 말이야.

<SBS 다섯 손가락(1회), 유인하(김지훈)>

(2) 나 엄청 개길 건데.

<JTBC 아내의 자격(14회), 윤서래(김희애)>

(1)의 ‘기집애’는 ‘계집애’로, ‘성가시게 달라붙다’의 의미로 사용된 (2)의 ‘개기다’는 ‘개개다’의 비표준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 (ㄴ) 단어의 혼동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이 서로 다른 단어를 혼동한 예들이 이에 속한다.

(3) 형이 날 또 뭘 가르켰어, 어유.

<TV조선 지운수대통(5회), 지운수(임창정)>

(4) 바랄 걸 바래라.

<SBS 다섯 손가락(9회), 나계화(차화연)>

(5) 그거랑 틀리지.

<TV조선 지운수대통(11회), 지운수(임창정)>

(3)의 ‘가르쳤어’는 ‘가르쳤어’로, (4)는 ‘바래라’는 ‘바라라’로, (5)의 ‘틀리지’는 ‘다르지’로 바꾸어 사용해야 올바른 뜻이 전달될 수 있다.

(ㄷ) 외국어·외래어의 잘못된 표현

외국어·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표기한 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어·외래어가 빈번하게 나타난 프로그램일수록 이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6) 이 아가씨를 타겟으로 삼아야겠어.

<TV조선 지운수대통(16회), 지운수(임창정)>

(7) 컨셉 자체가 하나의 공원으로 가는 건데.

<SBS 신사의 품격(17회), 김도진(장동건)>

(8) 성희야, 나 도마도 주스.

<SBS 다섯 손가락(6회), 나계화(차화연)>

(6)의 ‘타겟’은 ‘타깃’으로, (7)의 ‘컨셉’은 ‘콘셉트’로, (8)의 ‘도마도’는 ‘토마토’로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ㄹ) 서울 출신 화자의 표준어가 아닌 방언 사용

드라마에서 배역이 비수도권 지역 출신 화자인 경우에 표준어가 아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서울 출신 화자의 배역이 표준어가 아닌 방언을 쓰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9) 데리고 오지도 않는데 내 발로 들어가? 모냥 빠지게?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0회), 한만희(김영란)>

(10) 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으른을 오라 가라 할 것은 뭐야.

<SBS 다섯 손가락(3회), 나계화(차화연)>

(11) 그릇을 데피 났습니다.

<채널A 불후의 명작(15회), 황금희(박선영)>

(9)의 방언형인 ‘모냥’은 표준어인 ‘모양’으로, (10)의 ‘으른’은 ‘어른’으로, ‘데우다’의 방언형인 ‘땀히다’가 사용된 (11)는 ‘데워 났습니다’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㉞) 과도한 축약어

원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과도하게 축약된 단어들의 사용도 빈번히 나타났다.

(12) 윤이 오빠 생판데.

<SBS 신사의 품격(7회), 임메아리(윤진이)>

(13) 잘 가, 우리 피사.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2회), 한만희(김영란)>

(14) 내가 자빔에 겨워서 베프를 까먹었으니, 이를 어찌면 좋아.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8회), 판다양(윤승아)>

(10)의 ‘생파’는 ‘생일 파티’로, (11)의 ‘퍼펙트 사위’의 줄임말인 ‘피사’는 ‘완벽한 사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12)의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인 ‘베프’는 ‘가장 친한 친구’로, ‘자빔’은 ‘자신에게 반해서’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㉟) 비문법

여기서는 한국어 문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조사 대상이 되는데 중의적인 표현 사용, 수식 오류, 피사동 오류, 경어법 오류 등이 속한다. 경어법 사용 오류에서는 국립국어원(2012)에서 발간한 『표준언어예절』을 참고하였다.

(㉟)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15)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해라.

<MBC 메이퀸(8회), 박창희(박건태)>

(16) 그러니까 내 밑에 오면 내가 책임지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수 있다니까.

<MBC 메이퀸(6회), 장도현(이덕화)>

(17) 완전 어이없지? 봐 봐. 내가 이거 완전 성훈 씨 앞에서 백번도 넘게 했잖아.

<JTBC 해피엔딩(23회), 박나영(소이현)>

(15)에 있는 ‘건강해라’는 문법상 잘못된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청유형이나 명령형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16)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 준다는 의미의 ‘소개하다’를 ‘소개시키다’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잉여적이므로 ‘소개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7)의 ‘완전’은 본래 명사인데 이 경우 ‘어이없다’를 수식하는 부사처럼 사용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어법에 어긋난다.

(ㄴ) 경어법의 잘못된 사용

(18) 트렌디한 어반 느낌이세요.

<SBS 신사의 품격(10회), 매장 직원>

(19) 주사가 계시지.

<JTBC 인수대비(15회), 한확(장용)>

(20) 교수님께서 듣고 싶다면 들려 드려야죠.

<SBS 다섯 손가락(11회), 유인하(지창욱)>

사람이 아닌 대상을 높인 (18)의 ‘느낌이세요’는 ‘느낌이에요’로, (19)의 ‘계시지’는 ‘있으시지’로 수정해야 한다. (20)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교수님께 하는 말이므로 ‘듣고 싶으시다면’으로 사용해야 올바르다.

2) 저속한 표현

(ㄷ) 인격 모독 표현

해당 인물의 인격을 모독하여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 해당된다. 이 유형의 오류에서는 비속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

(ㄱ) 무시하는 표현

(21) 그런 애를 만나는 남자면 어디가 좀 모자란 애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0회), 차윤희(김남주)>

(22) 보자보자 하나까 이게 무식해 가지고.

<TV조선 지운수대통(15회), 나여사(이경진)>

(ㄴ) 비속어와 함께 사용된 표현

(23) 천이백, 쓰레기 같은 놈.

<MBN 수상한 가족(10회), 강도상(임호)>

(24) 너 이 거지 기집애 어디서 데려왔어?

<MBC 메이퀸(2회), 장일문(서영주)>

(ㄷ) 차별적 표현

조사 드라마에서 여러 유형의 차별적인 표현들이 나타났다. 특히 성에 대한 차별

적인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나이든 여자에 대한 표현이 눈에 띈다. 차별적 표현은 그 표현 대상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

(25) 마누라가 집구석에서 내조를 해야지.

<MBN 갈수록 기세등등(1회), 윤소정(윤소정)>

(26) 무슨 여자가 그렇게 해퍼?

<MBN 수상한 가족(2회), 천이백(김성수)>

(27) 반반한 기집애가 시집이나 갈 것이지, 군인이 뭐야, 군인이.

<MBN 갈수록 기세등등(1회), 윤소정(윤소정)>

(28) 그런 남자가 나이 찬 여자 뭐가 좋겠어.

<SBS 신사의 품격(10회), 학교 선생님>

(28)에서 나이든 여자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 남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

(29) 아유, 진짜 남자가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서야.

<MBN 수상한 가족(4회) 천지인(한고은)>

(30) 사내자식이 쪼잔하게…….

<MBN 수상한 가족(11회), 천억만(박상면)>

(㉢) 특정 직업이나 학과에 대한 차별적 표현

(31) 왕년에는 그냥 일 하는 아줌마 같았는데.

<TV조선 지운수대통(20회), 나여사(이경진)>

(32) 이래서 체대 나온 것들 무식하단 소릴 듣는 거야.

<SBS 신사의 품격(12회), 흥세라(윤세아)>

(㉣) 나이에 대한 차별적 표현

(33) 나이 들어서 약발도 안 받아요?

<SBS 신사의 품격(15회), 임메아리(윤진이)>

(34) 아무리 뽕빵이라지만 요리했다, 서빙했다 정신 사나워서 살겠어요? 나이도 많으면서 진짜.

- <SBS 다섯 손가락(7회), 레스토랑 매니저>  
 (35) 사람이고 물건이고 너무 오래되면 구린내가 나는 법이다.  
 <SBS 다섯 손가락(3회), 민반월(나문희)>

(㉞)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 (36) 그나저나 그 거지 같은 동네에 무슨 도둑이 드냐.  
 <TV조선 지운수대통령(8회), 전여사(홍여진)>  
 (37) 이제야 제주도에서 올라온 촌놈 얼굴이 보이는데?  
 <SBS 다섯 손가락(10회), 유인하(지상욱)>

(㉟)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 (38) 유학 가서 노란 머리 애들이랑 붙어서 제대로 배워.  
 <SBS 다섯 손가락(3회), 유지호(강이석)>

(㊱) 폭력적인 표현

폭력적인 표현은 거칠고 사나운 표현으로 인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위협이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폭력적인 표현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도한 폭력적인 표현이 음향적인 처리나 여과 없이 방영되고 있었다.

- (39) 다시 한 번 껌데기 먹으러 와 봐라, 껌데기를 흘랑 벗겨 버릴 거야.  
 <TV조선 지운수대통령(9회), 전여사(홍여진)>  
 (40) 지금 당장 니 머리채를 휘어잡고 니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걸 온 몸을 다해  
 참아내면서…….  
 <KBS 닝쿨째 굴러온 당신(51회), 엄청애(윤여정)>  
 (41) 다시 한 번만 후사 얘기를 꺼냈다면 그 입을 찢어 버릴 것이야!  
 <MBC 닥터 진(13회), 철중(김병세)>

(㊲)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여기에는 해당 순화어가 있거나 우리말로 풀어 표현할 수 있지만 외국어·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속한다. 이 유형의 사용은 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문장으로 된 외국어 표현도 많이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 등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발화에 동일한 외국어·외래어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출현 횟수대로 그 수를 셈하였다.<sup>4)</sup>

(ㄱ) 외래어

- (42) 두수야, 와이프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와이프가 그렇게 걱정돼?  
<JTBC 해피엔딩(5회), 홍애란(이승연)>
- (43) 니 남편 알면 일 걸잡을 수 없이 커질 테고 나 컨트롤 안 될 테니까.  
<JTBC 친애하는 당신(7회), 최은혁(김민준)>
- (44)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KBS 닝쿨째 굴러온 당신(58회), 천재용(이희준)>

(42)-(44)은 고유어로 대체 가능한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한 예이다. (42)의 ‘와이프’는 ‘아내’나 ‘부인’으로, (43)의 ‘컨트롤’은 ‘자제’나 ‘조절’로 순화할 수 있으며, (44)의 ‘디테일’은 ‘자세한’ 또는 ‘상세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ㄴ) 외국어

- (45) 재밌겠네, 넥스트.  
<TV조선 지운수대통(17회), 유팀장>
- (46) 너는 그런 필을 받은 적 없었냐?  
<MBN 수상한 가족(10화), 천원만(변우민)>
- (47) 아, 트러스트 미!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1회), 최원이(오이나)>

(45)-(47)은 고유어로 대체할 수 있지만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경우이다. (45)의 ‘넥스트’는 ‘다음’으로, (46)의 ‘필’은 ‘느낌’으로 순화할 수 있으며, 문장으로 표현된 (47)의 ‘트러스트 미’는 ‘날 믿어’ 등의 우리말로 대신할 수 있다.

(ㄷ) 은어 및 통신어

여기서는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말인 은어와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통신어가 사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에서 과거부터 사용되던 은어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통신어의 사용도 빈번히 나타났

4) 예를 들어 “홍다미, 킵 킵 킵”<SBS 다섯 손가락(5회), 루이강(정준하)>의 경우 동일한 외국어인 ‘킵(come)’이 세 번 반복되었으므로 세 번으로 셈한다. 조사 중간에 국립국어원 측의 요구에 따라 이 경우의 발화를 한 번으로 셈한 기간이 있었던 까닭으로 뒤의 부록으로 첨부된 월별 보고서와 보도 자료의 내용이 최종 보고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는데, 이는 시대를 반영하고 극중 재미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방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

(48) 아이고, 꼰대 납시셨네.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35회), 불량학생>

(49) 헐이다, 헐.

<SBS 신사의 품격(12회), 최윤(김민중)>

(50) 어차피 통인데요.

<SBS 신사의 품격(15회), 김동협(김우빈)>

(48)과 (49)는 모두 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로 (48)의 ‘꼰대’는 ‘선생(님)’으로, ‘헐’은 놀람을 나타내는 ‘헉’ 등으로 고쳐 말하는 것이 좋다. (49)는 노름판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두 일의 결과가 같다’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다.

#### (㉞) 비속어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말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비속어의 사용은 가장 지양되어야 할 대상 중 하나지만 다른 유형의 오류에 비해 사용 수준이 심각하다. 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엄격한 검토를 거친 후에 내보내야 할 것이다. ‘이놈’, ‘저놈’과 ‘이 자식’, ‘저 자식’ 정도의 비속어 표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엄격한 기준으로는 이들을 비속어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실성 반영의 측면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sup>5)</sup>

(50) 어떤 개 상놈의 호로 새끼가.

<TV조선 지운수대통(16회), 장여사>

(51) 아오지탄광에 쳐넣어가지고 평생 동안 손톱 발톱 빠지게 썩더빠큐같은 놈들 나오면은 너가 죽는다.

<TV조선 지운수대통(17회), 장여사>

(52) 이 쳐 죽일 년, 이 쳐 죽일 년이 그냥…….

<MBC 메이퀸(11회), 조달순(금보라)>

#### (㉟) 선정적 표현

선정적 표현은 성적인 욕구를 북돋우어 일으키는 표현으로, 이를 방송에서 사용

5) 이러한 이유로 뒤의 부록으로 첨부된 월별 보고서와 보도 자료의 내용이 최종 보고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월별 보고서와 보도 자료에서는 엄격한 기준에서 조사·분석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할 경우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민망함을 주거나 국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많은 여과를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여성에 대한 선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남성에 관한 선정적인 표현도 나타난다.

(ㄱ) 여성

(53) 야들야들한 것이 계집년 속살보다 낫다.

<MBC 닥터 진(4회), 주팔이(이원종)>

(54) 남자들이 좋아하는 섹시는 벗은 상태가 아니라 벗기고 싶은 상태야

<SBS 신사의 품격(11회), 홍세라(윤세아)>

(55) 내 돈 주고 여자 만날 것 같으면 젊고 탱탱한 것들 만나지 늙은 널 만나겠냐?

<MBN, 수상한 가족(2회), 민대식(노주현)>

(ㄴ) 남성

(56) 내 사타구니에서 쌍방울 소리 나게 달려갈 테니까.

<MBC 닥터 진(12회), 주팔이(이원종)>

(57) 그 잘생긴 얼굴하며, 그 탄탄한 복근, 그 엉덩이까지.

<TV조선 지운수대통(11회), 최수아(임채원)>

3) 기타

위 조사 항목 외에 호칭어와 지칭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 호칭어·지칭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2012)에서 발간한 『표준언어예절』을 참고하였다.

(ㄱ) 호칭

(58) 야, 그걸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여자랑 결혼을 왜 해.

<TV조선 지운수대통(18회), 지운수(임창정)>

(58)에서는 동생이 형에게 자신보다 어리거나 동급인 경우에 사용하는 부름말인 ‘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잘못이다.

(ㄴ) 지칭

(59) 나만 맨날 술이냐? 홍세라도 맨날 술이면서.

<SBS 신사의 품격(15회), 임메아리(윤진이)>

(60) 넌 결혼식 또 하나?

<TV조선 지운수대통(18회), 지운수(임창정)>

(59)와 (60)에서도 모두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에게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지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바르게 고쳐 사용해야 한다.

(61) 아빠, 나 진짜 목도 안 돌아가, 아빠, 아빠도 알지, 나 진짜 싸움이라고는 눈 싸움도 못하는 거.

<TV조선 지운수대통(5회), 피해자>

(61)에서는 지칭과 호칭의 잘못된 사용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인데, 남편에게 ‘아빠’의 호칭·지칭어를 쓰고 있어 ‘여보’나 ‘○○ 아빠’ 등으로 고쳐 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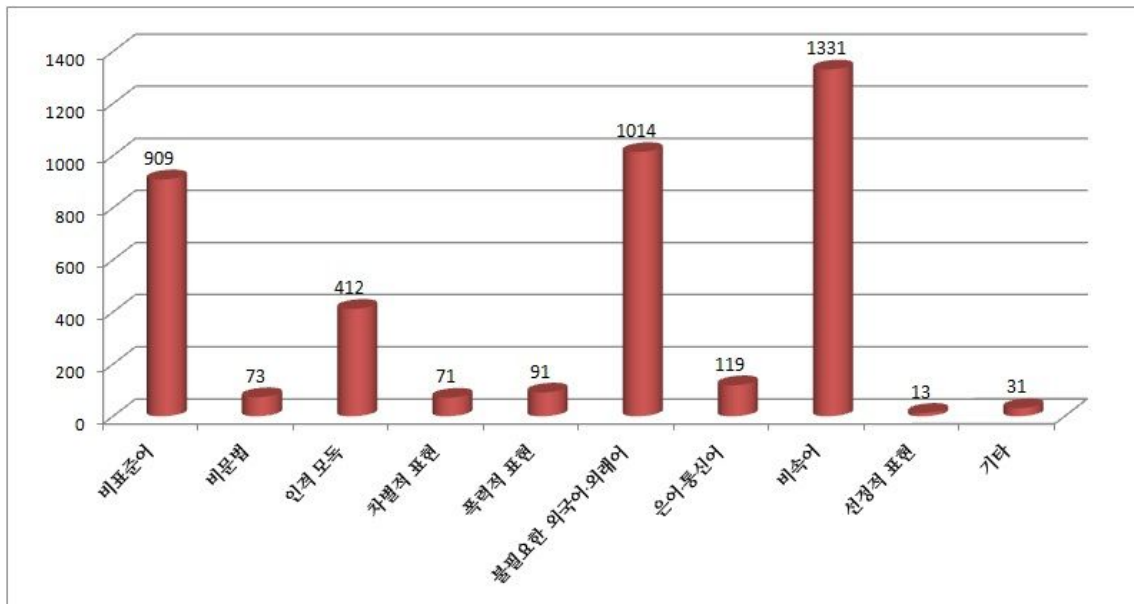
### 3. 저품격 언어 조사 결과 및 분석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드라마에서 출현한 저품격 언어의 사용 실태를 항목별로 제시하고 분석할 것이다. 우선 3.1에서는 저품격 언어의 빈도를 조사 항목별로 제시하고, 3.2에서는 월별 변화 추이를 전체 횟수와 10분당 출현 횟수로써 살핀다. 3.3에서는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와 드라마의 상관 관계를 알아볼 것이며, 3.4에서는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와 방송국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 3.1. 조사 항목별 빈도

20편의 드라마 240회분을 조사한 결과 저품격 언어의 출현 횟수는 총 4064회였으며, 비속어(1331회),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1014회), 비표준어(909회)가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인격 모독(412회), 은어·통신어(119회), 비문법(73회), 폭력적 표현(91회), 차별적 표현(71회)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 항목은 선정적 표현으로서 13회에 그쳤다. 기타 저품격 표현은 31회 출현하였다[그림 1].

[그림 1] 전체 드라마에서의 저품격 언어 출현 횟수



이를 통하여 저품격 언어 항목 간 편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비속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비표준어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표현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선정적 표현의 출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 3.2. 월별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 추이

2012년 5월부터 동년 9월까지의 조사 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품격 언어의 출현 빈도에서도 변화가 관찰되었다. 저품격 언어가 가장 많이 출현했던 달은 6월로서 전체 4064회 중 1137회가 이달에 출현하였고, 9월(895회), 5월(791회), 7월(635회), 8월(606회)가 그 뒤를 따랐다. 저품격 언어가 6월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였던 것은 저품격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라마가 6월에 집중적으로 방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8월과 7월에 가장 적게 출현하였던 것은 종편 드라마의 방영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든 데다가 올림픽 중계로 인한 결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 대상 드라마의 월별 방영 횟수를 표로 제시한 다음 [표 5]에서도 알 수 있다.

[표 5] 월별 드라마 방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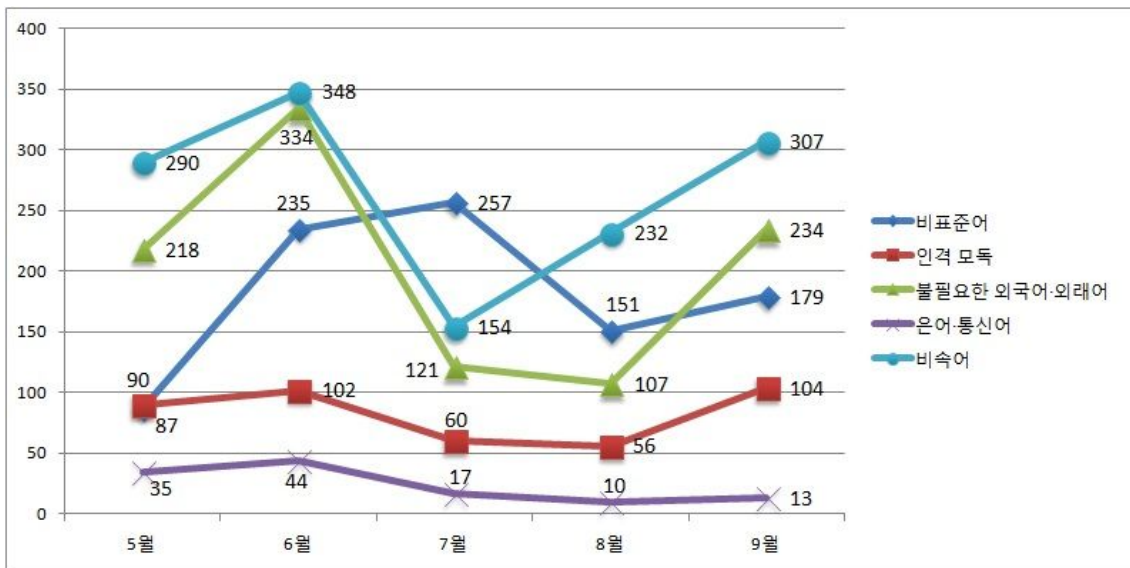
방송사	제목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KBS	넝쿨째 굴러 온 당신	8	9	9	8	4	38
	내 딸 서영이	0	0	0	0	6	6
SBS	바보 엄마	6	0	0	0	0	6
	신사의 품격	2	9	7	2	0	20
	다섯 손가락	0	0	0	4	10	14
MBC	신들의 만찬	6	0	0	0	0	6
	닥터 진	2	9	9	2	0	22
	메이퀸	0	0	0	4	10	14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2	0	0	0	0	2
	수상한 가족	8	8	0	0	0	16
	갈수록 기세등등(재방)	0	0	2	0	0	2
	노크	0	0	0	1	0	1
JTBC	해피엔딩(재방)	9	7	5	0	0	21
	친애하는 당신에게	4	0	0	0	0	4
	아내의 자격(재방)	0	0	0	6	0	6
	인수대비(재방)	0	0	0	4	8	12
TV조선	지운수대통	8	8	0	0	0	16
채널A	불후의 명작	6	0	0	0	0	6
	굿바이 마늘	2	8	4	0	0	14
	판다양과 고슴도치	0	0	0	4	10	14
합계		63	58	36	35	48	240

[표 5]를 통하여 저품격 언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던 <신사의 품격>, <넝쿨째

굴러 온 당신>, <수상한 가족>, <닥터 진> 등이 6월에 집중적으로 방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월과 7월의 전체 방영 횟수는 각각 35회와 36회로, 다른 달의 방영 횟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2]와 [그림 3]은 월별 추이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인 것이다. [그림 2]는 고빈도 항목 5개(비표준어, 인격 모독 표현, 외국어·외래어, 은어·통신어, 비속어)를, [그림 3]은 저빈도 항목 5개(비문법,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선정적 표현, 기타)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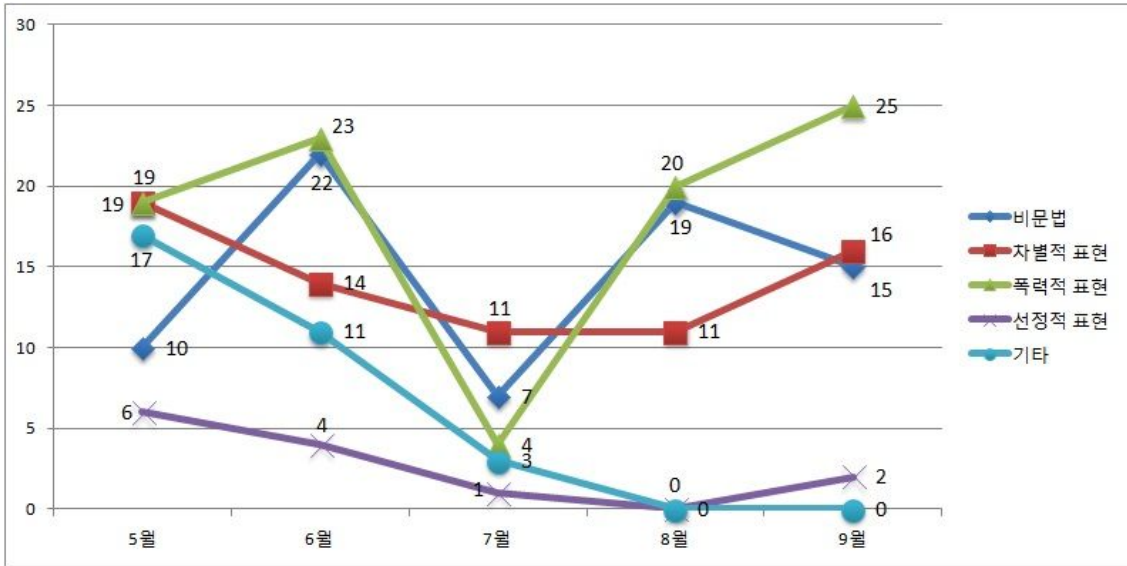
[그림 2] 저품격 언어 중 고빈도 항목의 월별 추이



전체 저품격 언어 중 가장 출현 횟수가 많았던 항목인 비속어는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수위를 차지하였다. 외래어·외국어는 5월과 6월에 두 번째로 자주 출현한 저품격 언어 항목이었다가 7·8월에 잠시 하락하였으나 9월에는 다시 2위로 올라섰다. 비표준어는 5월부터 출현 빈도가 점차 늘어나다가 7월에는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8월과 9월에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였다. 인격 모독 표현은 5월에는 3위를, 6~9월에는 4위를 차지하여 순위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은어·통신어는 5월에는 30회, 6월에는 40회 이상 출현하였으나 7월부터는 그 빈도가 크게 줄었다.

저빈도 항목 중에서는 비문법과 폭력적 표현이 6월에 각각 22회·23회 출현하였다가 7월에 각각 7회·4회 출현하며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눈에 띈다[그림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편에서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은 것과 올림픽 결방으로 인한 전체 방영 횟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월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비문법적 표현이 다수 출현하였던 <메이퀸>과 폭력적 표현이 다수 출현하였던 <판다양과 고슴도치>가 8월부터 방영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차별적 표현은 최소 11회에서 최고 19회 출현하면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선정적 표현은 8월까지 감소하다 9월에 소폭 상승하지만 뚜렷한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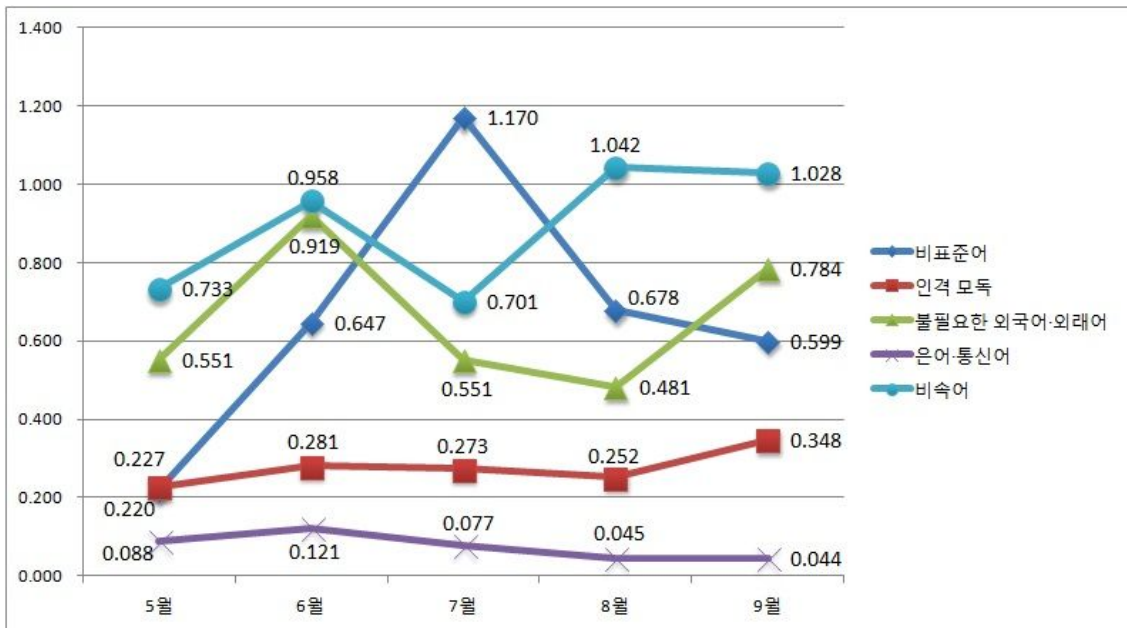
[그림 3] 저품격 언어 중 저빈도 항목의 월별 추이



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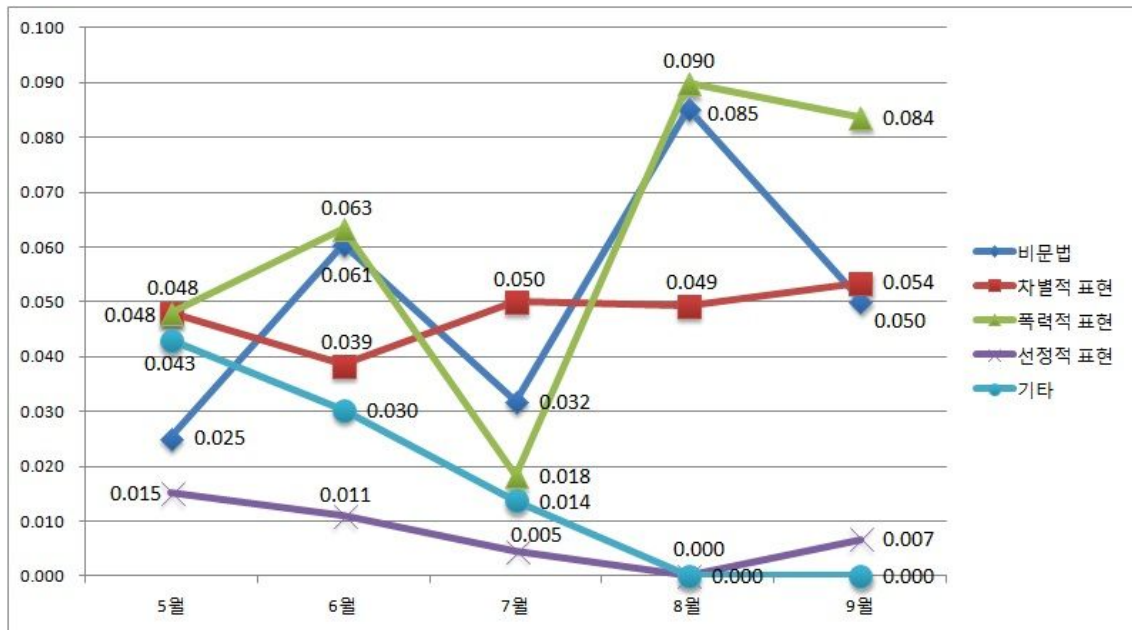
다만 [그림 2]와 [그림 3]의 수치는 방영 횟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드라마 안에서 저품격 언어 표현의 항목별 출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각 항목의 10분당 출현 빈도를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는 고빈도 항목 5개의 10분당 출현 빈도 월별 추이를, [그림 5]는 저빈도 항목 5개의 10분당 출현 빈도 월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저품격 언어 중 고빈도 항목의 10분당 출현 빈도 월별 추이



저품격 언어 중 고빈도 항목의 10분당 출현 빈도 월별 추이를 살펴본 [그림 4]에서는 7월에 비표준어가 비약적으로 약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표준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던 상위 4편의 드라마 중 3편(<닥터 진>, <닝쿨째 굴러 온 당신>, <메이퀸>)이 7월에 방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관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비속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10분당 출현 빈도 추이는 출현 횟수 추이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7월의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와 8월의 비속어의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속어의 출현 빈도가 두 번째로 높았던 <메이퀸>이 8월에 방영되기 시작하였고, 결방으로 인하여 드라마의 방영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분당 출현 빈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인격 모독 표현과 은어·통신어는 10분당 출현 빈도와 전체 출현 횟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5] 저품격 언어 중 저빈도 항목의 10분당 출현 빈도 월별 추이



저품격 언어 중 저빈도 항목의 10분당 출현 빈도 월별 추이는 전체 출현 빈도 월별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비문법과 폭력적 표현의 전체 출현 빈도는 6월이 8월보다 높았으나 10분당 출현 빈도는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에 결방으로 인하여 드라마 방영 시간이 단축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3.3.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와 드라마의 상관관계

20개 드라마에서 모두 4064개의 저품격 언어 사용이 관찰되었다. 아래 [표 6]은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를 방송사와 드라마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

	방송사	드라마 제목	출현 빈도
1	SBS	신사의 품격	571
2	KBS	넝쿨째 굴러 온 당신	516
3	MBN	수상한 가족	499
4	MBC	닥터 진	472
5	MBC	메이퀸	416
6	TV조선	지운수대통	341
7	SBS	다섯 손가락	282
8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	253
9	JTBC	해피엔딩	139
10	KBS	내 딸 서영이	130
11	JTBC	아내의 자격	107
12	MBC	신들의 만찬	82
13	채널A	굿바이 마늘	78
14	JTBC	인수대비	69
15	SBS	바보 엄마	45
16	MBN	갈수록 기세등등	20
17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17
18	채널A	불후의 명작	14
19	JTBC	친애하는 당신에게	9
20	MBN	노크	4
	합계		4,064

상위 5개 드라마는 MBN의 <수상한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지상파이나, 하위 5개 프로그램은 모두 종편 채널의 드라마이다. 이는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서 저품격 언어가 종편에서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 편성 채널에서는 드라마가 일찍 종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상파 드라마와 비교하여 전체 방영 횟수가 적었다.

따라서 아래 [표 7]에서는 전체 저품격 언어 사용을 방영 횟수로 나누어 회당 출현 빈도를 제시하였다. 이는 방영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방영된 프로그램들을 일괄 비교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표 7] 회당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

	방송사	드라마 제목	방영 횟수	회당 출현 빈도
1	MBN	수상한 가족	16	31.19
2	MBC	메이퀸	14	29.71
3	SBS	신사의 품격	20	28.55
4	KBS	내 딸 서영이	6	21.67
5	MBC	닥터 진	22	21.46
6	TV조선	지운수대통	16	21.31
7	SBS	다섯 손가락	14	20.14
8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	14	18.07
9	JTBC	아내의 자격	6	17.83
10	MBC	신들의 만찬	6	13.67
11	KBS	넝쿨째 굴러 온 당신	38	13.58
12	MBN	갈수록 기세등등	2	10.00
13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2	8.50
14	SBS	바보엄마	6	7.50
15	JTBC	해피엔딩	21	6.62
16	JTBC	인수대비	12	5.75
17	채널A	굿바이마눌	14	5.57
18	MBN	노크	1	4.00
19	채널A	불후의 명작	6	2.33
20	JTBC	친애하는 당신에게	4	2.25
		<b>합계</b>	<b>240</b>	<b>289.7</b>

회당 출현한 저품격 언어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별로 저품격 언어의 출현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수상한 가족>, <메이퀸>, <신사의 품격>은 회당 저품격 언어의 평균 출현 횟수가 25회를 넘는 반면, <불후의 명작>이나 <친애하는 당신에게>는 그 출현 횟수가 2회 정도에 그쳐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에서는 MBN의 <수상한 가족>, TV조선의 <지운수대통>이 각각 1위와 6위를 차지하였다. 이 외 지상파의 SBS <신사의 품격>, MBC <메이퀸>, KBS <내 딸 서영이>, MBC <닥터 진>이 각각 2~5위로 나타나 종편과 지상파의 균형이 맞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하위 5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종편 드라마로, 지상파 드라마의

저품격 언어 사용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보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에서 저품격 언어의 분당 횟수를 분석하였다. 드라마의 방영 시간이 제각각 다르고 한 드라마 안에서도 회별로 실제 방영 시간이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 사용 빈도만으로는 저품격 사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방영 시간을 토대로 저품격 언어가 출현한 빈도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1분당 사용된 횟수는 소숫점 이하 자릿수가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10분 단위로 하여 [표 8]과 같이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를 추출하였다.

[표 8] 10분당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

	방송사	드라마 제목	방영 시간 (분)	10분당 출현 빈도(회)
1	MBN	수상한 가족	1,057	4.721
2	MBC	메이퀸	923	4.507
3	SBS	신사의 품격	1,310	4.359
4	MBN	갈수록 기세등등	49	4.082
5	TV조선	지운수대통령	938	3.635
6	KBS	내 딸 서영이	374	3.476
7	MBC	닥터 진	1,427	3.308
8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	790	3.203
9	SBS	다섯 손가락	930	3.032
10	JTBC	아내의 자격	386	2.772
11	KBS	넝쿨째 굴러 온 당신	2,361	2.186
12	MBC	신들의 만찬	384	2.135
13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141	1.206
14	SBS	바보 엄마	388	1.160
15	JTBC	해피엔딩	1,311	1.060
16	JTBC	인수대비	714	0.966
17	채널A	굿바이 마늘	817	0.955
18	MBN	노크	89	0.449
19	채널A	불후의 명작	372	0.376
20	JTBC	친애하는 당신에게	240	0.375
		<b>합계</b>	<b>15,001</b>	<b>47.963</b>

\*음영: 지상파

10분당 사용 빈도는 [표 7] 회당 사용 빈도와 비교하여 다소의 순위 변동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상파 방송인데, 5위까지의 상위 그룹에는 두 개 프로그램만이 속해 있지만, 하위 그룹에는 모두 종편 채널이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는 주로 중·상위권에 속해 있고, 종편은 주로 중·하위권에 속해 있어 지상파에서 방영하는 주말 드라마에서 저품격 언어 사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9]와 [표 10]은 각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조사 항목별로 10분당 사용 빈도를 분석하여 순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9] 분석 항목에 따른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실제 출현 횟수)

방송사	프로그램명	비표 준어	비문 범	인격 모독	차별 적 표현	폭력 적 표현	불필 요한 외국 어·외 래어	은어· 통신 어	비속 어	선정 적 표현
KBS	넝쿨째 굴러 온 당신	113	0	102	11	10	100	17	163	0
	내 딸 서영이	22	0	25	6	8	27	1	41	0
SBS	바보 엄마	2	0	11	0	2	9	1	20	0
	신사의 품격	85	7	28	12	8	275	47	101	3
	다섯 손가락	20	2	58	7	1	129	5	60	0
MBC	신들의 만찬	6	4	0	0	0	50	1	9	0
	닥터 진	287	12	20	1	7	0	1	142	2
	메이퀸	115	21	14	7	7	38	3	209	2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3	1	0	2	0	6	3	1	0
	수상한 가족	89	12	14	5	7	133	20	215	1
	갈수록 기세등등	4	1	1	2	0	1	0	11	0
	노크	0	0	2	0	0	0	0	2	0
JTBC	해피엔딩	16	3	21	4	0	39	2	54	0
	친애하는 당신에게	0	0	3	0	2	2	0	2	0
	아내의 자격	32	7	2	1	1	31	4	29	0
	인수대비	18	3	1	0	2	0	0	45	0
TV 조선	지운수대통령	28	0	58	9	14	98	6	113	5
채널 A	불후의 명작	1	0	3	0	0	6	2	2	0
	굿바이 마늘	9	0	21	0	4	16	1	27	0
	판다양과 고슴도치	59	0	28	4	18	54	5	85	0
합계		909	73	412	71	91	1014	119	1331	13

[표 10] 분석 항목에 따른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10분당)

방송사	프로그램명	비표준어	비문법	인격모독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은어·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
KBS	넝쿨째 굴러 온 당신	0.48	0.00	0.43	0.05	0.04	0.42	0.07	0.69	0.00
	내 딸 서영이	0.59	0.00	0.67	0.16	0.21	0.72	0.03	1.10	0.00
SBS	바보 엄마	0.05	0.00	0.28	0.00	0.05	0.23	0.03	0.52	0.00
	신사의 품격	0.65	0.05	0.21	0.09	0.06	2.10	0.36	0.77	0.02
	다섯 손가락	0.22	0.02	0.62	0.08	0.01	1.39	0.05	0.65	0.00
MBC	신들의 만찬	0.16	0.10	0.00	0.00	0.00	1.30	0.03	0.23	0.00
	닥터 진	2.01	0.08	0.14	0.01	0.05	0.00	0.01	1.00	0.01
	메이퀸	1.25	0.23	0.15	0.08	0.08	0.41	0.03	2.26	0.02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0.21	0.07	0.00	0.14	0.00	0.43	0.21	0.07	0.00
	수상한 가족	0.84	0.11	0.13	0.05	0.07	1.26	0.19	2.03	0.01
	갈수록 기세등등	0.82	0.20	0.20	0.41	0.00	0.20	0.00	2.24	0.00
	노크	0.00	0.00	0.22	0.00	0.00	0.00	0.00	0.22	0.00
JTBC	해피엔딩	0.12	0.02	0.16	0.03	0.00	0.30	0.02	0.41	0.00
	친애하는 당신에게	0.00	0.00	0.13	0.00	0.08	0.08	0.00	0.08	0.00
	아내의 자격	0.83	0.18	0.05	0.03	0.03	0.80	0.10	0.75	0.00
	인수대비	0.25	0.04	0.01	0.00	0.03	0.00	0.00	0.63	0.00
TV조선	지운수대통령	0.30	0.00	0.62	0.10	0.15	1.04	0.06	1.20	0.05
채널A	불후의 명작	0.03	0.00	0.08	0.00	0.00	0.16	0.05	0.05	0.00
	굿바이 마늘	0.11	0.00	0.26	0.00	0.05	0.20	0.01	0.33	0.00
	판다양과 고슴도치	0.75	0.00	0.35	0.05	0.23	0.68	0.06	1.08	0.00
합계		9.65	1.13	4.74	1.26	1.13	11.73	1.32	16.33	0.12

3.1에서 비속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비표준어 등이 저품격 언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표 9]와 [표 10]을 통해 이 외에도 각 영역의 저품격성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수상한 가족>은 조직 폭력배와 형사의 등장으로 비표준어와 비속어가 매우 많이 사용된다. 조직 폭력배와 형사는 직업적 특성상 거칠고 조심스럽지 않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이를 드라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속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장면이 많이 관찰된다. 또한 새어머니가 의붓자식들을 대하는 장면에서 비속어가 자주 등장하였던 것도 비속어의 사용 빈도를 높인 한 요인이다.

<신사의 품격>은 교사, 변호사, 건축설계사, 프로 골퍼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서 다른 드라마에 비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사용이 상당히 많았다. 교사의 이야기가 나올 때 고등학생들이 자주 등장

하여 통신어 등의 사용도 다른 드라마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메이퀸>에서는 저품격 표현 중 비표준어와 비속어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드라마의 지역적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주인공 가족의 출신 지역이 전라남도 해남이기에 방언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방언 중에 비속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주인공 가족의 경우 ‘년’, ‘지랄’ 등의 단어를 다른 등장인물들에 비하여 더 많이 쓰는 편이다. 또한 어린 여주인공이 새어머니 및 주변 인물들에게서 고난을 당하는 설정상 ‘계집애’의 비표준적 변이형인 ‘기집애’, ‘지지배’ 등의 출현 빈도가 높았던 것도 저품격 표현의 출현 횟수가 높았던 요인 중 하나이다.

<지운수대통령>은 일반 회사원이었던 임창정이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인터넷 복권 당첨 번호를 예상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비속어와 인격 모독 표현이 고빈도로 관찰된다. 다른 드라마에 비해 과도한 폭력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역시 조직폭력배들이 나오는 경우에 주로 노출되는 표현이다.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사용이 높은 것은 회사원들이 이야기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내 딸 서영이> 역시 인격 모독 표현, 폭력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비속어 등의 사용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그러나 <지운수대통령>과는 달리 많은 부분 특정 인물의 발화 습관에 의해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다. 주인공 서영의 시아버지는 교양이 다소 떨어지는 완고한 대기업 사장으로 자식들이나 아내에게 인격 모독, 폭력적 표현이나 비속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기 때문이다.

<판다양과 고슴도치>는 학식이 낮고 부모가 없는 20대 남녀가 주인공으로 비표준어와 비속어 사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인공의 친구들과 가족들 역시 이들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 반면 이들과는 달리 외국에서 살다 온 주변 인물들이 한국어와 외국어를 섞어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사용이 빈번하게 노출된다.

<다섯 손가락>은 주인공의 남편이 밖에서 낳아 온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갈등이 생겨 서로 복수를 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의 친아들이 새로 들어온 아이에게 탄생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많이 하면서 인격 모독 표현이 고빈도로 나타난다. 최고 실력을 가진 피아니스트인 두 주인공들과 그의 재벌 어머니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산 척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사용 빈도가 많아진다.

<아내의 자격>은 비표준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사용이 높고, 비속어의 사용 역시 많이 관찰된다. 현대극으로서 실제의 언어생활을 반영하다 보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의 지역적 배경이 서울 강남의 교육열 높은 어머니들을 다루고 있어 외래어·외국어의 출현 빈도도 높다. 반면 비속어의 사용 횟수는 다른 드라마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노크>, <불후의 명작>, <친애하는 당신에게>, <굿바이 마눌>, <인수대비> 등은 저품격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노크>는 공포물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등장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영상과 음향에 더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포스러운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화에 의한 내용 전개보다는 영상 구성에 치중한 결과 저품격 표현이 개입될 기회 자체가 다른 드라마들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인수대비> 역시 사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있다. 이 드라마에서 비속어가 많이 사용된 이유는 ‘넌’과 같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꾸짖음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었다.

<불후의 명작>은 주인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명장이 되어가는 성장 드라마로 주로 요리하는 시간이 많아 언어적 요소가 배제되는 장면이 많았다.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착하고 반듯한 주인공과, 품위 유지를 중요시 하는 요리 명장들이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비속어 사용이 거의 없다. <불후의 명작>에서 사용된 저품격 언어는 주로 주변 인물인 재단 상속자와 그와 관련된 실장이 사용하는 인격 모독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가 주를 이룬다.

<친애하는 당신에게>나 <굿바이 마늘>은 <노크>나 <불후의 명작>과 같이 장르적 속성에 의한 것은 아니나, 극의 분위기가 서로에 대한 비밀을 숨기며 암시적으로 흘러가거나 암 말기 환자의 슬프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그리게 되면서 저품격 언어가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저품격 언어의 사용 빈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저품격 언어의 사용 빈도는 주로 장르나 내용적 요소, 그리고 인물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공포물이나 요리와 같이 시각이나 청각적 정보가 중요한 장르는 상대적으로 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전체 분석 대상이 적어진다. 당연히 언어적 요소에서 분석될 수 있는 저품격성도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품위를 유지하고 전통적 언어 사용을 부각시켜야 하는 사극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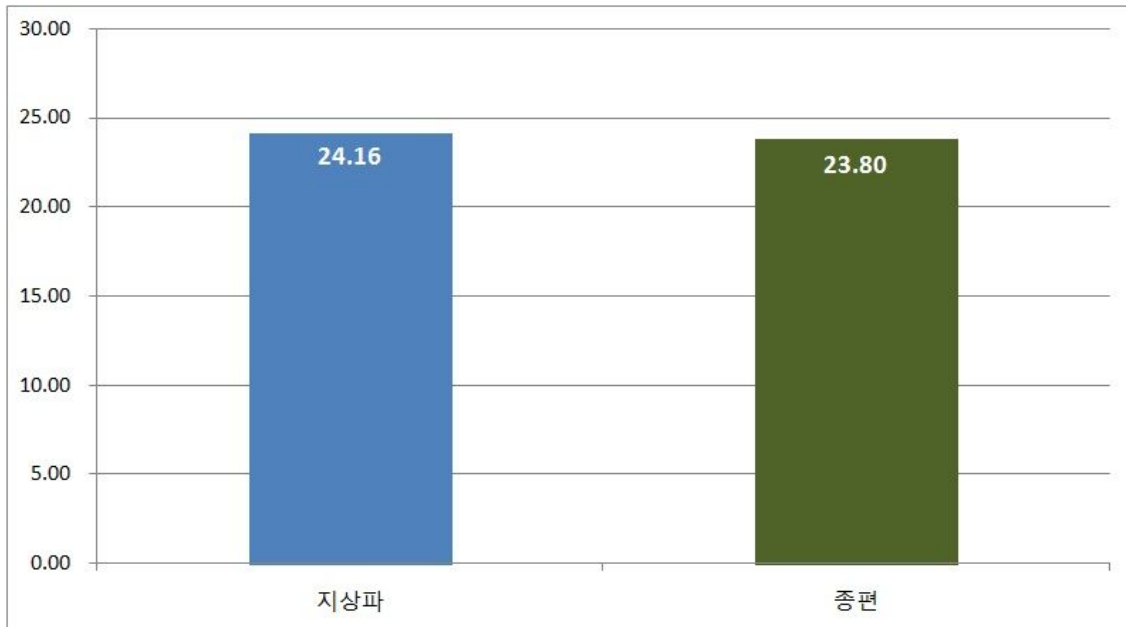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특정 직업군에 속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드라마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비표준어나 비속어, 혹은 외국어나 외래어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가족드라마는 저품격 표현이 골고루 사용되나 특정 부분이 부각되어 고빈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다. 어머니가 딸을 혼내거나 서로 구박하며 가족 간에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들이 사용된다. 다만, 특정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저품격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 평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업인들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 외국어나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양의 정도에 따라 비속어, 비표준어, 인격 모독, 폭력적 표현 등의 저품격 표현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교양이 낮은 사람은 외국어 표현, 비속어 사용, 인격 모독, 폭력적 표현 등 다양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3.4.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와 방송사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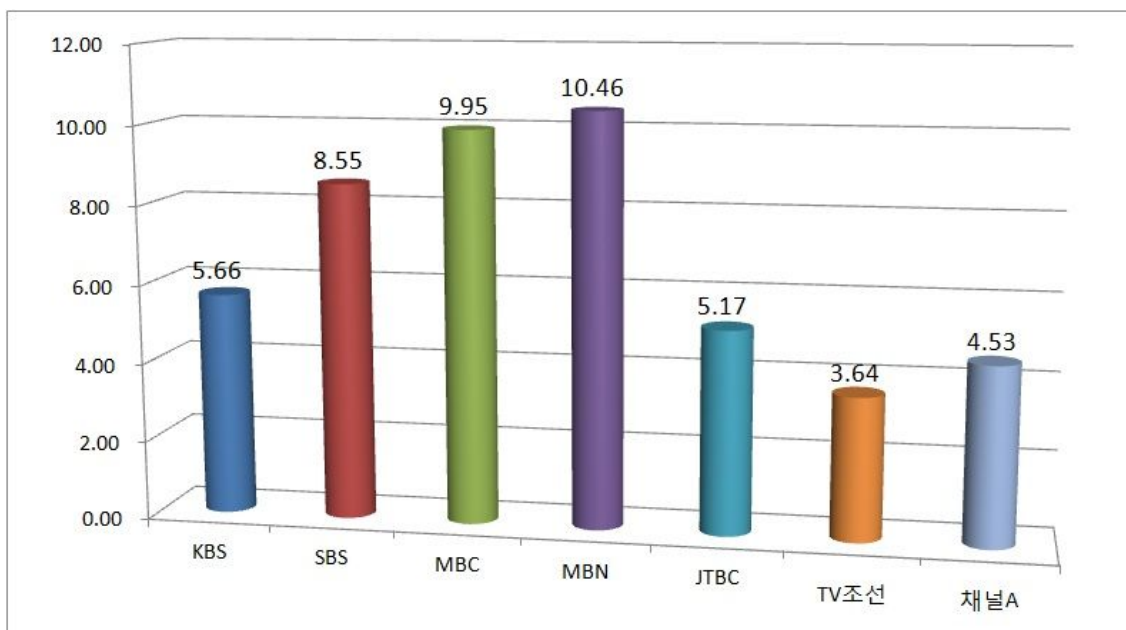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지상파와 종편, 각 방송사에 따라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지상파와 종편으로 나누어 10분당 평균 사용 비율을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그림 6] 지상파와 종편의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10분당)



지상파는 10분 당 24.16회, 종편은 23.80회 사용되어 지상파가 종편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 7]에서는 이를 각 방송사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방송사별 저품격 언어 평균 사용 빈도는 KBS가 가장 많고, JTBC가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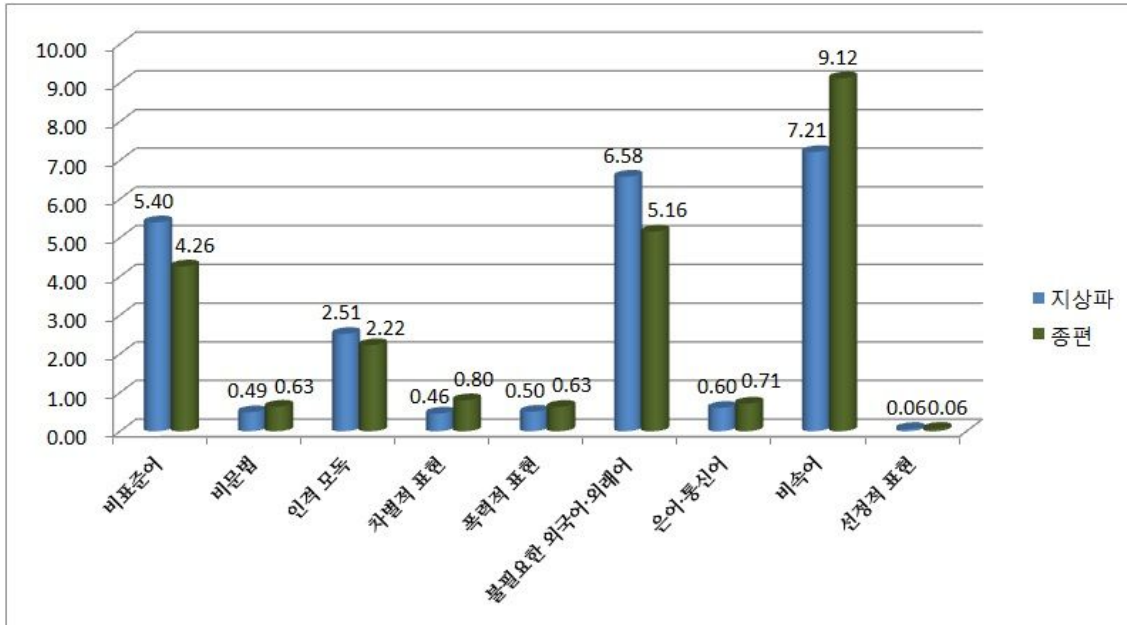
[그림 7] 방송사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비교





[그림 7]을 통해 저품격 언어는 전반적으로 지상파가 종편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8]은 지상파와 종편으로 나누어 항목별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8] 지상파와 종편의 항목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



지상파에서는 저품격 언어에서 고빈도로 나타났던 비표준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비속어 등의 표현이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나 종편에서는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사용이나 비속어 사용 빈도가 다소 높지만 비표준어나 인격 모독 표현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외국어·외래어, 비속어 사용은 현실적 언어를 반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지만, 비표준어나 인격 모독 표현은 공공언어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드라마로서 충분히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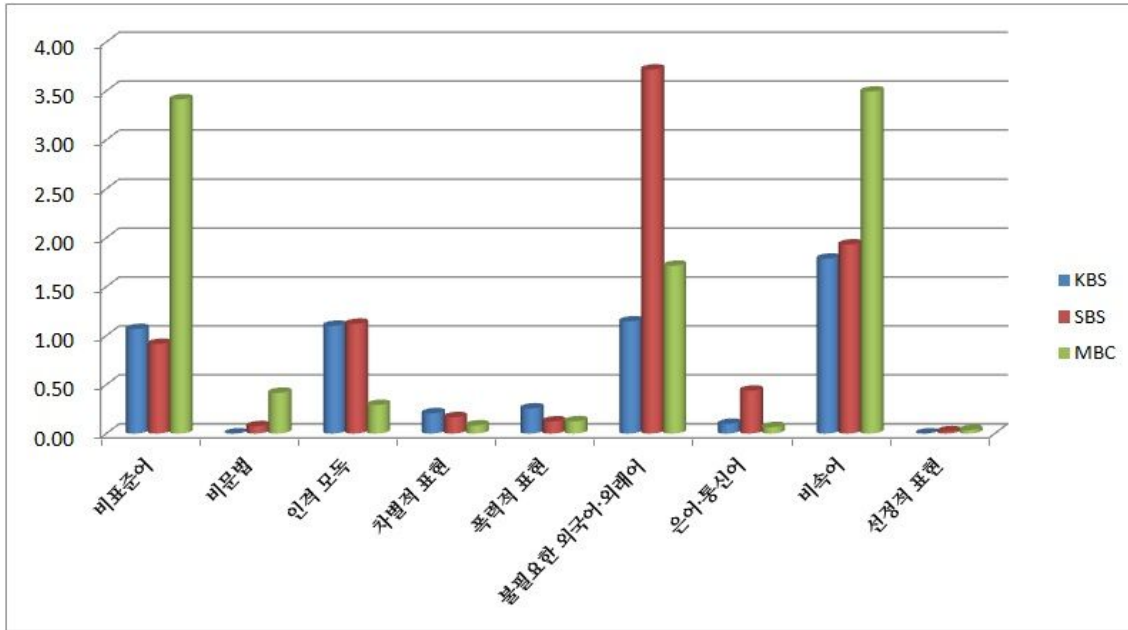
이는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지상파의 특성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표준어나 인격 모독 표현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나 비속어도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지상파와 종편의 각 방송사별로 저품격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그림 9]는 지상파의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를 각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 중 저품격 언어 사용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MBC는 특히 비표준어와 비속어 사용이 많았다. 이에 비해 SBS는 외국어 및 외래어 사용이 KBS보다 다소 높았지만 비표준어 사용 빈도가 낮았고, KBS는 모든 항목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면모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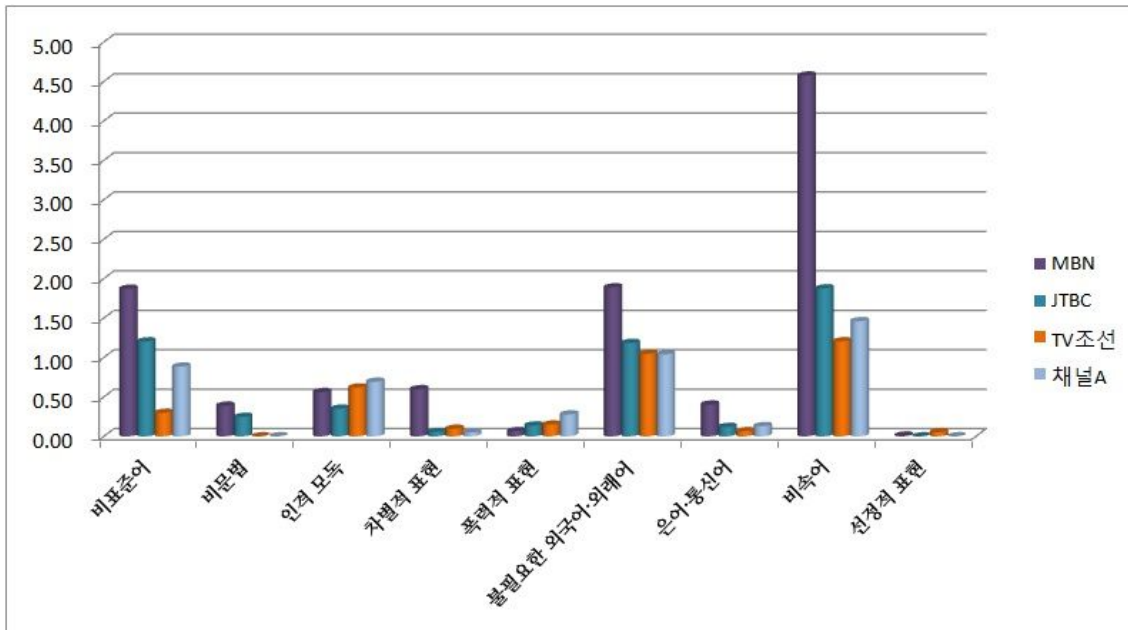
아래 [그림 10]은 종편의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를 방송사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그림 9] 지상파의 항목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



도표이다.

[그림 10] 종편의 항목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



MBN은 종편 채널 중 저품격 언어 사용이 가장 많은 방송사로 지적되었다. 특히 비속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비표준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비해 다른 3개 종편 방송사는 크게 두드러지는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4개 방송사 모두에서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비속어 등이 여타의 항목들보다 높은 빈도로 사

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드라마 프로그램과 각 방송사별로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저품격 언어는 종편보다 지상파 드라마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각 영역에서 MBC와 MBN이 가장 높은 빈도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두 방송사는 비표준어와 비속어의 사용에서 여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TV조선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이 <지운수대통> 하나로 이를 분석하여 방송사 전체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각 방송사의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는 방영 프로그램들의 평균값을 분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상파와 종편의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지상파가 종편보다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가 높고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방송사에 관한 부분은 방송사 전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드라마가 추구하는 장르적, 내용적, 인물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 4. 방송 언어의 지향점

방송 언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송출되는 언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지닌다<sup>6)</sup>. 공공 언어는 국민들의 정서와 언어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주말 드라마는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시간대라는 점에서 저품격 언어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송 언어의 품격성을 다룰 때 방송 언어 전체를 협의의 개념<sup>7)</sup>으로 정의하고, 지나치게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여 드라마 언어의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황용주(2011)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 언어는 공공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기사, 보도, 논설 등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여야 하므로 사용 언어에 강한 규범성을 요하지만, 드라마는 언중들의 삶과 현실을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효용적 측면이 강하므로 공공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드라마 언어의 품격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드라마라는 장르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1) 비규범 표현

비규범 표현은 현재 틀린 말로 분류되는 ‘비표준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오류를 보이는 ‘비문법적 표현’이 해당된다. 비규범 표현은 규범적인 오류를 보이는 항목이므로 방송에서 사용이 규제되어야 한다. 비규범 표현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예들은 아래와 같다.

(1) 고비를 잘 넘겨주길 바래야죠.

<SBS 다섯 손가락(4회), 의사>

(2) 그쪽은 회장님 따님시고 저는 평사원이라 뭐가 좀 틀리긴 하지만.

<TV조선 지운수대통(19회), 지운수(임창정)>

(1)과 (2)는 모두 실제 언어생활에서 대부분의 언중들이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 비표준어의 사용의 예이다. 이러한 비표준어들은 명백히 다른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방송에서 사용을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6) 조태린(2010:383)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공공언어로 정의하였다.

7) 전병용(2002)에서는 방송언어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는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와 주고받는 의사소통 수단 전체를 방송언어의 광의의 개념으로, 방송을 통하여 방송인이 쓰는 언어를 협의의 방송언어로 구분하였다.

(3) 무슨 근심이라도 계십니까?

<JTBC 인수대비(9회), 도원군(백성현)>

(3)은 비문법적 표현으로, 존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존대한 경어법 사용의 오류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는 존대 대상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오류인데, 방송에서부터 올바른 문법 표현을 사용하여 언중들의 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축약어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4) 잘가, 우리 퍼사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2회), 한만희(김영란)>

(5) 요즘 경단녀라 그런 게 있다면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65회), 차윤희(김남주)>

(6) 멘붕 상태였잖아.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2회), 최원이(오이나)>

(4)-(6)은 모두 과도한 축약어를 사용한 예이다. ‘퍼사(퍼펙트 사위),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백 퍼(백 퍼센트), 템발(아이템 운발), 멘붕(멘탈 붕괴), 깔놀(깔짝 놀라다)’ 등과 같은 단어들은 구 구조의 표현을 단어처럼 과도하게 축약하여 사용했을 뿐 아니라 외국어를 포함한 비문법적 표현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비규범 표현들의 사용은 구어적 표현이 사용되는 드라마의 자체적 특성에 의해서도 그러하지만 주로 사용자가 올바른 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작가나 발화자에 따라 오남용 사례가 수의적으로 관찰된다. 이 경우 옳은 표현을 숙지하도록 교육함은 물론 공공 언어의 오용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내용이 담기는 드라마에는 이러한 규범적인 측면과 함께 실제 언어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표 11]에 제시된 단어들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11] 주로 비표준 어형으로 사용되는 단어

비표준어	표준어
기집애	계집애
꼬시다	꼬이다
삐지다	삐치다
짜르다	자르다

야멸차다	야멸치다
개기다	개개다
띠껍다	티껍다

위 예들은 본고에서 조사한 드라마에서 표준어 사용은 관찰되지 않고, 비표준 어형으로만 사용되었다<sup>8)</sup>. 특히 ‘기집애, 꼬시다, 빠지다, 짜르다’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매우 높은 사용 빈도가 관찰된다<sup>9)</sup>. 이는 언중들의 인식에서 비표준 어형이 기저형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어 규정 제1항에서는 표준어 사정 원칙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19항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 11]의 예와 같이 비표준 어형이 표준 어형 못지않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중이 사용하는 언어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비표준 어형을 드라마 정도의 방송 언어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방언형으로 규정되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어형들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10) 내가 있는데 왜 자작을 해, 모냥 빠지게.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2회), 고승지(동해)>

(11) 에미가 큰일을 했군.

<SBS 다섯 손가락(2회), 민반월(나문희)>

(10)과 (11)은 모두 서울 방언 화자가 발화한 내용인데, 서울 화자가 (10)에서 ‘모양’의 충청도 방언형인 ‘모냥’과 (11)에서 ‘어미’의 경남 방언형인 ‘에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두 부적격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송 규정에서는 표준어형인 ‘모양’과 ‘어미’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모양’은 ‘빠지게’와 결합할 경우 항상 ‘모냥 빠지게’와 같이 관용적 사용을 보인다. 오히려 표준어 준수를 위해 ‘모양 빠지게’로 표현한다면 부자연스러운 비현실 표현이 된다. 또한 ‘에미’의 경우에도 ‘어미’를 사용할 때와 어감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사투리를 제재하는 것은 언어 사용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규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시청자들의 호응을 고려한다면 방언형이라 하여 지나치게 규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2) 저속한 표현

8) ‘계집애’의 경우에는 소수 출현하였다.

9) 고빈도 어휘 항목은 음영으로 처리하였다.

저속한 표현의 경우에도 부적격 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12) 너, 니 꼴을 봐봐. 퇴물이 다 된 가수 매니저 노릇이나 하고, 이게 일이나? 늙은 빠순이 짓이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8회), 남남구(김형범)>

(13) 우리 큰 누나빨이야. 나는 여자가 서른다섯 넘으면 귀여운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금지시키던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40회, 영화배우(송준근)>

(14) 하여튼 저런 늙은 여자가 문제야, 아유 재수없어.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4회), 지나가는 운전자>

(12)-(14)에서는 심각하게 인격을 비하하거나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나친 부적격 표현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송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드라마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 (15), (16)과 같이 대중의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은 표현과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 엄마가 나 모자라다고 그랬거든요.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8회), 인옥(심이영)>

(16) 남자가 부엌에 있는 거 아니어라.

<MBC 메이퀸(3회), 천해주(김유정)>

위 (15)의 예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 것이고, (16)은 드라마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가 공유될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15), (16)의 예는 특별히 규제의 대상에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속어적 표현이나 폭력적 표현으로 분류되는 예들도 사용된 상황이나 정도성을 고려하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16) 주맹이를 확 꼬매 버릴까 보다.

<TV조선 지운수대통(19회), 장여사>

(17) 몽둥이찜질을 하고 꺾데기를 뺏겨 버릴 거야! 더는 짓지도 못하도록 헛바닥을 뺏아 버릴 거란 말이야!

<MBC 메이퀸(14회), 장도현(이덕화)>

위 (16), (17)은 불필요한 비속어나 과도한 폭력적인 표현을 아무런 음향적인 효

과나 청각적 처리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공공 언어를 접하는 시청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드라마 언어에서 비속어 사용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시청률 상승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공 언어가 이러한 상업성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는 현상은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예는 비록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지만, 맥락적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18) 이놈의 기집애 진짜, 어디 간거야.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1회), 엄청애(윤여정)>

(19) 그 시키 겸손한 시키네.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51회), 차윤희(김남주)>

(18)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고, (19)은 기특함이나 귀여움 등 대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비속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16)-(17)과 (18)-(19)의 사용을 동일하게 제재한다면, 대중의 정서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드라마와 같이 대중의 공감이 중시되는 장르에서는 앞뒤 맥락을 이해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언어의 오남용을 막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 (20)-(21)과 같이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외국어식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 역시 규제되어야 한다.

(20) 어느 동 어느 층에서나 시원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SBS 신사의 품격(20회), 김도진(장동건)>

(21) 나한테 직접 애길 했어야죠, 다이렉트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1회),  
천재용(이희준)>

위의 예는 세련되어 보이기 위해, 혹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식 표현에 해당한다. (20)의 ‘뷰’는 ‘전망’으로, (21)의 ‘다이렉트’는 ‘직접’, 혹은 ‘직접적으로’로 대체하여 사용하여 사용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22)-(24)와 같이 새로운 개념이 생기거나 정확한 대체 표현이 없는 외국어식 표현은 사용에 무조건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대체 표현을 만드는 데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2) 수지 씨가 저사람 오피스 와이프예요?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33회),  
차윤희(김남주)>

(23) 선배, 오늘 여주인공 픽스미팅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4회). 차윤희 방송국 후배>

(24) 스펙은 슈퍼맨이 짱이지.

<SBS 신사의 품격(17회), 최윤(김민중)>

(22)의 ‘오피스와이프’는 직장에서 동료로서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성을 뜻하고, (23)의 ‘픽스미팅’은 맥락상 주인공의 배역을 확정하기 위한 모임으로 해석된다. (24)의 ‘스펙’은 구직자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의 특별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22)-(24)는 일대일로 대응되는 어형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오늘날 작업 현장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외국어식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대체 표현을 마련할 때까지 가능한 풀어서 의미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송 언어는 공공 언어로서 국민들의 정서와 언어 사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방송 언어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해 정책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방송 언어의 공적, 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범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공언어의 또 다른 효용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가 공감하는 현실 세계를 표현하고 이를 통한 감동과 위안을 선사하는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드라마 언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공공 언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송 언어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방송 언어는 공공성을 지닌 언어로서 품격을 갖추어 대중의 언어생활을 선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 언어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나머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모해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다 다양한 시청자층이 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말 드라마를 중심으로, 저품격 언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방송 언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기반하여 저품격 언어 분석 항목을 ‘비표준어, 비문법, 인격 모독 표현,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은어 및 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의 9가지로 세분하고 규범성의 측면에 따라 이중 앞의 2가지를 ‘부적격 표현’으로, 나머지 7가지를 ‘저속한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드라마는 지상파 3사 및 종합편성채널 4사의 주말 드라마(주말 드라마가 편성되지 않은 경우 주중 드라마 1편)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동년 9월까지의 5개월간이었다. 연구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총 20편의 드라마 240회분에 대하여 저품격 언어의 출현 양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저품격 언어의 출현 횟수는 총 4162회였으며 이 중 비속어가 136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1091회)와 비표준어(91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선정적 표현(14회)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저품격 표현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비속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비표준어 등이 매월 순위의 변동을 보이며 상위를 차지하는데, 7월과 8월에는 종편에 드라마가 편성되지 않고 올림픽으로 인한 결방이 빈번해지며 그 출현 빈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품격 언어의 출현 빈도는 드라마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10분당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수상한 가족>(MBN)이 4.77회 출현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신사의 품격>(SBS, 4.76회), <메이퀸>(MBC, 4.50회), <갈수록 기세등등>(MBN, 4.50회) 등이 10분당 4회 이상 저품격 언어를 사용한 드라마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드라마별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의 차이는 드라마의 특성, 즉 드라마의 장르, 내용적 요소, 인물적 특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품격 언어는 종합편성채널보다 지상파 드라마에서 더 자주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상파가 장기간 시청률 경쟁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기반하였을 때 드라마에서의 저품격 언어 표현은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드라마라는 장르의 현실성을 감안하였을 때 어느 정도는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실제로 표준어보다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어형이나 맥락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저품격 언어 표현, 그리고 한국어 대용어가 등장하기 전 상태에 있는 외국어 등은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는 무대이며 대중의 언어생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주말 드라마는 다양한 시청자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언어 역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드라마 언어가 바른 한국어 사용의 전범(典範)이 되는 데 본 조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김수현(2005). “방송 언어의 외래어 사용 실태,” 「이화어문논집」 23 pp. 157-170. 이화어문학회.
- 김영용(1999). “방송과 언어: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문제와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pp. 41-62. 한국방송학회.
- 김한샘(2010). “방송언어의 공공성 진단 기준,” 「반교어문연구」 30 pp. 37-59. 반교어문학회.
- 김현주(2006). “방송언어의 공공성 훼손 사례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590-601. 한국방송학회.
- 서은아(2011). “방송 언어의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 「겨레어문학」 47 pp. 91-116. 겨레어문학회.
- 심미선·박은희·김경희(2011). “방송심의 위반사례로 살펴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폭력성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5-5 pp. 159-204. 한국방송학회.
- 오미영(2005). “방송언어의 공손성 사례 분석 연구: 연예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85-107.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오미영(2006). “방송 언어의 탈 공손(脫恭遜) 경향에 대한 분석: SBS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4-3 pp. 122-143.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오미영(2007). “방송 언어의 불손 전략: 공손 전략 논의를 바탕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7 pp. 109-150.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오새내(2011). “사회언어학적 맥락으로 본 방송언어,” 「한국어학」 51 pp. 31-55. 한국어학회.
- 윤재홍(2005). “한국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뉴스언어 선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4 pp. 104-128.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이동석(2006a). “뉴스 자막 언어의 오류 실태 연구,” 「語文論集」 54 pp. 5-41. 민족어문학회.
- 이동석(2006b). “신문 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 「한국어학」 33 pp. 61-86. 한국어학회.
- 이주행(1997). “放送 廣告 言語에 관한 研究,” 「국어교육」 94 pp. 235-27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주행(2005). “방송 언어의 평가 지수와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8 pp. 205-280. 한국화법학회.
- 임태섭(1999). “보도·교양 언어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 보고서」 pp. 1-40. 한국방송학회.
- 장소원(2000). “방송인의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51 pp. 255-283. 한국방송학회.
- 정수희(2007). “방송언어의 규범과 언어 변화: 발음과 어휘(외래어)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25 pp. 41-61. 이화어문학회.
- 편석환(2005). “영상광고 언어 연구: 방송광고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11 pp. 483-494.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 허춘(2000).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 「인문학연구」 7 pp. 127-16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허춘(2001).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연구」 8 pp. 41-81.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황용주(2011).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 공공언어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國語文學」 50 pp. 23-45. 국어문학회.

## 부록 1: 방송 언어 관련 법률 및 규정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

### 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5조(성표현)

-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 장면

제51조(방송언어)

-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 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 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SBS)

#### 2. 방송의 언어 및 자막

SBS 예능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SBS 자체 방송 언어 사용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출연자 간 지나친 인신 공격적 표현 및 타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나. 방송 자막은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막말, 비속어, 은어, 인터넷 조어, 혐오어 등을 자막으로 표기해 강조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방송 강령(KBS)**

제3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제4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제11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부록 2: 조사 대상 드라마별 줄거리 및 주요 등장인물

### [1] KBS

#### (1) 넝쿨째 굴러온 당신<12세 관람가>

: ‘능력 있는 고아’를 이상형으로 꼽아온 커리어우먼 차윤희가 완벽한 조건의 외과 의사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지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대 등장으로 생기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 ① 차윤희(김남주 분)\_드라마 제작사PD

: 씩씩, 불의를 보면 안 참는다. 절대 시집살이하자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다. ‘능력 있는 고아’가 이상형. 귀남을 만나 그 꿈을 이루게 된 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대를 만나게 된다.

##### ② 테리 강/방귀남(유준상 분)\_종합병원 외과 의사

: 낙천적이고 다정다감하다.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원래 이름이 ‘방귀남’. 삼십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고부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

##### ③ 엄청애(윤여정 분)\_차윤희 시어머니, 방귀남 친모

: 장수빌라 안주인. 30년전 아들 잃어버린 후 (주로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선) 소심해짐. 청애에게 세월은 귀남을 잃어버리기 전과 그 후로 갈린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귀남을 찾고 난 후에도 만만한 세월은 아닌 것 같다. 윤희 때문에...

##### ④ 방장수(장용 분)\_차윤희 시아버지, 방귀남 친부

: 장수단팥빵’집 주인. 과묵, 성실. 하늘이 내린 효자. 하도 과묵해서 모르는 사람은 장수가 딸 못하는 사람인줄 안다.

##### ⑤ 전막례(강부자 분)\_차윤희 시할머니, 방귀남 친할머니

: 꼬장꼬장 함. 본인의 건강은 꼭 챙긴다. 미신숭배자.

##### ⑥ 장양실(나영희 분)\_방정훈 아내, 전막례 둘째 며느리

: 막례에겐 더 없이 착한 둘째 며느리.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

##### ⑦ 방정배(김상호 분)\_방귀남 작은아버지

: 공인중개소 비정규직 직원. 눈치가 빠르다. 엄청난 뺑쟁이. 천재소년의 잘못 자란 예. 현학적인 표현과 어려운 말로 배운 사람임을 어필하려 한다.

##### ⑧ 고옥(심이영 분)\_방귀남 작은어머니

: 전업주부. 눈치가 없고 둔하다. 띠동갑 반백수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산다.

##### ⑨ 방일숙(양정아 분)\_엄청애 첫째 딸

: 전업주부. 멍함. 뭐 하나에 빠지면 다른 건 잘 안 보이는 스타일. 바람난 남편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바람’을 핀 거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자, 설득 당한다. 학창시절 ‘윤빈’ 팬클럽 회원.

##### ⑩ 방이숙(조윤희 분)\_엄청애 둘째 딸

: 가구 공방 직원. 고집 세고 요령도 없고 막힌 스타일.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는 바



람에 귀남이를 잃어버렸다. 그녀의 생일은 가족에게 가장 슬픈 날이다.

⑪ 방말숙(오연서 분)\_엄청애 셋째 딸

: 성형외과 코디네이터. 사악한 여우.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다. 여자로 사는 세상이 즐겁다. 애교를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는 빈대녀.

⑫ 한만희(김영란 분)\_차윤희 친정엄마

: 이름처럼 한이 많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마치나 했더니 며느리살이가 시작되었다.

⑬ 차세중(김용희 분)\_차윤희 친정오빠

: 현재 장수풍뎡이 사육 중. 타고난 팔랑귀. 소심하다. 말아먹은 사업만큼이나 아직도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과 투자 목록이 다양하다. 한방에 대한 욕심이 크다.

⑭ 민지영(진경 분)\_차세중 아내

: 중학교 국어교사.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다가 한번 삐끗했는데 그게 결혼이다. 교육자 집안 출신에 자신의 직업명까지 더해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들 가르치듯이 말한다.

⑮ 차세광(강민혁 분)\_차윤희 막내동생

: 타고난 바람둥이. 절대 데이트를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경멸하는 인간부류는 남자를 호구로 알고 뜯어먹길 즐기는 빈대녀들.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누나 윤희다.

⑯ 천재용(이희준 분)\_차윤희 과외 제자

: 중소기업 회장 아들. 과외선생 윤희에게 ‘이 문제 풀면 결혼해 줄거예요?’했던 불량고딩. 윤희네 회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의 최대 협찬사 책임자로 돌아오다.

⑰ 윤빈(김원준 분)\_장수빌라 옥탑방 거주남

: 한때 잘나가던 반짝 스타. 윈빈? 현빈? 웃기고 있네. 내가 윈조 빈이 오빠였다. 학창시절 ‘윤빈’ 팬클럽 회원이었던 일숙과 운명적으로 만난다.

⑱ 남남구(김형범 분)\_방일숙 남편

: 갈비집 총괄 매니저. 영화제작이 꿈이었는데 생계를 위해 갈비집에 나가게 되고, 역시 생계(?)를 위해 갈비집 여사장과 바람까지 피우게 된다.

⑲ 엄보애(유지인 분)\_엄청애 첫째 여동생

: 의류매장 사장. 활발하고 웃는 얼굴로 입바른 소리 잘한다. 젊은 시절 미모로 천하를 호령했다. 연애의 여왕.

⑳ 엄순애(양희경 분)\_엄청애 둘째 여동생

: 보애 의류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중.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우울증 앓는 중. 평생 다이어트 중. 결혼 안했다. 아니 못했다.

<출처: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홈페이지>

(2) 내 딸 서영이<12세 관람가>

: 아버지와 딸의 정한 가족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① 이서영(이보영 분)\_이삼재의 딸, 우재의 아내.

: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수재. 어려서부터 엄마 고생을 보면서 일찍 철들어 감정을 참고 누르는데 이골이 났다. 상우와 함께 의사를 꿈꾸며 그늘 없이 밝게 살다가 아버지 실직을 시작으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곤두박질치는 가세를 겪으면서, 끔찍한 가난을 경험하고 더 끔찍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늘 자신을 초라하고 비참하게만 만드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다. 다른 애들 아빠처럼 보통은 되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비싼 등록금과 6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의대를 포기하고, 상우를 먼저 대학에 보내고 동생 뒷바라지와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재수를 하면서 돈을 버는 동안 어느새 예전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마저 잊어버리게 됐다. 아버지가 싫어졌다. 대신, 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해졌다. 아버지가 엄마가 마련해 준 그녀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까지 도박판에서 탕진하는 동안 심장병으로 쓰러진 엄마의 병원 행이 늦어져 수술도중 사망하게 되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한다. 왜 내 아버지는 저런 사람일까? 왜 나는 아버지 딸로 태어났을까?

② 강우재(이상운 분)\_서영의 남편, 위너스 사장.

: 탁월한 외적 유전자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감성에 아버지 덕으로 넘치는 부와 타고난 배포가 합쳐져 거칠 것 없는 삶을 살아왔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의 여유와 건들건들한 장난기와 바람기도 있지만 정도를 넘지는 않으며 맘먹고 한다고 하면, 죽어도 하고야 마는 고집 파.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원하는 대로 살아서일까? 그에게 없었던 유일한 것, ‘간절함’ 을 뒤에 서영에게서 발견한다. 가난한 여자의 버티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서영의 시니컬한 꽃꽃함에 굴복,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서영이 자신을 밀쳐내는 이유가 자존심에 상처 받기 싫어서, ‘사전예방’ 하는 거라는 걸 알고는 선우의 등장과 함께 서영에게 청혼한다. 자신에게 그런 순수성이 있는 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게 생길 줄... 어느새 그렇게 서영을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 결혼 후 완벽하게 서영과 가정에 충실하며 서영 곁을 지킨다.

③ 이삼재(천호진 분)\_서영과 상우의 아버지

: 훗날 인물에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 팔팔하고 터프한 기질까지 천상 사내 성격이지만 사람 좋아하고 넘치게 정이 많아 사건사고에 잘 휘말리는 단점도 함께 갖고 있다. 부산 작은 건설자재 하청업체 과장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IMF 때 회사 부도를 계기로 소박했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이름 삼재처럼 시도하는 일마다 끝없는 재앙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대로 된 부모만 만났으면 대한민국 첫째로 살 딸아이가 자기처럼 못난 아버지 만나 고생하는 게 늘 미안해서 뒤늦게 죄인 심정으로 서영을 대한다.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란 걸 저 아이도 언젠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 시킬 순 없었다.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외면하는 서영을 이해하고 사랑한다, 죽는 날까지.

④ 이상우(박해진 분)\_삼재의 아들, 서영과 이란성 쌍둥이 남동생

: 의대 졸업 후, 종합병원 내과 레지던트 2년 차. 누나 서영과 백팔십도 다른 유쾌 상쾌 통쾌한 성격이다. 같은 환경이지만 서영과 달리 자기 환경을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밝은 장난기로 집안에 활력소를 준다. 전교 상위권으로 공부도 잘했지만 워낙 월등한 서영에 눌러 칭찬 한번 못 받았다. 그래도 누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엄마 아버질 보면 누나가 고맙기만 한 착한 남자. 새침하고 똑 부러진 누나 서영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한다. ‘서영아, 누나’를 왔다 갔다 하며 친구 같은 오누이로 지낸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의대를 졸업만 하면 엄마 어께가 조금은 가벼워지리라 하던 그 해 겨울, 엄마를 잃는다. 아버지는 누나 말처럼 무능하지만 가엾은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⑤ 강기범(최정우 분)\_국내 굴지의 위너스 사장

: 스스로 가정을 도외시하는 아버지의 전형.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 강하며 터프하고 남자답게 호탕하다. 일에서의 성공이 인생 성공인 남자의 전형으로, 남자가 큰일을 하는 대신 집안일은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는 성공에 따른 돈, 명예를 아내에게 주는 걸로 남편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내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고, 성공한 사내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은 혼자서 다 누리며 산다. 중매로 조건 맞춰 결혼한 아내는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여자가 아니었다. 그가 위로 받고 열정을 쏟을 여자는 문밖의 여자였지 문 안의 마누라는 아니었으므로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사업적 계산이 본능적으로 빨라 오래 끌지 않고 서영을 받아들인다. 집안 격 차이를 보면 말이 안 되는 조건이지만, 아이 하나 보자면 모자랄 것 없는 서영이었고, 무엇보다 결혼 허락으로 우재를 회사에 들어앉힐 수 있기 때문에, 알아놓는 아내를 찍어 누르고 결혼을 허락한다.

⑥ 차지선(김혜옥 분)\_기범의 아내

: 국회의원 3선을 거쳐 장관까지 지낸 아버지 덕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중매로 강기범과 결혼했다. 성악과 출신으로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취미. 주로 심란할 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녀가 노래 소리는 온 식구에게 빨간 경고 사이렌이다. 타고난 이기적인 성격에 무남독녀로 자란 환경, 거기에 풍부한 감성이 넘쳐서 자기감정을 주체할 줄 모른다. 부유한 강기범과 조건 딱 딱 맞춰 결혼해놓고도, 결혼하면 사랑까지도 저절로 따라 올 줄 믿었는데 이게 웬걸? 돈은 넘치게 주면서 사랑은 한 톨어치도 안주는 강기범 때문에 늘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 살았다. 어디 내놔도 킹카인 아들 우재가 고아 출신 서영과 결혼한다고 하자 기함을 하지만 남편을 이겨내지 못하고 맘에 안 드는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우재에게 끄찍이 사랑받는 서영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느껴서, 며느리를 귀족적으로 우아하게 갈군다.

⑦ 강미경(박정아 분)\_강기범의 딸. 우재의 여동생

: 현재 종합병원 외과 레지던트 2년 차. 재벌 딸답지 않게 털털하고 소박한 좋은

성격을 기본으로, 왈가닥에 덤벙이. 거기에 팔팔까지 더해져 거의 선머슴이다. 속으로 열정을 담고 있는 오빠인 우재와 달리 내놓고 열정적이며 뜨겁다. 사랑지상주의자다. 애정 없이 결혼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사랑 없는 결혼은 무덤이야!” 늘 부르짖는다. 나 강미경, 이 한 여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게 그녀의 초목표. 그래서 대학 때부터 자신의 집안을 감쪽같이 숨겨왔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응급환자 응급처치 문제로 다투다 알게 된 성질 팔팔한 상우를 사랑하게 된다.

⑧ 강성재(이정신 분)\_강기범의 아들. 우재의 막내 동생

: 전문대 경영학과 대학생. 어려서부터 집안 격에 안 어울리는 완전 꼴통이다. 공부하는 말아 놓고 전교 꼴등, 멧 내기는 전교 일등에 힘든 거, 배고픈 거, 몸 아픈 거 못 참는 건 전교 일등이다. 부유한 집안 믿고 까부는 안하무인으로 아무리 전국에서 알아주는 과외선생을 구해도 한 달 이상을 버틴 선생이 없는 문제야. 모두들 도저히 불가능한 그를 대학에 보낸 서영의 과외 능력에 감탄했지만, 그를 공부하게 만든 건 서영의 탁월한 과외 능력이 아니라 서영에의 짝사랑이었다. 자신에게 아무 재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집안 돈으로 보장되는 미래만을 믿고 살던 그의 작은 재능을 인정해 준 서영이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과 인정에 불끈 힘이 솟았으며, 겨우 여섯 살 차이인 그녀와의 미래도 꿈꿔봤는데 젠장, 그녀가 형수가 된단다.

⑨ 최민석(홍요섭 분)\_호정의 아버지. 위너스 이사

: 가정에서 소외된 아버지의 전형. 강기범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위너스 이사. 평범하고 형제 많은 집 막내로 태어나 적당한 대학을 거쳐 고등학교 친구인 강기범 덕에 그의 회사에 입사, 이사까지 승진했으나 남들 시선에서 보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눈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괴감에 힘들고, 정작 집에서는 모든 권리 행사를 아내에게 빼앗긴 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하숙생 같은 존재다. 친구 회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도 부장 딱지도 못 떼고 있을 정도의 능력임을 자인하는 바라, 친구면서도 사장인 기범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 원래 꿈은 배우였다. 장난기 많고 웃음 넘치는 끼 많은 그였는데 지금의 그는 자기 자신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겠다. 대체 왜 사는지.

⑩ 김강순(송옥숙 분)\_호정의 어머니

: 기센 여장부에 재테크의 달인이다. 원래는 순하고 여린 성격으로 강기범의 아내 차지선 소개로 최민석과 결혼했다. 여상만 졸업하고 명문대 출신의 안정적인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는 지선 덕으로 잡은 그 행운의 결혼을 감사했었다. 일곱 살 난 전처 자식을 키워야 하는 재혼인 게 맘에 걸렸지만 자기 조건에 인물 훤한 민석에게 훌쩍 빠져 씩은 콩깍지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마치 ‘방 두 칸!’이 인생 목표인 것처럼 인형 눈깔 붙이기부터 마늘까기까지 절박한 돈 마련에 끄꿍 대다가 ‘계’ 라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한 이후 새로운 재테크의 세계를 접하게 됐다. 그렇게 악착을 떨면서 사는 동안 여린 코스모스 같았던 그녀도 점점 역세졌

다. 여자 팔자 뒤옹박 팔자라드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었다.

⑪ 최호정(최윤영 분)\_최민석과 김강순의 딸

: 음대 하프 전공 대학생. 어려서부터 엄마에 의해, 엄마의 뜻에 따라 키워진 대표 마마걸. 온실 속에 꽃처럼 자라 잔 생채기 하나 없이 곱다. 거기에 하느님이 오장육부 중에서 실수로 뭔가 하나 빠뜨린 사람처럼 모질고 독한 구석이라곤 없이 순하고 여리고 정 많은 성격으로 태어났다. 다른 사람 말을 듣는 대로 고대로 믿어서 뒤통수 맞는 게 특기. 음악에 재능이 없으면서도 엄마 뜻에 따라 하프를 전공, 엄마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생각하다가 상우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것도 짝사랑에. 엄마가 알면 하늘 뚫어지게 필쩍 뿔, 아주 가난한 걸로 모자라 훑아버지의 외아들인 상우를, 더구나 그에게는 여자가 있다는데! 자기가 동생처럼 귀엽지만 여자 같지는 않다는데 미치게 그 남자가 좋기만 하다.

⑫ 윤소미(조은숙 분)\_강기범의 비서실장.

: 늘 단아하고 깔끔한 차림새에 우아하고 따뜻한 미소가 트레이드마크인 강기범의 비서실장. 마치 강기범을 보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때론 극진히 때론 따뜻하게, 강사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그를 위해 모든 걸 미리 준비해서 부하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출처: KBS '내 딸 서영이' 홈페이지>

## [2] SBS

### (1) 바보엄마<15세 관람가>

: 이 드라마는 엄마와 딸의 지독한 애증을 담은 녀 달 간의 동거기다. 아이큐72에 지적장애 3급, 거기다 미혼모였기에 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엄마와, 평범하지 않은 출생의 비극과 운명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딸. ... 이 드라마는 심장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딸과, 뇌종양을 가진 아이큐 72의 엄마가 죽기 전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휴먼 드라마이며, 어미의 모자람을 부끄러워하던 세상의 모든 딸들이, 주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엄마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 고백이다.

① 김영주(김현주 분)\_패션잡지 최연소 여성 편집장

: 아이큐 200의 천재 딸에, 로스쿨 교수 남편까지, 남들 눈에는 완벽하기만 한 스펙의 종결자. 뉴요커같이 시크하고 도시적인 이미지의 도도한 그녀지만 실은 경상도 깡촌에서 바보언니의 손에 자랐고, 가족이란 개미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여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 다 가진 듯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난 남편과, 반항기 충만한 딸아이도 모자라 그녀 옆에 바보언니가 머무르면서부터 고향을 떠난 후 아등바등 지켜왔던 그녀의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② 김선영(하희라 분)\_무공해 시골여자

: IQ 56에 지적장애 3급의 그녀. 늙은 어머니인 곱단은 치매가 심해지고, 동생인 대영은 과수원을 빼앗긴 채 교도소로 끌려가 홀로 남게 된 선영을 영주가 서울로 데려 오면서 영주와 영주의 딸 닷별과 함께 살게 된다. 선영이 영주와 닷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어릴 적 자신을 고치기 위해 약초를 따러 다니던 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배운 자연식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는 것.

③ 박닷별(안서현 분)\_영주와 정도의 딸

: 아이큐 200의 천재소녀. 일밖에 모르는 엄마가 가족의 균열의 원인이라 여기며 엄마가 가족의 균열의 원인이라 여기며 엄마에 대한 맹렬한 분노로 사로잡힌 사춘기 소녀. 닷별이 가진 뇌의 영역은 일찌감치 웬만한 고등교육의 단계를 넘어서 버렸고, 영주에게서 벗어나 정도를 따라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정도의 눈물겨운 회유책과 영주의 설득으로 한국에 주저앉았다.

④ 최고만(신현준 분)\_사채업계의 큰손

: 선박왕의 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란 숫자 천재.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MIT초청 교환학생이 되어 미국으로 가던 중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남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가 인생의 좌우명인 그는 사람이 아닌 오직 돈만 믿는다. 세상과 단절하고 소통하기를 원치 않던 그의 앞에 순수한 선영이 나타나고부터 그녀에게 점차 동화되어 간다.

⑤ 박정도(김태우 분)\_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남자

: 똑똑한 머리와 말끔한 외모를 이용하여 페미니스트인 척 여자들을 유혹하는 타고난 바람둥이. ‘난 이 시대 마지막 살아있는 양심이자, 법 정신이니까’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영주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나 아님을 알고 배신한다. 그의 목표는 로스쿨 전임 교수. 대학 재단 이사장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영주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온갖 패악을 부린다.

⑥ 이제하(김정훈 분)\_신경외과 닥터

: 대학 신입생 때 영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 오랜 시간 짝사랑해 왔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이었던 엄마의 바람대로 의대에 지원, 한 번의 재수 끝에 합격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까지 한 방에 거머쥔 그의 의대 3년 차 선배인 수인이 나타나고, 결혼까지 약속하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다. 잡지 칼럼 때문에 영주와 재회하게 되고 다시 가슴 설레기 시작한다.

⑦ 오채린\_(유인영 분)\_한국대학의 이사장 딸

: 놀만큼 놀았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이기적이고 셈에 빠르며 모든 것을 돈의 힘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프랑스 유학시절 만났던 화가 지망생과 사라에 빠지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강제로 헤어지게 되고 채린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도를 이용하기로 한다.

⑧ 한수인\_(공현주 분)\_대학병원 심장외과 전문의.

: 이제하의 아내. 승부욕이 강하고 도전적인 성격 탓에 웬만한 남자들은 사내로 보이지도 않던 그녀가 제하의 생명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보고 그에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혼 후, 무기력해진 제하에게 유학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하고 홀로 미국으로 떠났던 수인은 존슨홉킨스에서 제안한 전임교수 자리를 박차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출처: SBS '바보 엄마' 홈페이지>

(2) 신사의 품격<15세 관람가>

: '꽃중년' 네 남자와 설레는 로맨스가 그리운 네 여자의 좌충우돌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① 김도진(장동건 분)\_건축 설계사

: 지나치게 완벽한 얼굴과 과도하게 흠 없는 바디스펙을 가진 이 남자. 장소 불문 시간 불문 발 디디는 곳 마다 런웨이를 만들어 버리는 이 남자. 가시는 걸음걸음 꽃을 뿌리고픈 못 여자들의 시선을 적당히 즐길 줄도 아는 이 남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태 독신이다. ...

② 서이수(김하늘 분)\_윤리 교사

: 찰랑이는 긴 머리가 헬멧 속에서 쏟아진다. 얼굴 가득 번지는 눈부신 미소, 덕분에 사회인 야구단 <블루켓>에는 판정시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가 스트라이크라면 스트라이크고, 볼이라면 볼이고, 까라면 깎는다. 왜? 역세진 않지만 단호하고 까칠하진 않지만 알짭 없는 성격엔 카리스마가 8할이니까. ... 그래서 남자들은 이수와 그 흔하디흔한 정 중에 '우정'만 나눈다. 가장 순수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학생들에게 '윤리'는 '국영수'에 밀려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인 선택과목이 되고 말았지만 그녀는 매 순간 인간의 존엄성과 타인에 대한 예의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엄숙하고 열정적인 수업을 한다. 그게 그녀가 생각하는 '윤리니까'.

③ 임태산(김수로 분)\_건축사

: 알뜰하게 잡힌 순도 100%의 근육. 그 위로 불거진 섹시한 힘줄, 힘줄을 타고 미끄러지는 땀방울. 그렇다. 그에게선 막노동의 향기가 난다. 호텔 레스토랑보다 전국 각지의 '함바집' 백반을 더 좋아하지만 오해하면 안 된다. 섹시한 근육만큼 섹시한 두뇌의 소유자니까. 대기업인 건설 회사 잘 다니다 '사장님' 소리 들으며 일하자는 도진의 심플한 유혹에, 우정과 의리, 대의와 명분, 사나이 가는 길 등등 삼일 밤낮을 고민하다 도원결의의 비장함으로 대기업에 사표를 던졌다. ...

④ 최윤(김민중 분)\_변호사

: 이 남자의 계절은 우기(雨期), 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랬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조용하고 사려 깊은 데다 안구 습도 60퍼센트, 그 깊고 검은 우수에 여심은 파랑주의보를 발령하지만, 그 우수의 출처는 안타깝게도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다. ...

⑤ 이정록(이종혁 분)\_카페 사장

: 낙천적이고 겁 많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천상 한량이다. 그도 ‘캡’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빨간 스포츠카를 끌고 압구정을 누비던 20대, 5:5로 정확하게 가르 오렌지색 앞머리를 휘날리며, “야, 타!” 한마디면 윤아, 현아, 하라, 지나 등등 너나 할 거 없이 콧대의 전원을 잠시 꺼놓고 사뿐히 조수석으로 올라타곤 했었다. ... 격동의 세기말을 잠식했던 압구정 킹카 이정록은 밀레니엄을 지나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해, 인생의 무덤, 결혼이라는 곳에 입관했다. 그 혼한 속도위반도 정약결혼도 아니었다. 더 이상 스무 살 꽃띠들이 자신의 스포츠카에 올라타지 않자 그는 깨달았다.

⑥ 홍세라(윤세아 분)\_프로 골퍼

: 세라는 예뻐다. 세라는 섹시했다. 세라는 시크했다. 1+1=2 보다 정확한 이 공식 때문에 세라는 늘 피곤했다. 어렸을 땐 미스코리아 나가라, 좀 커서는 연예인 해라, 귀에 얹은 딱지로 딱지도 접을 지경이지만, 그녀는 체대에 갔고 스물 한 살 되던 해, 한국 골프계를 제패했다. ... 그녀는 언제나 셀러브리티였으며 그래야 직성이 풀렸다. 눈만 뜨면 남자들에게 불려나가고, 남자들과 만나고 돌아오면, 남자를 만났단 이유로 또 다른 남자와 싸워야하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⑦ 박민숙(김정난 분)\_건물주

: 44세라고? 밥 대신 방부제라도 먹는 걸까? 34라고 해도 믿을 미모다. 그 미모에, 그 재력에, 그 학벌에, 대체 우울한 틈이 어딴냐 싶지만 민숙은 우울하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생기지 않는 아이도, 정록의 바람기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단 하나도 없었다.

⑧ 임메아리(윤진이 분)\_유학생

: 그녀에겐 연애보다 시급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복수였다. 한입 베어 물면 레몬 소다 맛이 날 것 같다. ... 그녀는 똥똥했다. 많이 똥똥했다. 하지만 똥똥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 넘어지면 땅바닥 금 같까 걱정하던 껌씹한 첫사랑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자가 되어 돌아오리라. 이를 갈며 88사이즈로 뉴욕행 비행기를 탔고...

⑨ 콜린(이종현 분)\_고등학생

: 미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글로벌한 콜린은 한국인이다. 파란 눈에 노란 머리의 아버지도 있지만, 그는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를 가진 한국인이다. 자신을 멋지게 길러준 아버지에게 포스트잇으로 가출을 통보하고 집을 나설 때는 아주 잠깐 쿨한 미국인 같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는 한국인이다. ...

⑩ 김동협(김우빈 분)\_고등학생



: 서이수의 제자이자 학교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한 문제아로 친구들과 함께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출처: SBS '신사의 품격' 홈페이지>

### (3) 다섯 손가락<15세 관람가>

: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젊은 청춘들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 ① 유지호(주지훈 분)\_절대음감을 지닌 천재 피아니스트

: 제부도 앞바다를 휘젓고 다니던 고아에서 한 순간에 최대 악기제작회사인 부성그룹의 장남이 되어버린 기막힌 운명의 남자. 가난하던 삶이 화려한 왕자의 삶으로 변해 혼란도 겪지만 특유의 밝은 모습과 넘치는 자신감으로 적응해나간다. 어느 날 덮친 화재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얻었다. 불길 속에서 친아들이 아닌 자신을 구해낸 새엄마. 그 일로 새엄마와 동생은 지호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삶의 전부가 되었다. ...

#### ② 채영랑(채시라 분)\_꿈을 돈과 맞바꾼 피아니스트

: 완벽한 내조의 여왕. 마음을 주지 않는 남편과 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밑에서도 한 번의 불평 없이 현모양처의 길을 걸었다.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왔을 때도 환한 미소로 그 아이를 맞았다. 남편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참을 수 있었다. 이 모든 모욕을 다 보상해 줄 친아들이 있으니까, 피아니스트의 꿈도, 부성그룹의 차기 오너도 모두 다 내 아들이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엉망이 돼 버렸다. 남편이 데려온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던 날, 남편과 격렬하게 싸우게 되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축북놀이로 낸 불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었다. ...

#### ③ 유인하(지창욱 분)\_2인자의 숙명을 타고 난 피아니스트

: 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피아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따라올 자가 없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자신을 끝없는 열등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형 때문에 힘들어 한다. 갑자기 생긴 형도 인정할 수 없는데, 자신이 가진 것을 웃는 얼굴로 하나씩 뺏어가는 형 때문에 점점 빼뺏어진다. 화마 속에서 친아들인 자기를 두고 형을 구한 엄마에 대한 배신감에 엄마를 철저히 멀리하고, 화재로 잃은 새끼손가락에 좌절하고, 천재적인 형의 음악적 능력에 밀려 한국을 떠난다. 14년 만에 찾은 한국, 자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하나씩 실천에 옮긴다. ...

#### ④ 홍다미(진세연 분)\_타고난 감성의 피아니스트

: 명랑, 쾌활 소녀, 긍정소녀의 대명사. 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타고난 오뚜기 정신의 소유자. 가난해도 행복할 줄 알고 슬퍼도 이겨낼 줄 안다. 피아노가

있으니까. 집안 형편에 늘 피아노 공부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서 피아노를 잊은 적이 없다. 피아노 때문에 엮이게 된 두 남자. 자신을 악보 도둑으로 몰아간 남자, 지호. 학력 위조범이 될 뻔한 자신을 구해준 남자 인 하. 그때는 몰랐다. 이 두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흔든 사람들이란 걸.

⑤ 유만세(조민기 분)\_부성그룹 회장

: 재벌가에서 태어나 독선적이고 거만하고 제멋대로다. 영랑을 사랑했지만, 배신당 했다. 하지만 그런 영랑을 부인으로 맞는다. 그게 평생 영랑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다. 피아니스트 영랑의 손에 앞치마를 쥐어주며 현모양처의 삶은 요구했다. 영랑이 그런 삶에 완벽히 익숙해질 때쯤, 그녀의 눈앞에 밖에서 낳아 온 아들을 데려왔다. 한 치의 미안함도 없이. 게다가 친아들을 두고 데려온 아들에게 부성그룹을 주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상상 이상으로 영랑을 자극할지는 몰랐다.

⑥ 민반월(나문희 분)\_부성 그룹 회장 어머니

: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부잣집 마나님에 효자 아들을 둔 재벌가 큰 사모님일 뿐. 도도하고 행동에 거침이 없지만 속정이 깊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랬기에 영랑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아 못되게 군 세월이 벌써 10년째다. 그렇게 멍멍거리며 군림하던 그녀도 세월 앞에 무너지고 만다. 치매라니, 인정하기 싫은 그 병으로 가족들을 소용돌이로 몰아간다. 영랑 때문에 요양원에 갇혀 살지만 그녀가 없이는 명화 피아노도, 부성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

⑦ 송남주(전미선 분)\_홍다미 어머니

: 예쁜 얼굴보다 마음이 더 따뜻하고 예쁜 여자. 봉사활동으로 만난 청각장애인 수표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다. 똑똑하고 모범생인 우진과 명랑하고 씩씩한 다미, 그리고 뱃속에 곧 태어날 아이까지, 그렇게 가난한 삶이지만 메일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하루아침에 유 회장 집 화재사건으로 남편 수표를 잃는다. 게다가 남편이 범인의 누명을 쓰게 되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방으로 노력하다 뱃속의 아이까지 사산하게 된다. 한 순간에 방화 절도범의 가족이란 오명으로 동네에서 쫓겨나지만 그녀는 믿고 있다. 자신의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누명을 풀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다.

⑧ 홍우진(정은우 분)\_홍다미 오빠

: 똑똑한 머리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에 지극한 효성. 고운 심성을 가졌다. 가족이 세상의 전부인 남자. 수표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며 살았는데 아빠가 방화 절도범으로 몰리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다. 동생을 사산하며 쓰러진 엄마, 아빠의 죽음에 충격 받은 동생. 가족이 다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는 속에 품었던 칼을 꺼내 든다. 목표였던 한국 최고의 의사를 포기하고 아빠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한다.

⑨ 김정옥(전노민 분)\_금단 건설 오너

: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가난한 음악도였다. 그녀가 배신

하기 전까지는.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다. 자살하러 간 자리에 조직의 대부의 목숨을 구하게 되면서 모든 게 변했다. 대부의 양아들로 들어가 조직을 맡게 된다. 사업적으로 부성그룹과 엮이게 되고 영랑의 주위를 계속 맴돈다. 복수를 위한 계획에 필요한 우진을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지만 점점 복수에 자신이 없어진다.

⑩ 나계화(차화연 분)\_채영랑 어머니

: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여자. 영랑의 아버지의 재취자리로 들어와 사치를 즐겼지만 사업이 망하자. 영랑을 첫사랑에게서 떼어 내고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버렸다. 그 덕에 아직까지 돈에 취해 살지만 영랑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영랑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 기가 세기도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중대한 키를 들고 있다.

⑪ 최승재(장현성 분)\_부성그룹 변호사

: 머리가 비상하고, 치밀하고 냉혹하고 불도저 같은 성격을 지녔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채영랑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남자. ... 채영랑이 가장 믿는 심복이었다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인물.

⑫ 루이강(정준하 분)\_레스토랑 사장

: 너무 티가 안 나서 문제인 된장남. 머리부터 발끝까지 혁 소리 나는 명품들이지만 시장 표보다 못 한 옷걸이를 가진 비운의 인물. 남가주 출신이라며 썬티 영어를 쏟아내지만 사실 남양주 농민의 아들이다.

⑬ 하운모(전국환 분)\_한국대 음대 교수

: 지독한 완벽주의자에 엄청난 욕쟁이 독설가. 유별난 성격으로 부인까지도 도망가 버렸지만 외동딸 소울에 대한 마음만은 극진하다. 하지만 표현을 못 해 늘 부딪히고 싸우는 게 일이다. 지호의 천부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하지만 영랑의 계획에 휘말리게 된다.

<출처: SBS '다섯 손가락' 홈페이지>

[3] MBC

(1) 신들의 만찬<15세 관람가>

: 한식을 소재로 삼아 운명적으로 엮힌 두 여성 요리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① 고준영(성유리 분)\_요리사

: 어릴 적 우연히 만들었던 음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주방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준영. 하나 뿐인 가족이라 믿었던 양부가 자신을 버렸을 때도, 자신만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던 준영. ... 사랑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살았던 준영. 그녀에게도 불현 듯 사랑이 찾아왔다. 우도에서 재하를 만나면서부터... 그러던 중 준영은 또 다시 양부에게 버림받고, 우연히 이를 알게 된 재하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된다. ... 하지만 그의 곁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준영의 아픈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② 최재하(주상욱 분)\_농림부 사무관

: 최연소로 행시를 패스하고,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수재로 훈훈한 외모, 안정된 집안. 이 정도면 잘난 척 할만도 하련만 인성까지 흠잡을 데 없으니 옆에 있으면 괜히 신경질 나게 하는 위인이다. 자신의 일 외의 모든 일에는 완벽하지 않은 허당 기질은 특유의 여유로움과 유머가 더해져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타고난 친절함으로 가끔 바람둥이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맺어준 인주에게 더없이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다. ... 준영을 만나기 전까지는...

③ 김도윤(이상우 분)\_요리사

: 하나뿐인 형을 저버린 하나뿐인 엄마, 그 사이의 도윤. 죽은 쌍둥이 형의 꿈인 요리사가 되었을 때, 그는 엄마에 대한 애증으로 도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해밀로 다시 태어난다.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지닌 요리사로 성장한 도윤, 이제 그가 엄마의 나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아리랑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천적이자 평생의 라이벌, 도희 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그를 본 백설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한국에 온 목적이 채워지면 나가려 했다. 하지만 고준영 그 여자가 이상하게 내 발길을 무겁게 한다.

④ 하인주(서현진 분)\_요리사

: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한다. 요리 재능, 아름답고 상냥한 것까지 엄마 성도회를 꼭 빼닮은, 천상 그 어미에 그 딸이라고. 그 말이 세상 어떤 말보다 기쁜 그녀지만 또 그 말이 세상 어떤 말보다 슬픈 그녀. 앞으로도 계속 성도회의 딸 하인주로 살아가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더 독해져야 한다. ...

⑤ 성도희(전인화 분)\_아리랑 명장

: 현재 아리랑의 4대 명장인 도희. 전통한식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하고 언제나 품위와 기품이 넘치지만 단 한 사람, 백설희에게만은 예외다. 함께 한식을 전수 받았지만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백설희를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뿐이다. 계속되는 백설희의 자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도희. 항상 흔들림 없는 그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는 굳은 성품이 이제 그녀 최대의 약점이 되어 그녀에게 날아온다. ...

⑥ 백설희(김보연 분)\_사나래 회장

: 도윤의 엄마로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주)사나래의 회장이다.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로,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가족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더 중요시 하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인물이다. ... 어느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그녀지만 존경과 존중의 대상인 선노인에게 만든 꼼짝하지 못한다. 승승장구하며 사나래를 키워가며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받지만, 아들 도윤만은 예외였다. 그래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도희에 대한 열등감을 이겨 내기 위해, 백설은 더욱 더 독해져갔다.

⑦ 선노인(정혜선 분)\_아리랑 3대 명장

: 재하의 할머니로 아리랑 3대 명장을 지냈다. 평소엔 소박한 차림새와 허허 실실 소탈한 말투로 시골 할머니와 다름없지만, 음식 앞에선 전통 음식을 지켜온 장인의 모습 그대로이다. 전통한식의 체계를 잡은 장본인으로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⑧ 임도식(박상면 분)\_아리랑의 주방장.

: 음식을 만드는 멋스러움과 감각적인 손놀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완벽한 음식 맛까지 아리랑의 주방장으로서 카리스마가 넘친다. 평소 명장으로서 도회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출처: MBC '신들의 만찬' 홈페이지>

(2) 닥터 진<15세 관람가>

: 만화가 원작이며 일본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어 크게 인기를 끌었던 소재로 21세기 의학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가 19세기 말로 시간 여행을 떠나 질병을 치료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

① 진혁(송승헌 분)\_한국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

: 대한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 IQ 180의 천재로 최연소 의대 입학에, 최연소 수석 졸업, 국가고시 만점 기록이라는 전무후무한 이력을 가졌으며, 27세에는 최연소 신경외과 과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추가한 의학계의 기린아. ... 그만큼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신만만한데 오직 하나, 그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었으니, 바로 사랑하는 연인 '미나'다. 어린 시절부터 옆집에 살며 때로는 동생 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한 미나가 어느새 연인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그의 눈앞에서 미나의 사고가 일어나고, 절망하던 진혁의 앞에 정체불명의 환자가 나타나는데...

② 이하응(이범수 분)

: 한마디로 조선시대 대표 양아치라 할 수 있다. 비록 왕의 종친이나 안동 김 씨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정치 따위에 관심을 접은 지 오래고, 살기 위해서라면 안동김씨에게 비굴하게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저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돈 되는 일이라면 남 등쳐먹는 일도 서슴치 않는 파락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비록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도 강한 권력욕과 야욕을 가지고 있지만 애써 이를 억누르며 살아가던 그. 그런 그가 진혁을 만나면서 마치 봉인이 풀린 듯 변하기 시작한다. ...

③ 영래 아씨(박민영 분)

: 1860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여인이다. 그녀의 이름은 홍영래로, 영래 아씨라고 불리는 그녀는 몰락한 가문의 양반집 규수다. 남인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참판

자리까지 올랐으나, 안동 김 씨 세도 정치관에서 밀려난 후, 돌림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녀는 홀로 된 어머니와 오라비 홍영휘와 함께 어렵게 살아간다. 외모는 미나와 쌍둥이라 할 정도로 똑 닮았지만 겉보기에 성격은 180도 달라 보인다. ... 미나와 닮은 그녀를 발견하는 진혁은 그녀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미나일 거라고 믿는다. ... 그저 대문 안 세상만 알던, 감히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었던 조선시대 여인이 진혁을 만나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의학도로서의 꿈을 갖게 된다.

④ 김경탁(김재중 분)\_영래 아씨의 정혼자.

: 안동 김 씨이자 노론 벽파인 좌의정 김병희의 서자로, 포도청 종사관직을 맡고 있다. 무예가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하며 승부욕이 넘친다. 하지만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나름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김병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은 한없이 약해진다. 그것이 바로 영래. 그런데 어느 날 진혁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진혁을 향해 있음을 알게 되고는 그동안 넓은 아량으로 베풀었던 호의는 커다란 배신감으로 다가온다. ...

⑤ 춘홍(이소연 분)\_장안 최고의 기생

: 뛰어난 미모에 묘한 색기가 흐르는 그녀는 뭔가 범상치 않은 기(氣)가 느껴진다. 특히 동양인에게서는 보기 힘든 푸른빛이 감도는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과 같은 신비한 눈빛에 미래를 잘 내다보고 점괘에 밝은 그녀는 한마디로 '홀린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미스터리한 여인이다. ...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이제껏 진심으로 마음을 준 사내는 없었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뺏긴 사내가 바로 진혁이었다. ...

⑥ 홍영휘(진이한 분)\_영래 아씨의 오라비.

: 쓰러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지만, 썩을 대로 썩은 과거제도와 남인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지자, 현 사회에 대한 불만과 개혁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

⑦ 김병희(김응수 분)\_안동김씨의 최고 실세로 좌의정

: 허수아비 같은 철종을 세워놓고 모든 정치를 좌지우지하며 임금보다 더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의 집 앞에는 금은보화를 싸들고 찾아오는 자들로 줄을 선다.

⑧ 김대균(김명수 분)\_안동김씨 세력가인 김병희의 적자.

: 언동이 경솔하고, 귀가 얇아 주위의 충동질에 잘 넘어가고 단순하다. 때문에 한양 제일의 기생 춘홍에게도 늘 추파를 던지지만 늘 그녀의 수에 말려들기 일수.

⑨ 유홍필(김일우 분)\_내의원 최고 어의

: 실력보다는 정치적 술수로 그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의술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로비에만 힘을 쓰며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 온갖 악행도 서슴지 않는다.

탐욕스런 자이다.

⑩ 허광(정은표 분)\_활인서에 근무하는 왕고참 의원

: 의술이고 뭐고 불평불만에 뻥질거리며 어떻게든 일 안하고 놀 궁리만 하며 하루 종일 욕을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마음속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인물로 의외로 한의학에 있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숨은 실력자다.

⑪ 주팔이(이원종 분)\_저잣거리 왈짜패 두목.

: 소매치기와 사채업을 하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 사채 빚을 떼어 먹으려는 이하응을 혼내주려다 오히려 그에게 얽혀들면서 그의 오른팔로 거듭나는 인물.

⑫ 유미나(박민영 분)\_진혁의 현재 연인.

: 대한대학병원 레지던트 2년차.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욕하는 성미가 있어 진혁이 장난스럽게 붙여준 별명이 '욕미나'. 진혁과는 옆집 오빠, 동생으로 자라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자연스레 진혁을 따라 의대에 들어갔고, 진혁과 같은 외과의를 꿈꾸며 사랑을 키워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혁과 크게 싸우고, 진혁의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는데...

<출처: MBC '닥터진' 홈페이지>

(3) 메이퀸<15세 관람가>

: 선박을 둘러싼 등장인물들의 성공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

① 천해주(김유정 분, 한지혜 분)

: 천성이 밝고 씩씩하며 호기심도 많고 놀랄 만큼 긍정적이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에 어떤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이겨내는, 좌절을 모르는 오뚜기.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한때 배를 탔던 의붓아버지 홍철 덕에 어렸을 때부터 배를 좋아했고, 좋아하다보니 수리는 물론, 기계를 만지고 개발하는 데 절대적 손 감각을 익혔다. 그녀의 꿈은 자신을 꿈쩍이 사랑했던 아버지를 위해 멋진 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② 강산(박지빈 분, 김재원 분)

: 아쉬울 게 없는 환경에서 자라 밝고 건강하며, 관심 있는 건 한 번 보고도 그대로 기억하고 재연해내는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인물. 창희와 같이 중학생 때부터 해주를 좋아했다. 그러나 15년 후, 한국에 돌아온 그가 해주와 재회하면서 해주가 그의 가슴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가 흘리는 땀방울이 점점 그의 가슴을 뚫게 하고, 그녀의 환한 미소가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한다.

③ 박창희(박건태 분, 재희 분)

: 자기관리가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 그는 냉정하고 이지적이며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함 검사이다. 그러나 그는 '천지가'의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도현의

충견인 집사 박기출의 아들이다. 그런 아버지가 그에겐 아킬레스건이고, 한이며,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원죄이기도 한다. 후에 아버지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면서 목숨처럼 사랑했던 해주를 어쩔 수 없이 떠나 인화를 택해 도현의 사위가 된다.

④ 장인화(현승민 분, 손은서 분)

: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 매사에 거침이 없다. 도도하고 고집도 세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던 강산이 해주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해주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더 견딜 수 없다. 해주에게 오기와 열등감을 느끼는 그녀. 결국 그녀는 해주의 첫사랑 창희를 빼앗아 결혼하는 데 성공한다.

⑤ 조달순(금보라 분)

: 드세고 그악스럽다. 무식하고 귀도 얇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특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협박하며 해주에게 생계를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인물.

⑥ 천홍철(안내상 분)

: 녀살 좋고 유들유들한 뱃놈. 어느 날 갑자기 군대 후배 박기출이 몰래 찾아와 들지 않는 여자 아이(해주)를 맡겼을 때 그는 자초지종을 물을 수가 없었다. 거액의 돈이 답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내에게는 자신의 딸이라고 속이고 해주를 사랑으로 기른다.

⑦ 장도현(이덕화 분)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하다가 ‘천지그룹’의 오너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과 유착하는데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하며 사업수완이 출중하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지만, 가정은 끔찍이 위한다. 특히 아내 금희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다.

⑧ 이금희(양미경 분)

: 아름답고 기품 있는 현모양처. 윤학수와 결혼하여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불과 반년 후 딸(해주)마저 바다에서 잃는 비극을 겪는다. 그 후 도현과 재혼해 그녀는 죽은 딸에 대해 속죄하는 기분으로 인화를 길렀고, 어미로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은 딸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⑨ 박기출(김규철 분)

: 학수가 도현에 의해 죽고 난 후, 자신마저도 죽을 위기에서 도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심복이 된다. 그의 모든 가치는 아들 창희의 성공에 맞추어져 있다. 언젠가는 창희를 천지그룹 꼭대기에 올릴 야심을 품고 있다.

⑩ 윤정우(이훈 분)

: 형수 금희에 대한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물. 정직하고 의로운 성격. 형 학수가 죽은 후, 졸지에 집안이 몰락하지만, 고시패스를 해 검사가 된다.

⑪ 이봉희(김지영 분)



: 석유학자. 금희의 동생이자 윤정우와 절친한 친구 사이. 발랄함을 넘어서 괘괄하고 여장부 같다.

<출처: MBC '메이퀸' 홈페이지>

#### [4] MBN

##### (1) 사랑도 돈이 되나요<15세 관람가>

: 돈이 전부인 남자(마인탁)와 돈에 목숨을 건 여자(윤다란), 이 두 사람이 모종의 음모와 사기에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믹 멜로드라마.

###### ① 마인탁(연정훈 분)

: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딴어? 폭군황제 '마이더스 탁' 희대의 폭군, 황금 사나이, 왕싸가지 마인탁 180% 변신.

###### ② 윤다란(엄지원 분)

: 먹고 살기 위해 억만장자와 사기 결혼 할 거야! 명랑 쾌활 속보이는 귀여운 모태 된장녀, 끈질긴 낙천성+ 된장녀 기질 충만.

###### ③ 홍미미(왕빛나 분)

: 인탁의 사촌 동생 행세, 왕년 톱스타 홍미미, 나한테 빠지지 않을 자신 있어?

###### ④ 김선우 (조연우 분)

: 비밀을 쥐고 있는 미스터리의 완소 훈남. 니가 최고인거 같지? 마인탁, 기다려라.

###### ⑤ 하민주(심은진 분)

: J호텔 비서실 비서실장, 빠른 눈치와 센스 덕에 천하의 인탁 조차도 못 건들임,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탈출하고픈 욕구 때문에 800억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 ⑥ 방국봉(김형범 분)

: J호텔 마케팅부 과장, 인탁의 잠무담당관, 악의 없고 순박하다. 인탁과 동갑이지만 적어도 열 살은 많아 보이는 슬픈 외모를 지녔다.

###### ⑦곽성란(황보 분)

: 다란의 친구, 작은 분식집 운영, 몇 년 전에 사귀었던 남친과 관계가 무르익기도 전에 아이부터 덜컥 임신해 미혼모가 됐다.

###### ⑧ 정여사(김청 분)

: 성택의 아내, 인걸의 모친, 인탁이 사업에 손을 대면서 승승장구하는 사이 정여사 남편의 사업은 해가 갈수록 기울더니 폭삭 망함.

<출처: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홈페이지>

##### (2) 수상한 가족<15세 관람가>

: 아버지들의 태산 같은 의무를 위로하고 고마움의 찬사를 바치기 위한 드라마다.

이를 통해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들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위로 받기를 바라본다.

① 천이백(김성수 분)

: 35세, 송과 인천경찰서 경사, 아시안 게임 복싱 은메달 리스트.

② 천지인 (한고은 분)

: 31세, 천도해를 아버지로 알고 있지만 왕희영과 민대식 사이에서 태어남, 생활력이 강하고 까칠한 일면을 지님.

③ 천월만 (변우민 분)

: 41세, 천도해의 법적 장남, 소심, 쪼잔, 왕삐침 삼종세트를 골고루 갖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음.

④ 왕희영 (이효춘 분)

: 59세, 진행성 치매를 앓고 있음, 엔젤산후조리원의 주방 찬모, 유아전문기업 ‘아가맘’의 회장 민대식과 불륜으로 지인을 낡음.

⑤ 강도상 (임호 분)

: 36세, 강차석의 아들, 어려서는 엄친아, 자라서는 훈남, 세련된 매너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동시에 지님.

⑥ 천억만(박상면 분)

: 39세, 천도해의 법적 차남, 별호 ‘신천 금벨트’ 폭력전과 16범, 지역사회 어두운 곳에서 활동 중인 조폭.

⑦ 민아리(김빈우 분)

: 28세, 민대식의 딸, 천지인의 이복여동생, ‘아가맘’ 디자인 실장으로 있지만 독 사장 취임을 앞두고 경업 수업 중임, 단칼에 상대의 목을 칠 수 있는 단호함.

<출처: MBN ‘수상한 가족’ 홈페이지>

**(3) 갈수록 기세등등<15세 관람가>**

: 남편보다 먼저 대령으로 진급한 부인과 중령인 남편, 소위로 임관한 딸을 중심으로 한 가족 시트콤.

① 박해미(박해미 분)

: 46세, 엄마, 대령(연대장), 학사장교 출신, 요리, 집안살림 못함.

② 이재용(이재용 분)

: 46세, 아빠, 중령, 육사출신 중령으로 자신대신 부인이 대령으로 진급 8대 독자로 귀하게 자람.

③ 이한별(박한별 분)

: 24세, 첫째 딸, 소위, 육사 출신으로 소위로 임관, 삼각 러브라인의 주인공.

- ④ 이은별(윤주희 분)  
: 24세, 둘째 딸, 백수, 연예인 지망생, 한별과 이란성 쌍둥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함.
- ⑤ 윤소정(윤소정 분)  
: 할머니, 주부, 손자 밖에 모르는 욕의 대가. 상대가 마음에 들면 엇을 건네주는 성향이 있음.
- ⑥ 강인한(강지섭 분)  
: 27세, 중사로서 부소대장을 맡고 있음, 이한별과 러브라인을 형성함.
- ⑦ 이윤석(정윤석 분)  
: 8대 독자 이재용 가문의 뒤를 이어 준 귀한 늦둥이, 할머니 윤소정 사랑 독차지, 군 지식 뛰어남.
- ⑧ 고대로(김광규 분)  
: 44세, 원사, 이재용과 죽마고우로 짝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람 좋은 순정파.
- ⑨ 고아라  
: 24세, 외동딸, 치킨집 사장, 털털하고 역세 보이지만 사실 극 소심녀. 한별, 은별과 친구사이.
- ⑩ 한명식(지상민 분)  
: 21세, 꼬인 군번이라 쓰고 한명식이라고 읽는다고 할 정도로 선임에게 치이고 후임에게 당하는 동네북.
- ⑪ 왕성한(이시언 분)  
: 24세, 병장, 부산 출신으로 뼈끼생활을 하다가 와서 허풍이 심한 품생폼사 울트라 절대무식.
- ⑫ 양세형(양세형 분)  
: 22세, 상병, 뻔질뻔질 얌생이, 박쥐 스타일이지만 분위기 메이커로 선임의 사랑을 독차지 .
- ⑬ 차민국(지윤호 분)  
: 21세, 이등병, 사회에선 엄친아 군에선 무개념, 비주얼이 우수한 전형적 강남 엄친아.
- ⑭ 김대위(박우천 분)  
: 31세, 대위, 군인정신이 투철, 채용 결에서 각종 업무를 돕는다. 눈치가 없어 채용을 자주 열 받게 함.

<출처: MBN '갈수록 기세등등' 홈페이지>

#### (4) 노크<19세 관람가>

: 무당집안에서 내려오던 탈을 매개로 벌어지는 치정과 살인에 연루되는 여주인공이 겪는 내용을 그린 판타지 공포물.

① 정화(서우 분)

: 미대생, 내성적이고 차분하면서도 위기 앞에서는 적극적임.

② 도현(현성 분)

: 사진작가, 안면기형에 대한 콤플렉스로 폐쇄적이고 집요한 성격.

③ 경민(백서빈 분)

: 정화의 선배, 킹카이자 바람둥이, 정화의 짝사랑 상대.

④ 성주(주민하 분)

: 성주 역, 정화 친구, 신기(神氣)가 있어 무당 일을 하며 생계 유지.

⑤ 현아(은우 분)

: 극중 모델.

<출처: MBN '노크' 홈페이지>

## [5] JTBC

### (1) 해피엔딩<15세 관람가>

: 개성 강한 비밀투성이 콩가루 가족이 가족과의 이별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아빠의 죽음을 둘러싸고 마침내 소통하고 화합하는 내용의 드라마.

① 김두수(최민수 분)

: 시한부 아빠의 유쾌한 죽음 나는 나의 죽음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사내답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그러나 속정 깊고 천성은 따뜻한 남자. 매사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목적인 바를 이루는 거친 저돌성 이면에 어떤 비극도 희극화 시켜서 바라볼 줄 아는 낙천성과 배짱, 유쾌한 긍정마인드를 가졌다. 홀로 기타를 뜯으며 올드 팝을 부르기도 하는 낭만적 성향도 있다. 회사에서의 불의를 못 참는 성격 탓에 윗선과 갈등하기도 하지만 후배기자들에겐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으로 존경을 받는다. 집안에서는 독재자가부장적 기질을 보이는데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그의 서툰 표현 방식일 뿐, 대한민국 어떤 아빠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부성애를 가졌다.

② 양선아(심혜진 분)

: 내 인생 가장 큰 실수는 김두수와 결혼한 것이었고, 내 인생 가장 큰 후회는 김두수를 좀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었다. 매우 소녀적이고 감수성 풍부하다. 두수가 야생 호랑이라면 선아는 가녀린 종달새다. 모든 면에서 그녀와 극과 극인 두수에게 불만이 많다. 두수가 없을 때면 두수의 뒷담화를 종알종알 달고 살면서도 내심으로는 두수가 언제까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있고 두수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기에 두수의 독재가 못마땅하

면서도 듬직한 두수의 그늘이 편하기도 하다.

③ 홍애란(이승연 분)

: 우리 딱 하루만 같이 살래? 고풍적이면서도 소탈한 매력을 지닌 커리어우먼 형의 여인. 레스토랑의 상류층 VIP단골에게도 서민가족 손님들에게도 친화력 높은 눈높이 서비스를 하는 팔색조 매력을 가졌다. 두수를 향한 연모, 두수와 관련된 그녀만의 비밀과 가슴앓이를 숨기며 명쾌한 친구로서 두수를 대하는 산뜻한 여인.

④ 이태평(박정철 분)

: 언제까지 독재자 아버님께 굴종하실 겁니까? 가족 여러분, 우리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야 합니다! 박학다식하고 음모론에 능한 유쾌한 선동가. 가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작된다는 신념의 소유자. 철부지 이상주의자. 취직을 중용하는 두수의 구박에도 꺾이지 유쾌한 궤변으로 맞선다. 처제은하는 물론 학생인 처남에게까지 박식한 논리로 용돈을 강탈해가는 미워할 수 없는 집안의 문제 덩어리. 상극인 아내 금하와 다투는 날의 연속이고 원치 않던 아빠가 되었기에 딸 지민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은커녕 늘 또래친구처럼 티격태격한다.

⑤ 구승재(강타 분)

: 댁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 휴먼 성장 드라마였지. 근데! 댁 때문에 액션 시트콤이 돼버렸어! 김은하 씨,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라곤 안하겠어요. 이견악연이야. 악연은 끊어야죠. 다신 보지 맙시다. 헉! 근데 여긴 또 웬일이예요?!뜨거운 녹차 같은 남자. 진중하고 유쾌하다. 일에서는 철두철미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봉사 활동하며 기쁨을 느낀다. 과외 아르바이트하며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친구 2명과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차리고 운영 중이다.

⑥ 김금하(소유진 분)

: 나만 일진 짱이었냐? 아빠도 옛날에 한주먹 했다면서? 나만 스무 살에 애 낳았어? 엄마도 스무살에 나 낳았잖아! 누군 친정살이 좋아서 하나? 아빠한테 전해. 다신 이서방 구박하지 말라구! 시원시원하고 과격하고 사나운 선머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파 싸움닭. 차에서 콩초 버리는 놈 혼내기, 담배 피는 남녀 중·고생 혼내기, 경로석에 앉아 자는 척하는 놈들을 혼내는 등 그래서 그들과 싸우다 경찰서를 수없이 드나든다. 그러나 아직도 남편 태평에게는 여자이고 싶은 순수한 순정이 있다.

⑦ 박나영(소이현 분)

: 김두수는 내가 만난 최악의 남자이자 최고의 기자였다. 그리고 그는...이지적인 커리어우먼. 매사 단정하고 깔끔하고 똑 부러진다. 똑똑하고 당차다. 명문대를 수석 졸업했고 방송국에 수석 입사했다.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어 보이고 취재현장에서도 감정 없이 이성으로만 접근한다. 찢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녀지만 실상은 겁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랑스러운 아가씨다.

⑧ 김은하(김소은 분)

: 거지를 사랑하게 된 신데렐라가 될 순 없잖아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여자. 당당한 속물, 순수한 이기주의, 도도한 허당. 매사 여우처럼 굴지만 언제나 한끗발 모자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미 발동하는 덕분에 각종 손해를 끌어안고 사는 헛똑똑이. 조건 좋은 미팅자리에 수없이 참석하고, 호텔 피트니스 센터 VIP고객 중에서 왕자를 물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⑨ 김동하(연준석 분)

: 아빠의 꿈을 이뤄주기엔 내 꿈이 너무 간절해! 신림동 제임스 던. 무뚝뚝하고 속 깊고 사내답다. 철부지 두 누나 덕에 일찍 철이 들었다. 수재. 학벌설움 한 멧힌 아빠의 꿈 이뤄주기 위해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학창시절 내내 앞만 보고 질주해 왔다. 하루컬러 번갈아 가며 집안을 들었다 놔다 하는 누나들과 달리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부모의 속 썩인 적 없고 문제 일으킨 적 없다. 두수의 희망이자 자랑! 그러나 같은 반 친구인 날라리 나리 덕에 뒤늦게 가수의 꿈 발견하고 갈등 끝에...

⑩ 김두수 父(최불암 분)

: 무뚝뚝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과묵한 성격을 지녔지만 묵묵하게 두수 뒤를 지켜준다. 아들의 죽음을 느끼면서 앞에선 슬픈 내색조차 평평 울 수조차 없어 뒤에서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다.

⑪ 박나리(하승리 분)

: 동하는 내 운명! 탕탕볼 같은 날라리.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온갖 날라리 일탈 행동을 일삼는다. 그러나 동하에게만은 순수한 감정으로 다가가는 미워할 수 없는 문제아 여고생.

<출처: JTBC '해피엔딩' 홈페이지>

(2) 친애하는 당신에게<15세 관람가>

: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연상연하 커플에게 과거 인연들이 찾아오면서 결혼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

① 서찬주(박솔미 분)

: 결혼 전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였다. 기세고, 고집 세고,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의... 그 매력에 흠뻑 빠진 남자가 꽤 됐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떠난 남자가 있었다. 전쟁 같은 사랑을 쫓 내고, 몇 다리 건너건너 소개로 만난 연하남과 결혼을 했다. 만난 지 3개월 만이다.

② 고진세(홍중현 분)

: 결혼 3년차 남편, 선배가 운영하는 건축 회사 근무 중 다감하고, 사려 깊고, 장난기 많은 남편, 아내가 우울할 때 웃겨줄 만한 서툰 개의 레퍼토리와 이벤트를 갖고 있다. 언뜻 보기엔 허허실실 연하 남편 같지만 이 부부의 동력은 어디까지나 그에게서 나온다. 그 동안 먹고 누리는 것에 중점을 뒀으나 서서히 재테크에 관심이 간다. 이유는 2세를 갖고 싶기 때문. 그러나 말 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은.

③ 최은혁(김민준 분)

: 성공한 남자? 나쁜 남자? 아니-어리석은 남자, 후회하는 남자다. 적당히 시니컬하고, 자존심이 세다. 야망만큼 능력도 받쳐준다. 한 때, 열정이 많은 여자를 만나 불같은 연애를 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버겁고 지겨워 '결혼에 딱 어울리는 여성'과 새 인생을 시작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배경 덕임을 무시하지 못한다.

④ 백인경(최여진 분)

: 은혁의 아내, 로열패밀리 출신이자 패션지 <스타일즈>의 대표, 자기관리와 절제가 생활화 되어 있는 음전한 여성이다. 남성들이 동경하는 여성상. 친절함 미소도 일품, 현재는 주부로서 충실하다. 여러모로 찬주와 대비되는 여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⑤ 홍란(배누리 분)

: 당돌하고, 통통 튀고, 아슬아슬하다. 되바라지고,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내면은 성숙하다. 세상 거칠고, 외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깨우쳤기 때문이다. 16년 전이다. 매일 저녁밥을 얻어먹으러 오던 아빠의 어리버리 제자. '너 어른 되면 나한테 시집올래?' 라던 그의 질문에 '그때 가서 탄 소리 하면 죽어.'라고 대답했던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진세가 자신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

⑥ 도한수(구본승 분)

: 녀두리 맨, 개념 있는 플레이보이 중소규모의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외도로 이혼을 당했지만, 나름 따질 것 따져서 만난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여자가 찬주의 친구이자 직장 상사인 명진이다. 패션잡지 편집장답게 스타일도 좋고 도도함이 매력적인 명진에게 자신 있게 작업을 걸지만 쉽게 넘어오지 않는다.

⑦ 강명진(박시은 분)

: 패션지<스타일즈> 편집장, 3인방 친구로 찬주와 은혁의 관계, 그리고 찬주가 진세와 결혼까지 하게 된 모든 사연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커리어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찬주에게 차마 하지 못할 잔인한 부탁(명령)을 하고 만다.

<출처: JTBC '친애하는 당신에게' 홈페이지>

(3) 아내의 자격<15세 관람가>

: 사교육 열풍과 자녀 교육문제로 갈등하는 주부의 순수한 이웃집 남자와 로맨스.

① 윤서래(김희애 분)

: 아픈 아들을 키우면서 아이 건강 이외의 일에는 도통한 듯 자연주의 낙천가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시누이 딸의 국제중학교 합격이 도발되어 대치동 주민이 되면서

서 그간의 평화가 깨지고, 얼이 빠진다. 미술대학 졸업 후, 방송사 미술부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만난 남편과는 열결에 결혼했다. 보도국 기자인 남편 한상진이 원래 여자들에게 좀 지분거리는 타입이라는 것은 뒤늦게 알았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일류로 키우기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와 숨 가쁘게 살고 있고 그 와중에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분별도 없이 다른 종족과 결혼해서 자신의 교육관, 가치관 다 접은 채 교육 기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 보니 같은 종족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혼자 합리화해 보기도 한다.

② 김태오(이성재 분)\_치과의사.

: 서래의 연인. 아내 홍지선과는 캠퍼스 커플. 둘다 지방출신으로 학교 부근 같은 하숙집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다. 풋풋하고 건강한 연애했다. 아내 지선을 평생의 동지라 여겨왔으나 그녀가 강남에 아예 터를 잡고 초등학교 대상 학원을 차리면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 동네에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된 것도, 풍족해진 생활도, 그러면서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에 맞추어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지선덕이지만 지선은 자신에게 아이를 맡기고 결과에 흡족해 하는 엄마들을 내심 비웃으면서도 어느새 그들과 같아지고 있다. 딸 보름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해 견해차는 점점 커진다. 하숙집 시절의 연애가 그렇다. 그 시절의 지선을 정말 간절히 다시 불러내고 싶을 무렵, 윤서래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③ 홍지선(이태란 분)\_김태오의 아내

: 별명 홍마녀. 카리스마 작렬의 유명강사. 원래는 대입전문 논술 강사였는데 초등학교 대상 고급 사교육 시장이 블루오션이라 판단, 상위권 전문 학원을 차려 돈과 명성을 얻었다. 국제중 입시 반은 합격률 95% 강남 엄마들 상대하면서 깨달은바, 청춘기의 이상과 낭만은 깨끗이 접어야 한다는 것, 종속되지 않으려면 지배해야 한다는 것 등 힘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 남편 김태오가 자신의 변화에 멀미를 느낀다는 것 모르지 않지만, 돈은 내가 벌 테니 너는 가치를 지켜라. 그게 모양이 좋으니까 하는 식. 그러면서도 점점 삭막해지는 자신의 내면이 좀 두렵기는 하다. 그래서 이곳 엄마들과는 이질적인 윤서래가 찾아 왔을 때 내색은 안했지만 은근히 반가웠다.

④ 한상진 (장현성 분)\_윤서래의 남편으로 현재 방송사 중견기자.

: 자신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한국 남자의 전형. 냉철한 자성과 원만한 처신 덕에(실은 좌우사방을 맹렬히 살피는 눈치 덕에)경제부 팀장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건 정기 프로그램을 맡게 된다. 누이동생 명진의 남편인 변호사 조현태를 선망하고, 대한민국 최고 상층부인 조현태 집안과 사돈인 것을 표 나지 않게 자랑한다. 대치동 입성 후, 아들 결의 교육에 적극 동참하고 서래를 독려한다. 그러던 중에 아내 윤서래의 열애 사실을 알게 되고 생애 최대의 분노와 번민에 휩싸인다. 수수하고 명랑한 윤서래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배경이 초라한 것에 잠깐 망설이기는 했지만 소박한 여성과의 결혼이 자신의 인간됨을 빛나게 해주리라 생각 했는데...



⑤ 한결(임제노 분)\_윤서래와 한상진의 아들

: 엄마와의 친밀도 최강. 병치레 끝에 건강을 되찾은 건 전적으로 엄마의 지난한 노력 덕분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자신을 위해 이사 해준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지만 자연학교 중심으로 지내던 이전의 생활을 가끔 그리워한다.

⑥ 한용희(이정길 분)\_서래 시아버지

: 고위 재무 관료로 있다가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을 끝으로 은퇴 했으나, 어디선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위 조현태의 부친과 최대한 자주 어울리려 애쓴다. 손자 결이 공부를 못한다면 그건 집안 망신이라 생각한다.

⑦ 진수애 (남윤정 분)\_서래 시어머니

: 강남엄마 1세대. 상진의 결혼 상대 서래의 배경이 초라해 마음에 안 들지만 인물 반듯하고 머리 나쁘지 않으니 잘 가르쳐서 내 사람 만들면 된다 생각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사람이 안 되고 있어서 심기불편. 친구들한테는 입안의 혀 같은 며느리라고 시치미를 뚝 떼다. 귀족들의 애티튜드가 몸에 밴 듯 행동하지만 그녀의 취미는 인터넷 고스톱.

⑧ 한명진(최은경 분)\_서래의 시누이, 상진의 누이동생

: 엘리트 관료인 부친의 지위, 모친의 민첩한 행보 덕에 명문율사 집안의 아들이며 변호사인 조현태와 결혼했다. 큰 딸은 국제 중 입학, 작은딸은 예원여중 목표로 첼로 수업 중, 자녀교육의 성공 사례로 꼽히지만 부족한 게 있다. 아들을 갖고 싶은 것. 가족의 완벽함이 서래로 인해 훼손되는 것이 불쾌하지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조언을 해주려 한다.

⑨ 조현태(박혁권 분)\_명진의 남편, 상진의 처남

: 원조 파워 맘인 모친의 치밀한 주도 아래 성장. 부친이 대표로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이다. 초일류 인간이다. 그런데 숨겨둔 내연녀가 있다. 아들도 있다.

⑩ 오정애(남능미 분)\_서래 미래 자매의 모친

: 한량이던 남편을 대신해서 이불 집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남편 먼저 보내고, 서래가 결혼한 지 3년 되던 해에 뇌졸중 수술 끝에 치매 증상을 얻어 요양원에 살고 있다. 바로 어제 일은 기억하는데 딸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⑪ 강은주(임성민 분)

: 아들 재훈과 단 둘이 산다. 재훈은 서래아들 결과 동갑. 재훈 아빠는 미국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친구 명진의 남편인 조현태의 내연녀. 명진 모르게 그와 정분이 나서 재훈을 임신했고, 이목을 피해 미국에서 출산. 몇 해동안 미국에서 살았다. 언젠가는 본처가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서...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본처가 되기는커녕 일 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조차 난망일 것이어서 재훈을 데리고 귀국. 교육에 올인한다.

<출처: JTBC ‘아내의 자격’ 홈페이지>

#### (4) 인수대비<15세 관람가>

: 여성의 신분을 넘어 최고의 권력자가 되려는 야망과 정열, 냉정함을 넘어 냉혹하기까지 했던 인수대비.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자신의 몸 하나로 왕비가 되었으나, 지나친 탐욕과 오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폐비윤씨, 제헌왕후. 배운 것은 없으나 후덕한 인품과 인화로 대궐의 안주인이 됐던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이 여인들의 얽히고설킨 인연들과 악연을 풀어나가는 드라마.

##### ① 인수대비(함은정 분)

: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곁에서 자신이 대비가 될 날만을 기다리는데...

##### ② 정희왕후(김미숙 분)

: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헤아릴 줄 알았던 정희왕후. 며느리인 인수대비를 경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돕고해한다. 조선 최초의 대비로서 남편과 며느리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가슴앓이를 한다.

##### ③ 수양대군(세조)(김영호 분)

: 권력의 대한 욕심을 가슴으로 품었다가 한 번에 뱉어내는 수양. 계유정난으로 정국을 확실한 자기세계로 만든다. 드디어 단종을 제치고 자신이 보위에 오르는 권력의 승리를 맛보는데... 며느리 인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훗날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인수의 욕심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 ④ 도원군(의경세자)(백성현 분)

: 권력욕이 없는 유일한 인물. 호리호리한 체구처럼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다. 인수와 처음 만난 궁궐에서 첫눈에 인수에게 호감을 느낀다. 인수와 그저 평범한 부부처럼 살고 싶은 도원군. 인수가 원하는 남편이 무엇인지 알지만 자신을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출처: JTBC '인수대비' 홈페이지>

## [6] TV조선

### (1) 지운수대통<15세 관람가>

: 인생역전을 꿈꾸는 평범한 회사원의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 ① 지운수 (임창정 분)\_세종실업 인사과 평사원, 총자산 125원의 신흥 갑부

: 집안에서는 나름 개천에서 난 용이지만 남들 눈에는 평범하다 못해 다소 한심한 샐러리맨. 발 동동거리고 허리띠 졸라매는 부인은 몰라라 한 채, 급여 통장을 두 개 만들어 비자금 조성하는 꿈수 대마왕이기도 하다. 무조건 가늘고 길게 모든 일에 절대 먼저 나서는 일이 없고, 당연히 불의를 봐도 잘 참는다. 득이 되지 않

는 일엔 손 털고, 발 쪽 빼는 완전 뻘질이지만 연민을 자아내는 외모 덕에 얄밟지는 않다. 몰래 훔쳐 본 차대리의 복권 예상 번호 덕에 당첨금 125원의 잭팟을 터뜨리며 인생역전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 덕에 여전히 쪼들리는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는 박복한 운명의 사나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어진 지운수는 없던 소신이 절로 생겨나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으며, 남들이 모두 'Yes'라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셀러리맨으로 거듭난다.

② 이은희(서영희 분)\_운수의부인, 생활력 강한 생각녀

: 철없는 남편 지운수와 자신을 은행이라 생각하는 시대와 친정 식구덕에 둘도 없는 억척녀가 되어버린 은희. 생활력 강한 건 친정 집안의 여자 쪽에만 내려오는 유전이다. 바꿔 말하면 남자인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 거기에 질려 다른 거 하나도 안보고 성실하게 회사 다니며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를 남편감으로 골랐고, 그게 운수였다. 내숭 없고, 애교 없고, 성질은 좀 있다. 내 집 마련 전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 맞벌이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수년간 다니던 출판사라 폐업해 지금은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다. 복권 당첨 사실을 밝히지 않는 운수 때문에 여전히 허리띠 졸라매며 살고 있다.

③ 한수경(이세은 분)\_세종실업 인사과 대리, 까칠한 성격의 차도녀이자, 언더커버 사장 딸

: 세종실업 한사장의 외동딸, 낙하산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세종실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입사한 나름 개념 있는 여자다. 하지만 아버지의 분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종실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한다. 일에 있어 깐깐하고, 출신성분에 따른 특별대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그녀의 특급 비밀을 알게 된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지운수다! 입만 열면 아부일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수경의 출신성분을 알고 나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거침없는 지적질을 쏟아내며 예상치 못한 박력을 보여주는 지운수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④ 차대리(최규환 분)\_세종실업 인사과 대리, 125억 대박을 건어차 버린 희대의 불운남

: 간에 붙고, 쓸개에 붙는 민첩한 처세술로 회사생활이 매우 원만하다. 특히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스킬이 탁월. 일은 후배들 다 시키고 결과보고서만 자신이 챙겨 공을 가로채는 진상 짓을 일삼더니, 복권 1등 당첨이라는 대운을 발로 뺨차버렸다. 1등 당첨번호를 쥐고 복권을 못산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진짜 당첨돼놓고 아닌 척 쇼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미치고 팔짝뛰기 일보직전. 지운수가 바로 복권 1등 당첨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

⑤ 최과장(윤다훈 분)\_세종실업 과장,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인 3년차 기러기 아빠

: 처자식을 모두 외국으로 보내 놓고 홀로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러기 아빠. 다년간의 농땡이질과 눈치 없음으로 인해 입사동기 이부장의 구박을 독차지하고

있다. ‘가족에게 헌신짝 취급을 받더라도 버리지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눈물겨운 중년남.

⑥ 백사장(이문식 분)\_대박이야 사장

: 음지의 삶을 벗어나 복권 당첨번호 예상업체 ‘대박이야!’ 차린 건실한(?) 사업가. 대박은커녕 모아놓은 돈을 야금야금 까먹으려던 찰나, 세종실업 차명철 대리에게 보내줬던 예상번호가 당첨금 125억원의 대박을 터뜨리는 횡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차대리는 복권을 사지 못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 봉인해 두었던 더러운 성질머리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상황이다.

⑦ 오경훈(박효준 분)\_대박이야 실장

: 백사장의 충실한 심복. 누가 봐도 깡패 건달로 보이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어두웠던 과거와의 단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⑧ 나여사(이경진 분)\_운수 모

: 만년 평사원이긴 하지만 번듯한 회사에 취업한 아들이 대견하기만 한 엄마. 맨손으로 시집온 은희에 대한 괘시가 심하다. 아들이 역대 연봉을 번다고 착각이라도 하는지, 가게 보증금에 임대료에 이래저래 바라는 게 많다.

⑨ 지재수(황태광 분)\_운수의 못난 형

: 딱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좀먹는 백수. 자존심도 없는지, 동생 운수의 카드를 빌려 룬살롱에서 놀 생각만 하는 한심하고도 못난 형. 운수 인생의 짐이다.

⑩ 이씨(최주봉 분)\_은희 부

: 술, 여자, 도박에 방랑벽까지 고루 갖춘 천상 한량. 돈 냄새 맡기로는 전국 일등. 처자식은 물론 사위 운수까지, 주위에 평생 민폐만 끼치고 살아왔다.

⑪ 전여사(홍여진 분)\_은희 모.

: 두 딸 은희, 금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철딱서니 없는 어머니. 두 딸과는 달리 아들 동희에게는 끔찍하다. 사고뭉치 동희의 사고 수습이 일이다.

⑫ 이금희(이주현 분)\_은희의 언니

: 철부지 가족을 건사하느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한, 어찌 보면 은희보다도 더 박복하고 불쌍한 여인. 결혼 후에도 친정식구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히는 은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⑬ 이동희(주노 분)\_은희의 사고뭉치 동생

: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큰 탓에 지 멋대로인 성격이다. 크고 작은 사고를 일삼으며 금희, 은희 두 누라를 피 말리게 만드는 등골브레이커.

⑭ 운칠(장원영 분)\_대박이야 사원

: 여동생 서현을 늑대소굴 ‘대박이야’의 웹디자이너로 취업시켰다. 서현에게 치근대는 음흉한 직장동료들과 턱도 없는 상여금을 요구하는 여동생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

⑮ 서현(신서현 분)\_대박이야 유일의 여사원

: 예쁜 외모와 달리 살벌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친오빠 윤철의 애원에 ‘대박이야’의 비서 겸 웹디자이너가 됐다. 백사장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다..

⑩ 문상중(강재섭 분)\_세종실업 평직원.

: 놀기 좋아하고 뻔질뻔질해 운수와 죽이 잘 맞는다.

<출처: TV 조선 ‘지운수대통’ 홈페이지>

## [7] 채널A

### (1) 불후의 명작<15세 관람가>

: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를 소재로 대한민국 최고 요리명장의 후계자 자리와 동양 최고 조리비서의 전수를 놓고 벌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김치 전문 드라마.

① 김성준(한재석 분)\_대한김씨 최고 종파 24대 종손에 5대독자/신경외과 전문의  
: 유경의료재단의 유일한 후계자로 도도하고 냉정한 마초 같지만 대중가 종손으로 책임지고 지켜야할 것이 많아 어깨가 무거운 숙명의 주인공이다. 안 그래도 벽찬 인생의 예상치 못한 한 여자가 뛰어들고, 다신 열지 않으려 결심했던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과연 그는 집안의 명예와 사랑하는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까?

② 황금희(박선영 분)\_‘삼대째 설령탕’ 강산해 여사의 막내 딸/한의사  
: 원래 꿈은 요리사였으나 소문난 국민약골 아버지를 위해, 자식이 의사 되는 게 꿈인 엄마를 위해 한의사가 됐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건과 얽혀드는 인연들 속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그녀. 과연 행운의 여신은 그녀의 편을 들어줄까?

③ 박계향(고두심 분)\_대한김씨 최고 종파 22대 종부/전통음식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 종가집의 법도에 따라 처녀의 몸으로 시집을 와야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딸이 하나 있다. 대한김씨 최고 종파 22대 종부로 시집오던 날, 그녀의 시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한다. 과연 그녀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숨겨진 딸의 진실은?

④ 강산해(임예진 분)\_삼대째 설령탕 안주인/황금희모  
: 어릴 적 비밀을 간직한 채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린 그녀. 설령탕집에 시집을 와 설령탕 한 그릇마다 각 손님들의 건강에 맞춘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그녀의 음식 맛에 반해 설령탕집은 문정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가족도 모르는 그녀의 숨겨진 비밀, 그 진실은?

⑤ 김현명(최종환 분)\_대한김씨 최고 종파 23대 종손에/유경의료재단 이사장/박계향 아들  
: 아들 성준과 영주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영주의 진심을 알고 마음을 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죽음의 이유를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지는데...

- ⑥ 서영주(이하늬 분)\_한국음식연구소 부소장/찬술식품 연구실장  
: 상냥하고 청초한 얼굴 뒤에 위엄하고 치명적인 독기와 야망을 숨긴 최연소 요리 명인. 한때는 성준의 연인이었지만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모질게 떠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결국 성준에게 돌아가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한다.
- ⑦ 오건우(고운후 분)\_유경의료재단 한방병원과장  
: 김현명의 수양아들이자 성준의 고교후배. 너무 가진 게 없고 부족해서 금희에게 고백조차 할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서 제일 부럽고 세상에서 제일 의지하는 성준이 그녀를 내게서 빼앗아가려 한다. 과연 그는 금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성준을 이길 수 있을까?
- ⑧ 서돈만(김병기 분)\_서영주父 /대한민국 재계 3위  
: 성준을 마음에 둔 딸을 위해 성준의 아버지인 현명을 찾아가 의료재단에 투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설득하는데...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아버지.
- ⑨ 최진미(김선경 분)\_ (주)찬술식품 대표  
: 한식과 김치 수출로 식품업계 1위 탈환이 인생 최대목표인데 현명과 결혼하면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한 번에 다 해결된다. 모든 게 다 코앞에 와있는데 놓칠 수 없다.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는다.
- ⑩ 황영철(백운식 분)\_황금희父/국민약골 아버지/삼대째설령탕집주인  
: 사랑하는 아내 산해와 사랑스러운 딸 금희를 뒀지만, 꼴통 큰 아들 금호 때문에 평소 좋지 않았던 건강이 악화된다. 더욱이 금희의 부탁으로 영철의 수술을 유경의료재단 후계자 성준이 맡게 되는데 과연 영철의 운명은?
- ⑪ 알렉산더(알렉산더 분)\_산해의 애제자/홍콩인  
: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삼대 짜 설령탕 집 김치맛과 설령탕 맛에 반해 제자로 입문한 외국인 청년이다. 설령탕집 분위기를 Up! 시키는 주역으로 기타, 노래, 춤, 랩까지 수준급 실력을 갖고 있다.

<출처: 채널A ‘불후의 명작’ 홈페이지>

## (2) 굿바이 마눌<15세 관람가>

: 요란한 결혼식을 올린 5년차 부부에게 각자의 첫사랑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 ① 차승혁(류시원 분)

: “결혼은 재미도 없고 적성에도 안 맞아! 마눌님, 굿바이 해주면 안 되겠니?” 다부진 체격, 살아있는 눈빛,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외모를 소유한 前 격투기 챔피언. 선수시절부터 여성 팬들이 많았고 ‘링 위의 간지남’ 일명 ‘차간지’로 불리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지금의 아내 선아와는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졌

다. 수녀 서원식을 앞뒀던 그녀는 격투기 선수가 싫다고 했고, 승혁은 과감히 은퇴를 선언하고 결혼을 감행했다. 사람들은 격투기 챔피언과 수녀의 드라마틱한 결혼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승혁은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로 등극했다. 덕분에 각종 CF를 섭렵하는 등 큰 부를 쌓았고, 럭셔리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CEO가 됐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전설적인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결혼은 재미도 없고 적성에도 안 맞는 이 남자! ‘그때 내가 미쳤지...’하는 후회 속에 의리로 살고 있는 이 남자. 그런 승혁 앞에 고백도 못해보고 떠나보내야 했던 첫사랑 향숙이가 돌아온다! 그리고 단순하고 무모한 성격대로 아내에게 과감히 ‘굿바이’를 선언하려 한다.

② 강선아(홍수현 분)\_차승혁의 아내

: “차승혁이랑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고? 니네들이 같이 살아봐!” 어릴 때 성당 앞에 버려져, 수녀님들 손에 키워졌고, 처음으로 마음을 준 현철에게도 버림받자,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서원식을 앞두고 차승혁의 열렬한 구애로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신데렐라가 되어 차승혁과 결혼한다. 모든 남자들이 탐내는 남자와 산다는 것, 결혼이 재미가 없다는 남자와 산다는 것,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아는 남편을 묶어두기 보다 풀어줄 줄 아는 포용력을 지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삐를 놓지 않는 지혜로움을 갖춘 여자다. ‘저 남자가 날 사랑했던 차승혁 맞나?’란 생각부터,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나?’ 하는 생각까지만 해본 생각이 없지만, 정작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승혁은 고아로 자란 그녀에게 첫 번째 생긴 가족이므로! 그래서 아이도 빨리 낳고 싶지만 승혁이 잘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도 자신을 잊지 못했다며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난 첫사랑. 그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③ 오향기/오향숙(박지윤 분)\_차승혁의 첫사랑

: “나를 위해 이혼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냐고!” 본명은 오향숙이었으나 결혼과 동시에 오향기로 개명했다. 신비로운 매력마성을 지닌 요즘말로 ‘나쁜 여자’다. 그녀가 하는 말이나 행동 모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불행한 결혼생활로 이혼했다 알려져 있지만 이것 또한 그녀가 짜놓은 치밀한 설정일수도 있다. 대학시절 자신을 좋아했던 차승혁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애타게 찾는다는 차승혁을 특별한 감정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다. 어차피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 만 날수록 빠져든다. 원래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남자가 갖고 싶어졌다.

④ 김현철(김민수 분)\_유능한 변호사

: “선아야, 7년 전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 지키고 싶어!” 이지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남자지만, 7년 전 “기다리지 말라”는 말만 남긴 채 강선아를 두고 유학을 떠났다. 그때 밝히지 못했던 속사정이 있었지만, 선아에게 돌아갈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머나먼 타지에서 선아의 결혼소식을 들었다. 그가 귀국한건 그냥 선아가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는

가! 그런데 그가 본 것은 향숙이와 열애중인 차승혁과, 차승혁에게 구박받는 강선아의 모습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강선아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 그렇게 선아 곁을 맴돌다, 승혁이 같은 남자에게 선아를 되찾아 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이른다.

⑤ 주지애(오주은 분)

: 차승혁의 선수시절부터 승혁을 짝사랑했던 프리랜서 기자. 승혁이 결혼한 뒤 동성 친구보다 친한 사이가 됐다. 그렇게 승혁에 대한 마음을 접고 유학길에 올랐고 그곳에서 현철을 만나 그를 좋아하게 됐다. 고백도 못하고 있던 차에, 승혁의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대시하려는데, 현철에게 운명의 여자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⑥ 강구로(줄리엔 강 분)

: 차승혁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현 격투기 챔피언. 하지만 차승혁의 선수시절 단 한 차례도 승혁을 이긴 적이 없다. 패배도 찾기 힘들었지만, 차승혁의 간죽거림은 미칠 노릇이었고 모든 여성 팬의 환호를 받는 차승혁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낀다. 차승혁을 꼭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승혁이 결혼한다며 은퇴해버렸다. 승혁의 은퇴 후에도 악연은 계속 이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무너뜨리고 싶다.

⑦ 계동희(테니안 분)

: 별명 개똥이. 취미는 ‘사고치기’, 특기는 ‘차승혁에게 떠넘기기’다. 과거 차승혁의 트레이너. 현재는 차승혁의 매니저 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늘 제멋대로인 차승혁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그래서 만날 투닥거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차승혁과 한 통속이 되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다.

⑧ 소용대(정성모 분)\_과거 차승혁의 코치

: 지금은 승혁의 스포츠 센터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태권도를 그만둔 승혁에게 격투기를 가르친 스승이며, 차승혁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승혁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이옥분을 오랫동안 짝사랑해 왔지만, 친구의 아내였던 옥분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⑨ 성민(윤성민 분)\_차승혁 체육관의 원생

: 성공을 위하여 공부에 매달려왔지만, 차승혁의 경기 모습과 강선아를 향한 프리포즈를 보고 바로 차승혁 체육관에 등록한다. 제2의 차승혁이 되기 위하여 끈임 없이 노력하며 차승혁에 눈에 띄기를 학수고대하지만, 매번 무시당하고 만다.

⑩ 이옥분(오미희 분)\_차승혁의 모친

: 커다랗게 차승혁 사진 박아놓고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다. 무속신앙 애호가로, 며느리의 사주가 서방 잡아먹는 사주라니 결혼에 쌍수 들고 반대했다. 결국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은 시켰으나, 같이 살면 애가 안 생길 거라는 점쟁이 말에 하나뿐인 아들을 분가시키고 이제나 저제나 손자만 기다리고 있다.

⑪ 공신부(이병준 분)\_조폭 출신 신부



: 새사람으로 개과천선했으나, 가끔은 옛날 버릇 나온다. 강선아에게 있어선 아버지 같은 존재로 선아가 남편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고해성사 하러 찾는 신부다. 그래서 차승혁의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선아와 현철의 오래된 사랑을 지켜봐 왔던 인물이다.

<출처: 채널A ‘굿바이 마늘’ 홈페이지>

### (3) 판다양과 고슴도치<15세 관람가>

: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바짝 세우고 살아온 천재 파티쉐 고승지(동해 분)가 판다처럼 태평하고 느긋한 ‘카페 판다’의 오너 판다양(윤승아 분)을 만나면서 케이크 같은 알콩달콩 상큼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로맨틱 코미디.

#### ① 고승지(동해 분)\_천재 파티쉐

: 아버지 최재겸으로 인한 사건으로 갑자기 닥친 불행. 제과점을 지키고 생계유지를 위해 엄마가 아버지 대신 수감생활을 한다. 6살 승지는 상황을 모르고, 부모님 사진 한 장 없이 자라 현재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상태다. 성깔있고, 주먹질도 잘하고, 대찬 놈이지만, 연애는 해봤어도 사랑은 제대로 못해봐서 첫 사랑 판다양 앞에서는 손바닥 위에서 얼굴 보인 새끼 고슴도치다.

#### ② 판다양(윤승아 분)\_카페 판다 주인, 프리랜서 음식잡지 기자.

: 부검의를 하던 아버지가 더 이상은 가족들에게 죽음의 냄새를 맡게 하지 않겠다며 케이크 집을 차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으로 지방으로 요양을 가는 바람에 케이크 집 문을 닫아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 판다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케이크 전문기자가 됐지만 아빠의 꿈을 내가 이루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연애에는 소질 없어 두 남자가 자길 좋아하는 줄 모른 채,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양손에 떡을 쥔 판다양.

#### ③ 최원일(최진혁 분)\_국내최고 케이크전문점 생토노레 부사장,

: 잘난 놈. 일 잘하는 놈. 돈 쓸 줄 아는 놈. 멋 잘 부리는 놈. 남들 보기엔 부러울 거 없는 남잔데 부모가 부끄럽다. 최재겸이 양부여서, 최재겸을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면이 있어 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인 걸 기억하고 있어 거리를 둔다. 엄마에게도 해묵은 배신감이 있어 걸로만 자랑스런 아들일 뿐 마음은 늘 쓸쓸하다. 부모에겐 그렇게 냉정하지만 판다양에게는 껌뻑 죽는 연애초보라 차도 남과 애교남 사이를 오가게 된다.

#### ④ 강은비(유소영 분)\_생토노레 기획실 직원, 생토노레 부사장 관할 기획실 직원.

: 판다양과는 절친, 판다양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기고, 판다양의 인생이 잘 안 풀려 친하게 지냈는데... 인생을 바꿔줄 한방의 남자 최원일이 나타났다! 그를 짝 었다. 그가 너~무 좋다! 판다양에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판다양이 원일과 친구 이

상의 관계로 가까워지자 악녀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 ⑤ 박병무(박근형 분)\_승지가 일하는 제과점 주인, 원래 승지 외할아버지.  
: 금지옥엽 키운 외동딸 미향을 꼬여낸 종업원 재검이 못마땅해 인정하지 않고 절연을 선언했다. 오랫동안 안 보고 살아 외손자 승지를 본 적이 없다.
- ⑥ 박미향(이문희 분)\_박병무의 딸, 승지엄마  
: 남편 최재검을 대신해 대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신. 그리고 아들까지 잃었다.
- ⑦ 김갑순(양희경 분)\_판다양, 판다나 두 자매의 이모  
: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다양 자매를 끔찍이 아끼며 두 조카의 일이라면 두발 벗고 달려 나간다. 자신의 택시에 판다카페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두 자매의 든든한 이모.
- ⑧ 판다나(임은혜 분)\_판다양 여동생  
: 뭐든 한 박자 늦고, 눈치가 좀 없고, 엉뚱한 상황에서 옥해서... 직장생활 하기도 안 맞고, 여우처럼 시집가기도 좀 그렇다. 가장 큰 고민은 남자친구가 없는 것. 두 번째 고민은 판다에 손님은 없고 파리만 날아다니는 것.
- ⑨ 길동구(유승목 분)\_치사한 인간의 전형  
: 카페 판다의 주방장을 하다가 제과제빵사 자격증이 가짜인 게 들통 나 쫓겨나고 판다양네 자매들에게 앙심을 품고 카페 판다 근처에 카페 폭스를 차린 뒤 호시탐탐 카페 판다를 염탐하고, 고승지를 모함한다.
- ⑩ 최재검(현석 분)\_승지의 생부  
: 최유겸과 헛갈려 이름을 바꿈. 비겁하고 본성 나쁜 3류 인간. 미향의 호적에 올린 승지(민우)를 위해 제 살인죄를 미향이 지게 한 뒤 자식마저 버린 파렴치한.
- ⑪ 황정례(홍여진 분)\_원일의 엄마  
: 생각 없는 삼순이과, 화려한 줄부가문 사모님 타입. 돈쓰고, 멋 내고, 즐겁고 그녀의 인생에 고민은 남들에게는 배부른 소리 그 자체이다.
- ⑫ 최원이(오이나 분)\_원일의 여동생  
: 항상 뭔가가 좀 어설피다. 원이는 항상 원일을 형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할 땐 오빠라 부르는 털털하고 능글능글한 성격의 소유자다.

<출처: 채널A ‘판다양과 고슴도치’ 홈페이지>

부록 3: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월간 보고서 및 국립국어원 보도자료(5월~9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월간 보고서 1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의  
주말 드라마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작 성 자	
작성일자	2011. 6.

# 월간 보고서: 5월

##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사용 실태조사

### 1. 조사 목적

방송 언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언어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시청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사용되는 저품격 방송 언어는 국민의 교양 수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방송 언어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국민의 바른 언어 생활을 주도하고 표준어를 보급하는 것이 그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비규범적 표현과 품위가 손상된 표현 등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어 습득에 텔레비전 방송을 활용하는 등 방송 언어의 역할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저품격 방송 언어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수준 높은 방송 언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드라마는 광범위한 시청자 층을 포괄한다. 특히 주말 드라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말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본 과업의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방송 언어 중의 하나이다.

본 조사를 통해 방송 언어의 본질에 접근하여 저품격 방송 언어의 기준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한다. 이를 토대로 최근 주말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저품격 언어의 실태를 점검한 뒤 대체 표현을 제안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 방송 언어의 품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조사 대상

채널	프로그램명	드라마 분류	방송 일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주말 드라마	2012.5.5/6/12/13/19/20/26/27
SBS	바보 엄마	주말 드라마	2012.5.5/6/12/13/19/20
	신사의 품격	주말 드라마	2012.5.26/27
MBC	신들의 만찬	주말 드라마	2012.5.5/6/12/13/19/20
	닥터 슬립진	주말 드라마	2012.5.26/27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	주말 드라마	2012.5.5/6
	수상한 가족	수목 드라마	2012.5.9/10/16/17/23/24/30/31
JTBC	해피엔딩	월화 드라마	2012.5.1/7/8/14/15/21/22/28/29
TV조선	지운수대통령	주말 드라마	2012.5.5/6/12/13/19/20/26/27
채널A	불후의 명작	주말 드라마	2012.5.5/6/12/13/19/20
	굿바이 마늘	월화 드라마	2012.5.28/29

### 3. 분석 항목

#### 1) 부적격 표현

- ① 비표준어
- ② 비문법

#### 2) 저속한 표현

- ① 인격 모독 표현
- ② 차별적 표현
- ③ 폭력적인 표현
- ④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
- ⑤ 은어 및 통신어
- ⑥ 비속어
- ⑦ 선정적 표현

#### 3) 기타

### 4.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의 주말 드라마 언어사용 분석

#### 1) 부적격 표현

부적격 표현의 부분에서는 비표준어의 사용과 비문법적 표현의 사용이 대상이 된다. 올바른 표준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품격있는 언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중계나 즉석 인터뷰 등과는 달리 대본을 그대로 의존하는 드라마의 경우에 부적격 표현이 사용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발견되었다.

## ① 비표준어

비표준어에는 비표준발음과 단어의 잘못된 사용, 서울 화자의 방언 사용, 과도한 축약어 등이 포함된다.

(1) 누가 또 제 차를 뺑크를 내 봤더라구요.

<JTBC 해피엔딩(9회), 김두수(최민수)>

(1)은 김두수가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가, 자신이 쫓아오지 못하게 차바퀴에 구멍을 낸 것이 아니냐고 묻는 장면에서의 대사이다. ‘뺑크’에 대해 ‘뺑크’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표기한 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형이 날 또 뭘 가르켰어, 어유.

<TV조선 지운수대통(5회), 지운수(임창정)>

(3) 형님, 자장면 불지 말입니다.

<MBN 수상한 가족(4회), 조폭부하>

(4) 남자한테 채였나봐.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3회), 방일숙(양정아)>

(5) [자막] 어째든 난 반대.

<TV조선 지운수대통(11회), 서현(신서현)>

(2)는 형인 지재수가 동생인 지운수에게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고 묻는 말에 지운수가 대답하는 말이다. ‘가르치다’에 대해 비표준어인 ‘가르키다’를 사용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가르켰어’로 고쳐야 한다. (3)은 폭력 조직에서 부하가 우두머리에게 자장면을 권하며 하는 말이다. 자장면 가락의 부피가 커지는 것은 ‘불다’라고 표현하므로 ‘불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4)는 차세광에게 버림받아 기분이 안 좋은 방말숙을 두고 하는 말이다. ‘채이다’는 비표준어이므로 ‘차였나봐’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비표준어 사용은 자막으로도 나타난다. (5)는 운철에게 회식자리에서 수화(手話)로 선본 상대인 이금희가 어떠냐고 묻는 장면이 자막으로 처리되어 나온 것이다. ‘어째든’은 ‘어쨌든’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6) 그릇을 데껴 봤습니다.

<채널A 불후의 명작(15회), 황금희(박선영)>

(6)는 요리대회에서 심사위원이 그릇에 왜 물을 담아놓았냐고 묻는 질문에 황금희

가 대답하는 장면이다. ‘데워 놓다’가 쓰여야 할 자리에 ‘데퍼 놓다’를 사용하였다. ‘땀히다’는 강원·경상 방언이므로 ‘데우다’를 활용한 ‘데워 났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드라마에서 배역이 방언화자인 경우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서울화자의 배역이 방언을 쓰는 것은 잘못이다.

(7) 카드 못 막구 신불자 되는 거 아닌가 하구.

<TV조선 지운수대통(11회), 진상희(문지영)>

(8) 잘가, 우리 퍼사.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2회), 한만희(김영란)>

(6)은 복권에 당첨된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지운수가 요즘 자신의 지출이 많아진 것이 주식 때문이라고 거짓말하자 회사원들끼리 모여서 지운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이다. ‘신용 불량자’에 대한 축약어로 ‘신불자’를 사용하고 있다. (7)의 ‘퍼사’는 ‘퍼펙트 사위’를 줄인 말로 ‘여러모로 뛰어난 완벽한 사위’라는 의미로 방귀남의 장모인 한만희가 사용한 표현이다. 이 경우 ‘완벽한 사위’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며, 굳이 과도한 축약어인 ‘퍼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중간부터 드라마를 시청할 경우, ‘퍼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다수가 예측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7)은 불필요한 외국어와 비표준어 두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표현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해당 된 단어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과도한 축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② 비문법

비문법적인 표현은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해당된다. 통사적으로 틀리게 표현한 말이나 경어법 오류 등이 포함된다.

(1) 그래도 형님이 자식들 생각은 얼마나 생각했는지…….

<MBN 수상한 가족(4회), 정육점 사장>

(2) 어제 김은하 씨가 칠칠맞게 화장품 가방 흘리고 갔냐?

<JTBC 해피엔딩(11회), 구승재(강타)>

(1)은 동네 주민이 죽은 이웃을 떠올리며 그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였음을 증언하는 대목이다. ‘자식들 생각’이 목적어이면서 서술어로는 ‘생각하다’가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생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복은 불필요하므로 서술어를 ‘했는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2)는 김은하가 구승재의 회사에 자신이 화장품 가방을 놓고 갔냐고 묻자 구승재가 회사 동료에게 이를 물어보며 하는 말이다. ‘칠칠맞다’는 주로 ‘못하다’, ‘얕다’와 함께 쓰여 ‘사람이나 그 언행이 야무지고 반듯한



데가 없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칠칠맞게'는 '칠칠맞지 못하게'로 고쳐야  
옳다. '칠칠맞다' 오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것인데, 제작자들은 이  
표현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다음은 경어법 오류에 대한 예이다.

(3) 우리 엄마 죽어요? 심장 이식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SBS 바보엄마(15회), 박달별(안서현)>

(4) 다음에 응? 다음에.

<채널A 굿바이 마눌(7회), 차승혁(류시원)>

(3)는 박달별이 최고만에게 엄마의 병에 대해 질문하는 말이다. 딸에게 엄마는 존칭  
의 대상이므로 평소에 반말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존대하는 것이  
옳다. '죽어요?'를 '돌아가시는 거예요?'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경어법 사용이다. (4)  
는 아내인 강선아를 감시해야 하는 차승혁에게 팬들이 계속 사인을 요청하자 거절  
하는 장면에서 팬에게 하는 말이다. 팬이라고 할지라도 초면이고 나이가 많은 상대  
방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경어법에 맞지 않는다. '다음에요, 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 2) 저속한 표현

저속한 표현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문법에 맞는 말을 사용하지만 표현이  
저품격적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인격 모독 표현과 차별적 표현, 폭력적인 표  
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 은어 및 통신어와 비속어, 선정적 표현 등이 포  
함된다. 조사 드라마에서 비속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사용, 인격 모독 표현  
이 특히 고빈도로 나타났다.

### ① 인격 모독 표현

인격 모독 표현은 해당 인물의 인격을 비하하여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  
우이다. 최근 주말 드라마에서도 여전히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  
었다.

(1) 그리고 목걸이 그거 내가 또 하나 사주면 되는데 뭐하러 이따위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싸우길 싸워.

<TV조선 지운수대통령(5회), 피해자 남편>

(2) 니까짓 게 무슨 일을 해, 괜히 사기나 당할라구.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5회), 엄청애(윤여정)>

(3) 그 양반이야 원래 미친 사람 아이가, 이번에 나머지 반도 미쳐버린 모양이지.

<SBS 바보엄마(18회), 오민석(김하균)>

(1)은 이은희에게 맞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달래며 이은희와 이은희 남편에게 화나서 하는 말이다. 인간에게 ‘인간같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2)는 엄청애가 평소에 실수가 잦은 큰딸 방일숙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3)은 오민석이 딸 오채린에게 양숙의 엄마인 김영주와 결혼하는 최고만이 미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자 하는 말이다. 멀쩡한 사람에게 원래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나머지 반도 미쳤다고 하며 인격 모독을 하고 있다.

## ② 차별적 표현

차별적인 표현은 성별이나 지역, 인종, 직업 등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표현을 말하며 이는 해당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차별적인 표현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1) 무슨 여자가 그렇게 해피?

<MBN 수상한 가족(2회), 천이백(김성수)>

(2) 니가 내 동생 잡아먹고 내 동생 돈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어유 양심도 없는 년.

<JTBC 해피엔딩(5회), 홍애란 시누이들>

(3) 하여튼 저런 늙은 여자가 문제야, 아유 재수없어.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4회), 지나가는 운전자>

(1),(2),(3)은 모두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다. (1)은 지인에게 칠천만 원을 빌리겠다는 여성을 남성이 나무라며 하는 말이다. 여성에게 고정적인 이미지를 강요한 표현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는 홍애란의 시누이들이 홍애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왔지만 홍애란이 거부하자 이에 대해 하는 말이다. 이는 자신들의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었다는 구시대식 여성 비하 발언이다. 남편을 잃은 여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3)은 도로에서 차유희에게 운전 연수를 받는 엄청애의 운전 미숙을 지적하며 지나가던 운전자가 던진 말이다. 나이든 여성에 대해 성별과 더불어 연령까지 관련된 여성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4) 그나저나 그 거지같은 동네에 무슨 도둑이 드냐.

<TV조선 지운수대통(8회), 전여사(홍여진)>

(4)는 딸 이은희가 엄마인 전여사에게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하자 하는 말이다.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해 일정 지역에 대한 비하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5)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여기서 청소하니?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19회), 정여사(김청)>

(5)는 아들이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다. 번듯한 회사 업무가 아니라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어머니의 표현 속에는 청소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가 은연중 포함되어 있다.

위의 예들에서와 같이 조사 드라마에서는 여성 차별적 발언, 지역 비하 발언, 일정 직업군 비하 발언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언중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 ③ 폭력적인 표현

폭력적인 표현은 거칠고 사나운 표현으로 인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위협이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폭력적인 표현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다시 한번 껌데기 먹으러 와 봐라, 껌데기를 흘랑 벗겨 버릴 거야.

<TV조선 지운수대통(9회), 전여사(홍여진)>

(2) 딸들한테는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린다, 다리를 푹 부러뜨린다 이러면서...

<KBS 닝쿨째 굴러온 당신(28회), 엄청애(윤여정)>

(3) 형님 짬밥 세 끼 드시기 전에 합의금 안 구해 오면 아주 그냥 주리를 틀어 분다고.

<MBN 수상한 가족(3회), 조폭 부하>

(1)은 전여사의 가게에 온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잡아 돈을 받은 후 위협적으로 하는 말이다. ‘사람의 껌데기를 벗겨버린다’는 표현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말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2)는 딸들에게는 엄하고 모질게 구는 남편이 며느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엄청애가 불만을 드러내는 말이다. 억지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거나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표현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이다. (3)은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손을 써 두었다는 말을 부하가 전한 것이다. ‘주리를 틀다’라는 표현으로 써 물리적 위해를 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방송에서, 특히 온 가족이 시청하는 주말 드라마에서는 이와 같은 폭력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④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

스포츠 용어나 의학 전문 용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일상 대화에서 필요 이상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어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단어를 선택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언중들이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 상당수가 이미 자리 잡은 것들이 있지만 순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외국어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예는 다음과 같다.

- (1)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겠다고요.  
 <MBN 사랑도 돈이 되나요(20회), 하민주(심은진)>
- (2) 쿨하다 못해 춤지, 사람이.  
 <SBS 신사의 품격(2회), 홍세라(윤세아)>
- (3) 두수야, 와이프한테 말해야하는 거 아니니? 와이프가 그렇게 걱정돼?  
 <JTBC 해피엔딩(5회), 홍애란(이승연)>

(1)은 대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회사를 개척하는 기업가에게 회장직 당시의 비서가 찾아와 새로운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을 표하며 하는 말이다. ‘스카우트’는 사전 등재어로서 외래어이기는 하나 ‘영입’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는 서이수가 김도진에 대해 묻자 하는 말이다. ‘쿨하다’ 역시 사전 등재어로 외래어이지만 ‘시원시원하다’ 등의 표현으로 순화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은 김두수가 양선아에게 자신이 병에 걸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자 홍애란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아내’나 ‘부인’이라는 순화어가 있음에도 ‘와이프’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외래어 표현에 비해 ‘와이프’의 사용은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 (4) 자꾸 이렇게 보면 익숙해지는 페이스거든요.  
 <TV조선 지운수대통(8회), 윤철(장원영)>
- (5) 아리랑 브레이크타임은 동료들끼리 싸우라고 있는 시간입니까?  
 <MBC 신들의 만찬(27회), 최재하(주상욱)>
- (6) 실무진을 통해 라인을 좀 뚫어볼까 하는데.  
 <채널A 불후의 명작(15회), 최진미(김선경)>

(4),(5),(6)은 모두 외국어이지만 외래어화 되어 가는, 즉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외국어이다. (4)는 윤철과 이금희가 선보는 자리에서 이금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 윤철이 하는 말이다. 자신의 얼굴이 계속 보면 괜찮다는 표현인데,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을 ‘페이스’라고 하고 있다.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순화하는 것이 좋다. (5)는 국영 한식당의 직원들이 서로 싸우자 정부의 사무관이 이를 꾸짖으며 하는 말이다. ‘브레이크타임’은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어이므로 ‘쉬는 시간’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6)은 최진미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서돈만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의 말이다. 이 경우에도 ‘라인’을 ‘거래처’로 대체하거나 ‘라인을 뚫다’를 ‘줄을 대다’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7) 리를 빗(Little bit).

<SBS 신사의 품격(1회), 이정록(이종혁)>

(8) 노(no).

<JTBC 해피엔딩(5회), 구승재(강타)>

(9) 그래두 노작가님은 티어 스틱(tear stick) 쓰면 귀신같이 알아본단 말야.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4회), 차윤희(김남주)>

(7)은 이정록의 부인이 자신의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설마 겁먹은 거냐고 묻자 하는 말이다. 부인의 과도한 분장이 부담스러웠던 이정록은 조금 그렇다는 의미로 외국어 ‘리를 빗(Little bit)’을 사용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외래어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하고 있다. 원어를 해석한 ‘아주 조금’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8)은 김은하가 호텔에서 잘리게 되자 구승재에게 자신을 위해 호텔 피트니스에 몇 번만 더 나와 달라고 부탁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다. 거절하는 대답이므로 ‘아니요’ 혹은 ‘싫어요’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9)는 드라마 PD인 차윤희(김남주 분)가 배우의 요구에 불만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티어 스틱(tear stick)’은 ‘인공눈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상생활에 자주 쓰는 표현이라도 시청자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용 상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는 우리말로 순화·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은어 및 통신어

여기서는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말인 은어와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통신어가 나타난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은어는 방송에서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표현이므로 이에 대한 오류 검토가 필요하다.

(1) 뺱이나 안 뜯겼나 몰라.

<SBS 신사의 품격(1회), 이정록(이종혁)>

(2) 덩치만 컸지, 완전 초딩이야.

<MBC 신들의 만찬(27회), 고준영(성유리)>

(3) 52년 아주 쌔뽕이면 이거 아주 바보 아냐 바보?

<SBS 바보엄마(15회), 김집사(조덕현)>

(1),(2),(3)은 모두 은어로 특히 (1)과 (3)의 경우 젊은 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어이다. (1)은 고등학생과 시비가 붙어 다쳐 온 김도진과 최윤에게 놀리며 하는 말인데, ‘뺱’ 대신 ‘돈’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는 여성이 호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을 떠올리며 하는 혼잣말이다. ‘초딩’ 역시 ‘초등학생’을 뜻하는 은어로서 품격 있는 표현은 아니다. (3)은 최고만이 자신이 지금까지 52년간 총각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김집사가 놀리며 하는 말인데, ‘쌔뽕’은 ‘새 것’을 의미하는 저 품격적 은어로 방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4) [자막] 저런 눈이 오히려 열라 선해.

<TV조선 지운수대통(11회), 윤철(장원영)>

(4)는 자막을 통해 통신어가 사용된 경우이다. ‘열라’는 ‘매우’나 ‘되게’, ‘엄청’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신어이다. 자막의 경우 시간상 지속되는 경우도 길고 각인되기 쉬우므로 더욱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외의 자막에서 여러 언어 오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통신어와 은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주로 젊은층이 많이 사용하는 은어가 곧 온라인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통신어나 은어를 사용할 경우 시청자들의 연령대에 따라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사용할 때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 ⑥ 비속어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말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엄격한 검토를 거친 후에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비속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조사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1) 그리 쪼매 부딪힌 거 갖고 어찌 남자가 진절머리 없이 하루 종일 그리 씨불 이노 씨불이길.

<SBS 바보엄마(16회), 김선영(하희라)>

(2) 하기가 연놈이 똑같으니까 같이 살겠지.

<TV조선 지운수대통(5회), 피해자>

(3) 아우 진짜, 구승재 이 개자식.

<JTBC 해피엔딩(6회), 김은화(김소은)>

(1)은 김선영이 최고만의 머리를 박고 나서 최고만이 김선영에게 계속 트집을 잡자 하는 말이다. ‘진절머리’는 ‘진저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씨불이다’는 ‘쓸데없는 말을 주책없이 함부로 자꾸 지껄이다’를 상스럽게 이르는 말이다. (2)는 이은희에게 맞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이은희와 이은희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다. ‘연놈’은 여자와 남자를 아울러 얄잡아 이르는 말로 ‘남녀’ 혹은 ‘남자와 여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3)은 구승재 때문에 직장에서 잘린 김은하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침대에 던지며 화내며 하는 말이다. ‘개자식’은 경멸스럽고 적대적인 남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로 방송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⑦ 선정적 표현

선정적 표현은 성적인 욕구를 북돋우어 일으키는 표현으로, 이를 방송에서 사용할 경우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거나 국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정적 표현은 많은 여과를 필요로 한다.

(1) 무슨 75A가 그렇게 체력이 좋냐.

<TV조선 지운수대통(11회), 지재수(황태광)>

(2) 내 돈 주고 여자 만날 것 같으면 젊고 탱탱한 것들 만나지 늙은 널 만나겠냐?

<MBN, 수상한 가족 2화, 민대식(노주현)>

(1)과 (2)는 여자에 대한 선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1)은 지재수가 하룻밤을 같이 보낸 최수아를 회상하며 혼자 하는 말이다. 브라 사이즈도 작으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시간이 길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주말 드라마에서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는 사장인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오는 체인점의 여성 점장이 자리를 비우자 내뱉는 혼잣말이다. 육감적인 여성의 체형을 ‘탱탱하다’로, 여성을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은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그 잘생긴 얼굴하며, 그 탄탄한 복근, 그 엉덩이까지.

<TV조선 지운수대통(11회), 최수아(임채원)>

(2)와는 달리 (3)은 최수아가 이은희에게 하룻밤을 보낸 남자(지재수) 이야기를 하며 그를 묘사하면서 하는 말이다. 여성의 엉덩이를 떠올리며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선정적 표현이듯, 남성의 엉덩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남성에 대한 성적인 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3) 기타

위의 항목 외에 지적할 수 있는 저품격 표현으로는 호칭·지칭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 아빠, 나 진짜 목도 안 돌아가, 아빠, 아빠도 알지, 나 진짜 싸움이라고는 눈 싸움도 못하는 거.

<TV조선 지운수대통(5회), 피해자>

(1)은 호칭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1)은 이은희에게 맞은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자신이 맞은 것에 대해 억울해 하며 하는 말이다. 『표준언어예절』에서도 밝히고 있듯, 아이가 있는 경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아이 이름) 아빠’ 혹은 ‘여보’와 같은 호칭어를 사용해야 옳다. ‘아빠’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사용해야 할 호칭어이다.

(2) 잘 기억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 당신 때문에 하늘로 간, 불쌍한 사람이에요.

<MBC, 신들의 만찬 27화, 김도윤(이상우)>

(3)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MBN, 수상한 가족 4화, 천이백(김성수)>

(2)와 (3)은 지칭어를 잘못 하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2)는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아들이 형의 장지에서 어머니에게 원망하며 하는 말이다. 비록 모자 관계가 소원하다고는 하나 어머니를 ‘당신’이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어머니’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은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며 하는 말인데, 결혼할 경우 남성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어·지칭어로서 ‘엄마’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5. 결론



주말 드라마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는 드라마인 만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의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품격있는 언어의 사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근의 주말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품격적 언어의 사용이 과도하게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오류 유형은 비속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의 사용, 인격모독 표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특히 어린 아이나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이외의 다른 유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츠 중계나 즉석 인터뷰 등과는 달리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 대본에 쓰여진 그대로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품격 언어가 상당수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방송지침이나 언어 규범 등의 검토 없이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방송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본 작가와 방송사는 올바른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좀 더 수준 높은 방송이 이루어질 때, 국민들의 언어 수준 역시 향상될 것이다.

방송 언어는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말 드라마 및 기타 드라마의 제작자와 배우들은 시청률에만 매달리지 말고, 방송 언어의 중요성을 각성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그리고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의 주말 드라마 언어사용 오류**

- 엑셀 파일로 첨부<sup>10)</sup>

※ 이 보고서의 부록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프리즘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처리되어 보고서 전체를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록 일부를 삭제한 결과만을 프리즘에 등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서 전체 내용을 내려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지원단(02-2669-972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본고에서는 ‘월간 보고서 1’의 붙임 파일을 271쪽부터 시작하는 ‘부록 4: 저품격 언어 출현 사례(전체)’로 갈음한다.

##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종선(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최석재(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조민하(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최정은(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보조원	김건영(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인쇄일	2013년 1월 3일
발행일	2013년 1월 3일
인쇄	프린팅마스타